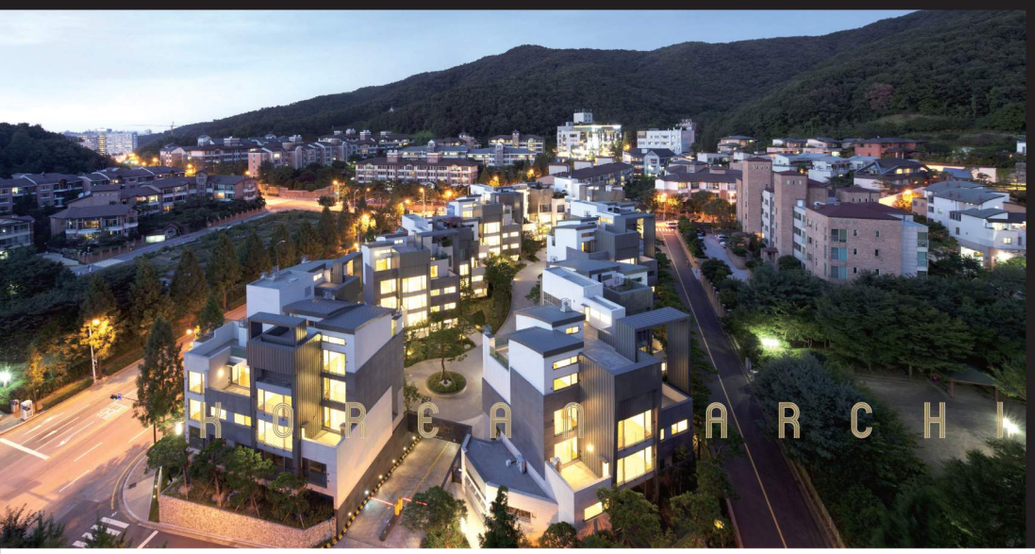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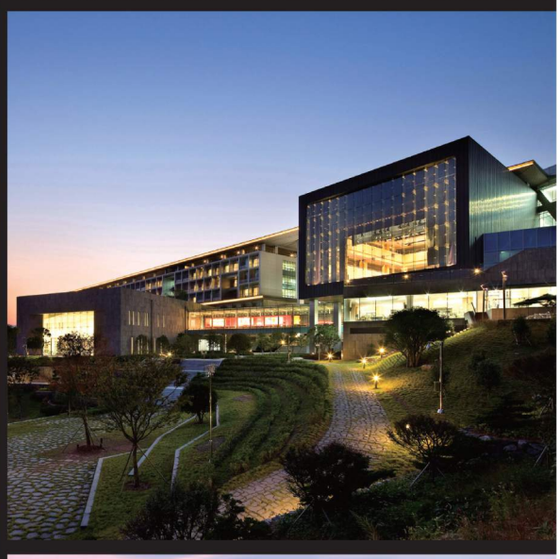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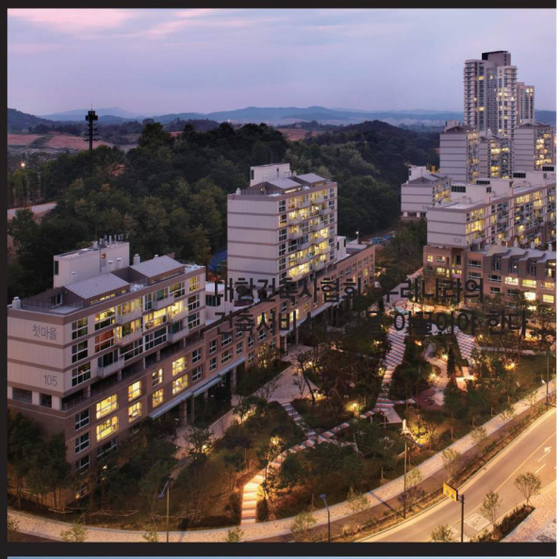
건축사

523







KIRA 2012 11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1966년 창간

칼 럼 대한건축사협회, 우리나라의 건축서비스산업을 이끌어야 한다

에세이 성인된 한국건축문화대상, 보다 성숙되어야…

윤선도의 五友歌와 Ecosystem

beyond the best

금호석유화학

블랙의 마술!

최적의 온도를 유지하는 흑연의 비밀
신개념 비드법 2종 단열재 **에너포르**

흑연 테크놀로지
에너포르는 열을 흡수하고 보존하는 흑연을 첨가한 첨단소재로 기존 단열재에 비해 20% 이상 높은 단열성능을 발휘합니다

슬림 이노베이션
뛰어난 단열성능 덕분에 기존 단열재보다 얇게 시공할 수 있어 공간은 더 넓게, 에너지 효율은 더 높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 웰빙 신소재
내부 구조가 기존 단열재보다 훨씬 미세한 기포구조로 되어있어 습기, 세균, 곰팡이로부터 더욱 안전한 친환경 웰빙 소재입니다

건축법상 [가] 등급 단열재
에너포르는 기존 발포폴리스티렌에 흑연을 첨가, 결정구조상 복사열 흡수기능이 적용되어
동일비중의 기존 단열재에 비해 열전도율이 최대 약 10~20%까지 향상된 신기술 제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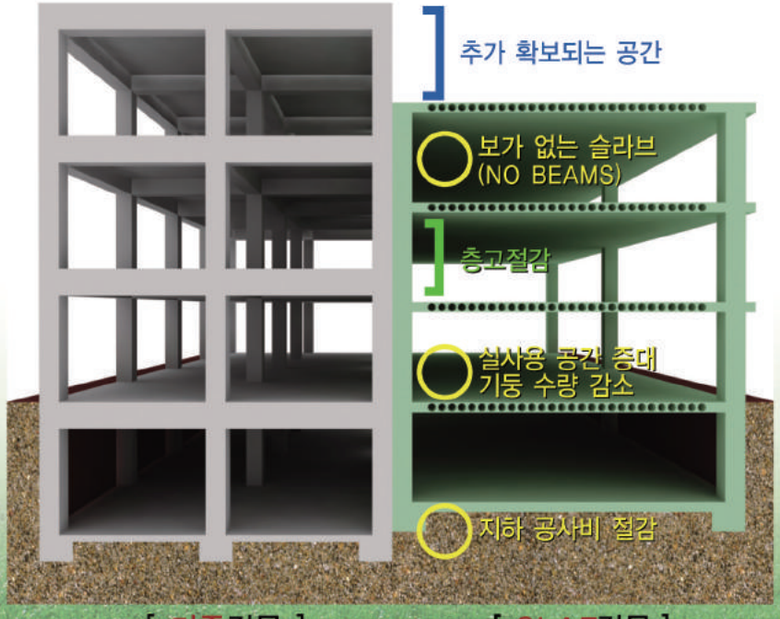
에너포르
www.kkpc.com

건축주가 원하는 바를
신공법 SLAF 가
간단히 해결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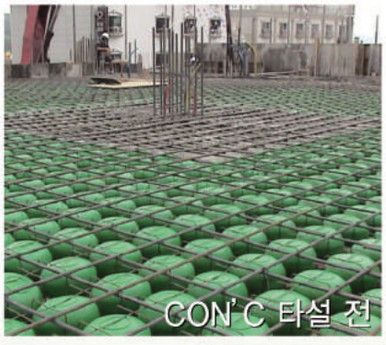
초경량 중공형 무량판 바닥구조

저탄소 녹색 성장 공법

- 공사비 절감 / 최소 15% 이상
- 공사기간 단축 / 최소 10% 이상
- 가용 공간 증대 / 기둥 수량 감소
- 소음 · 진동 · 보온 · 단열 · 내진 성능 우수
- 구조용역비 SAVE / 초기 구조 디자인 지원



[기존건물] [SLAF건물]



[주]신화엔지니어링
구조기술사사무소/벤처기업/기술혁신형중소기업
www.sh911.co.kr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28-20번지
TEL. (02)3481-3885(代) FAX.(02)3476-3888

[주]제일테크노스
SLAF데크시공사/데크플레이트전문기업
www.jeil21c.co.kr
경북 포항시 남구 장흥동 1850번지
TEL. (054)278-2841(代) FAX.(054)278-2883
TEL. (02)555-2055(代) FAX.(02)554-1476

미니로타리식 주차장치의

絶·對·强·者 창공 스카이파크

연속시장점유율 1위 누적설치실적 1위

www.juchagi.com

전국 1544-3335

PL법 영업배상 책임보험 8억 창공주차산업

창공 미니로타리식 입체주차장치

스카이파크

New Trend-Successful Business Power!

구동모터 2개로 보다 강력하고 안정적인 구동력을 갖춤

적용 : **중형급 16대형 / 대형급(RV 수용형) 12대형**

대형(RV급 수용형) 주차기 판매실시

2010년 신개발품! **수용대수 : 5대형~12대형**

일반형, 턴테이블 내장형까지

16대 수용형 및 대형(RV급 수용형)까지

절찬리 판매중!

아주 특별한 주차기 회사

주식회사 창공주차산업

CHANG GONG PARKING INDUSTRY CO.,LTD.

■서울사무소 :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 11길 27번지 1층 TEL : 02)333-4448

■공장 : 경북 칠곡군 지천면 칠곡대로 2172번지 TEL : 054)973-1900

■E-mail : sky23487@hanmail.net ■FAX : 054)973-0067

www.sypanel.com

설계부터 시공까지 원스톱 서비스!

조립식 패널 전문 설계팀의 전방위적 지원을 약속드립니다.

획일화된 디자인에서 벗어난 신개념 메탈패널

CUBE METAL

큐브 메탈패널은 서로 다른특징을 가진 4종의 타입이 기능적인 조인트 설계로 상호 조합되어 건물의 다각적이고 입체적인 표현이 가능합니다.

- **줄눈디자인**
  다양한 너비와 깊이
  독특한 경사형 디자인
  자유로운 세로줄눈 간격

- **기능성**
  타입별, 두께별 상호결합
  다양한 단열재
  누수방지 결합구조

- PIR
- GLASSWOOL
- ROCKWOO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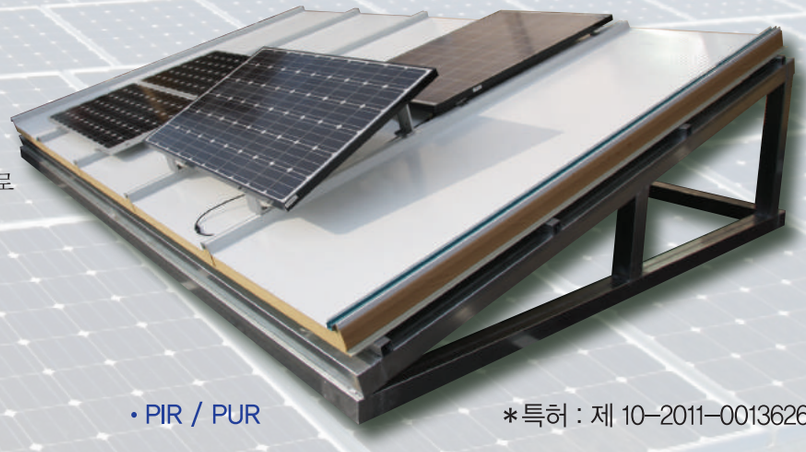
＊특허 : 제 10-2011-0139926호

신재생 에너지 : 태양광 발전용 패널

SOLAR Roof

솔라루프는 태양광 발전 모듈을 패널에 바로 설치할 수 있는 구조로 개발되어 부자재가 필요 없는 지붕일체형 태양광 발전용 패널입니다.

- **누수방지**
  볼트리스타입으로 모세관현상 방지 및 깔끔한 외관
- **시공성**
  기존 태양광 모듈 설치의 중복공사 감소로 인한 자재비 절감효과
- **경제성**
  뛰어난 단열 및 전력생산의 경제적 효과
- **확장성**
  일반지붕형 외에 경사형, 외벽형의 다양한 설치 시스템



- PIR / PUR

＊특허 : 제 10-2011-0013626호

에스와이패널(주)

본　　사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류2동 1121-4 리치타워 7층 Tel. 031) 222-4028~9 / Fax. 031) 221-5458
인주공장 : 충청남도 아산시 인주면 걸매리 1037 Tel. 041) 534-8484~5 / Fax. 041) 534-8487
논산공장 : 충청남도 논산시 가야곡면 강청리 226-3 Tel. 041) 742-8486~7 / Fax. 041) 742-8483

brother
at your side

건축, 엔지니어링 전문 기업을 위한

세계최초 리얼 A3 컬러 잉크젯 복합기
브라더 MFC-J6710DW

A3용지 인쇄 PRINT A3용지 스캔 SCAN A3용지 복사 COPY A3용지 팩스 FAX

PC MAGAZINE EDITORS' CHOICE
MFC-J6710DW
01/Jun/2011

기자들의 선택상 수상제품
(선정 2011. 6. 1)

LC73계열

Cyan	Magenta	Yellow	Black
LC73C	LC73M	LC73Y	LC73BK
600매	600매	600매	600매

LC77XL계열

Cyan	Magenta	Yellow	Black
LC77XL-C	LC77XL-M	LC77XL-Y	LC77XL-BK
1200매	1200매	1200매	2400매

brother
at your side

브라더인터내셔널코리아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37-22 백영빌딩 4층
Tel 02-572-4350 Fax 02-572-4363
http://www.brother-korea.com

A/S 문의 1577-3340

구매문의 최일환 대리 ilhwan.choi@brother-korea.com
HP.010-2291-5047

www.wilmat.kr

건축물 유지보수의 새로운 솔루션!

고품격 신개념 출입구매트

윌매트

Wilmat
신개념 출입구 매트

윌매트(wilmat)

매립형 신개념 출입구 매트로써 외부의 오염물들이 건물내부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주며, 건물특성에 맞게 제작하여 설치할 수 있는 고품격 출입구 매트시스템. 윌매트는 국내 생산제품이며 어떤 현장이라도 고객이 요청하시는 규격대로 제작이 가능합니다.

귀하가 요청하시는 현장에 맞게 주문제작 가능한 매립형 출입구매트. 윌매트가 바로 정답입니다.
유럽형 신개념 출입구매트의 기능성과 다양한 디자인으로 건물의 품격을 높여드립니다.
윌매트의 가치는 눈으로만 느끼기에도 충분합니다.
최적의 솔루션으로 귀하의 자산을 소중하게 지켜드립니다.

Luxury Entrance Matting System

시공실적

국립생태원, 국립제주해양과학관, 국회의원회관, 월드건설 사옥, 파주 롯데프리미엄아울렛, 63빌딩, 현대기아마북연구소, 한진중공업 필리핀메인오피스, 한진중공업 마닐라 사옥, 김포롯데몰, 제주보광휘닉스아일랜드, 삼성테크윈판교R&D센터, 판교LIG넥스원R&D센터, 송도 포스코건설사옥, 삼성전자기흥연구동, 신도림대성디큐브시티, 제주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이랜드사옥,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중앙대학교병원, 서울시립대학교, 인천의료원, 전북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천안단국대치대병원, 아시아나 기내식센터, 전국 초·중·고교 시설환경개선공사, 두산위브더제니스, 제주대학교, 휘닉스스프링스CC, 휘슬링락CC, 프리마호텔, 현대백화점, 홈플러스, 삼성디지털프라자, LG하이프라자, LG패션, 금강제화, 제일모직, 나이키 전국매장, 유니클로, 아디다스, KT지사등

국회의원회관

삼성그린투모루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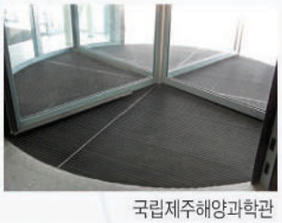
아시아나캐터링하우스

신촌세브란스재활병원

삼성테크윈판교R&D센터

파주롯데프리미엄아울렛

현대백화점 신촌점


국립제주해양과학관

현대기아마북연구소

송도포스코 R&D

ECOSYS (주)에코시스/윌매트 | 경기도 광명시 노온사동 544-2 Tel: 02-786-7115 / Fax: 02-784-2011

2012대한민국건축사대회에서 보여준 5,000여명 건축사들의 열정을 존경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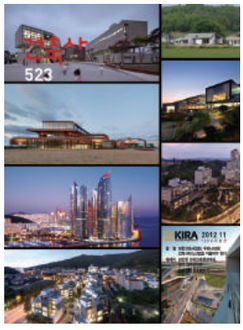
건축문화신문 편집국

KOREAN ARCHITECTS

건축사

www.KIRA.or.kr
2012 November 11

COVER STORY



표지사진 :
2012한국건축문화대상 준공건축물부문 대상 및 본상 수상작
자세한 내용은 본지 24페이지 특집 참조

발 행 인	강성익
편집인 겸 편집국장	조충기
취 재 · 편 집	최락청, 손석원, 문지은
발 행 처	대한건축사협회
주 소	137-877 서울시 서초구 서초1동 1603-55 (서초구 효령로 317) 건축사회관
전 화	대표 02_3415_6800
팩 시 밀 리	02_3415_6850
인 터 넷	www.kira.or.kr
디 자 인	(주)랜스에디팅 02_2273_8576
인 쇄	(주)미래엔 031_730_3800
광 고 문 의	홍보편찬팀 02_3415_6862~4

Publisher	Kang, Sung Ik
Editor	Zo, Chung-gi
Reporter	Choi, Rak-chung / Sohn, Suk-won / Moon, Ji-eun
Publishing Office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ddress	1603-55, Seocho 1-dong, Seocho-gu, Seoul, Korea
Zip Code	137-877
Tel	(02)3415-6800
Fax	(02)3415-6850

월간 「건축사」는 한국간행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게재된 기사나 사진의 무단전재 및 복사를 금합니다.

013 칼 럼 COLUMN
대한건축사협회, 우리나라의 건축서비스 산업을 이끌어야 한다
KIRA, It's time to lead the Korean Architectural service business
_조충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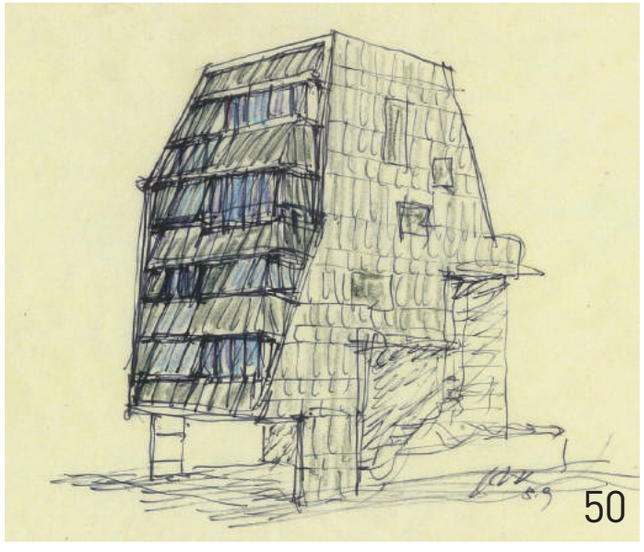
014 에세이 ESSAY
성인된 한국건축문화대상, 보다 성숙되어야…
Aged KAA, (Korean Architeture Award) required to be more matured
_김항년

015 에세이 ESSAY
윤선도의 五友歌와 Ecosystem
"O-Woo-Ga" by Yoon Sundo and Ecosystem
_이애란

017 만 평 CARTOON
_김진균

018 특집 화보 SPECIAL PICTORIAL
2012대한민국건축사대회 KIRA National Convention 2012
한국건축산업대전2012 Korean Architecture Fair & Festival 2012
2012건축의 날 2012 The Architecture Day

024 특집 SPECIAL ISSUE.
2012한국건축문화대상
Korean Architecture Award 2012



Contents 523

대한건축사협회 발행 2012년 11월호

050 회원작품 WORKS

혜화동 어반엑스 사옥
URBAN EX BUILDING
_오섬훈_KIRA | (주)건축사사무소 어반엑

구립 신사 어린이집
GANGNAM SINSA NURSERY
_조민석_KIRA | 단아 건축사사무소

국립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종합교육관
GYEONGNAM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EDUCATIONAL INSTITUTION
_성진용, 박기성_KIRA | (주)원양 건축사사무소

대한건축학회 건축센터
AIK ARCHITECTURE CENTER
_이인호_KIRA | (주)건축사사무소 이래건축

소금강 HILLS-5 Pension Site
HILLS-5 PENSION SITE
_홍영배_KIRA | ㈜한미기술단 건축사사무소

80 설계경기 COMPETITION

무안고등학교
MUAN HIGH-SCHOO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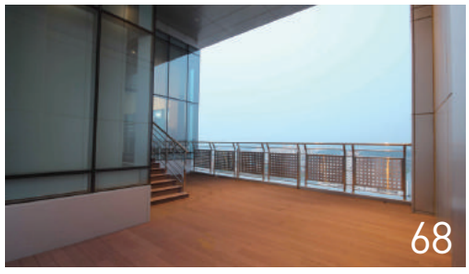
청주시 목련공원 봉안당
THE CHEONGJU MUNICIPAL CINERARI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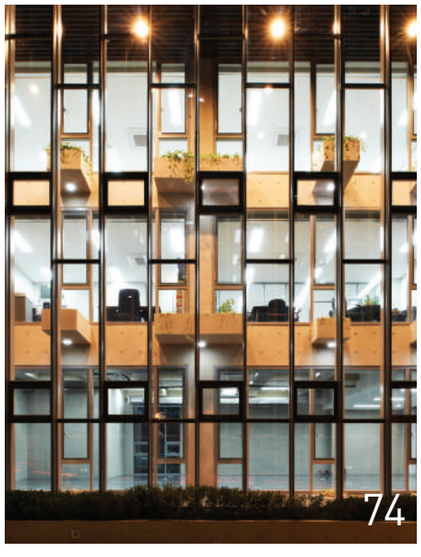
089 건축과 법률이야기 THE STORY OF ARCHITECTURE AND LAW

단지 내 공원, 공급안내서 명시는 고지의무이행이다
Posting park layout in a housing complex on its marketing booklet is obligated by law.
_성승환

090 건축마당 ARCHITECT'S PLAZA

협회소식 Kira News
건축계소식 Archi-Net
해외건축동향 _전성호 Overseas News Review
통계 Statistics





복합기능 고효율 단열재 전문기업

단열재는 역시 테크론!

두께는 얇고 열효율 높은 친환경 단열재!

우수한 성능 입증!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기술 및 기능성 연구에 의한 제품으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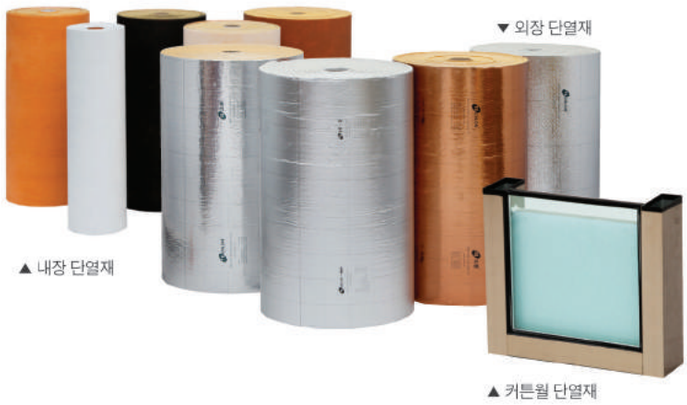
우수한 복합 기능! 표면이 Pure Aluminium foil 층으로 내구성, 내열성, 내진성, 방음성이 강하고 복사열을 차단(97%)하는 복합 기능 열반사 단열재!

에너지 절감 효과! 우수한 내습성, 방수성, 내열성, 내한성으로 보온 달열효과가 높음!

친환경 소재! 산화 및 풍화현상이 없으며 고인장강도로 지속적인 성능을 유지!

간편한 시공! 건축물 시공시 굴곡진 모서리 부분이나 틈새부분도 빈틈없이 타카 시공 및 스티커식 시공으로 완벽하게 할 수 있으며, 잔재물이 없음!

테크론탑 2015 적용 65mm감소!



테크론™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북좌리 379번지
대표전화 031)671-7071~3 팩스. 031)671-7074
www.itechlon.com

대한건축사협회, 우리나라의 건축서비스산업을 이끌어야 한다

〈GCF사무국 송도유치에 즈음하여〉

KIRA, It's time to lead the Korean architectural service business

조충기 | 편집인 겸 편집국장

우리나라가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에 성공했다. GCF는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등을 지원하는 기후변화 관련 국제금융기구다. 환경분야의 세계은행(WB)으로 불리는 GCF 사무국을 유치했다는 것은 녹색성장과 기후변화 분야에서는 우리나라가 국제적인 논의에서 중심이 된다는 뜻이다. 이는 21세기 국가브랜드 상승도 기대될 뿐만 아니라 신 성장 사업인 기후변화 관련 프로젝트 참여에도 유리한 입장을 가지게 됨을 의미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GCF 유치 성공으로 1,915명의 고용 유발 등 연간 3,812억 원의 경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GCF 사무국 유치가 우리나라 경제의 선진화와 글로벌화로 귀결되느냐, 서비스산업 및 금융산업발전의 전기가 되느냐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노력여하에 달린 셈이다. 따라서 이를 계기로 서비스산업 분야도 글로벌 시각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GCF 사무국이 우리나라에 들어서는 건 미래 동력의 시작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개발도상국에 녹색성장 모델을 전파하기 위해 2010년 우리나라 주도로 설립돼 서울에 사무국을 둔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는 국제기구로의 전환해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녹색성장의 중심 국가로 자리매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국회는 GGGI를 국제기구로 전환시킬 국내법을 마련해 우리나라가 녹색성장의 주도국가가 되도록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건축사협회는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행보로 우리나라 건축서비스산업을 이끌어야 할 것이다. 미국건축사협회가 미국의 서비스산업을 이끌어왔듯이 대한건축사협회도 스스로의 역량을 다듬어 우리나라의 서비스산업을 주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번의 GCF 유치 성공은 대한건축사협회에게 국가 장래의 비전제시와 건축사집단의 역량을 보여주는 기회를 준 것 아니겠는가? 이미 대한건축사협회를 비롯한 건축계는 저에너지 녹색성장, 녹색건축을 이해하고 이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오지 않았는가.

지금 세계 각국은 미래의 먹거리 찾기와 일자리 창출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이제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도 표심 잡기의 초점을 복지, 경제민주화, 일자리와 미래성장동력 발굴에 맞추고 있다. 대선 후보들이 GCF 사무국 유치를 일제히 반기고 나선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이를 발판으로 건축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의 도출과 비전 제시는 대한건축사협회가 해야 할 과제로 다가왔다. 이의 실천은 대한민국 건축사의 리더십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임은 물론 우리나라의 녹색성장을 이끄는 협회의 역량으로 자리매김하지 않겠는가?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지 말자!

이 기회에, 대한민국건축사집단의 역량으로 미래 성장 동력을 이끌어 가보자!

성인된 한국건축문화대상, 보다 성숙되어야…

Aged KAA(Korean Architeture Award) required to be more matured

김향년 | 대한건축사협회 법제 담당이사

한국건축문화대상의 시행이 벌써 20년을 넘겨 진정한 성인이 되었다.
한국건축문화대상 시행의 목적은 우리 건축물의 인간중시 · 환경조화를 구현하고 건축계의 유능한 후진 발굴과 건축인의 창작의욕을 높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 우리 고유의 건축문화 창달에 기여하고자 함이다.
또한 「건축은 문화」라는 대명제 아래 건축의 대중화를 추구함으로써 우수한 건축물이 피어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기여를 하여왔다고 자부하고 있다.

성인이 된 이번 행사의 몇 가지 부분에 대해 생각해 보자.
첫째로 수상자 모두가 정당한 수상자인가?
한국건축문화 대상은 설계자 뿐만 아니라 시공자, 건축주에게 까지 시상의 범위를 넓히고 있다. 이는 한국건축문화 대상이 추구하는 대중의 건축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데 많은 역할을 한 점은 틀림이 없다. 잘된 작품을 위해서는 설계자, 건축주, 시공자 모두 각자의 역할을 잘 수행하여야 하기에 이들 모두가 수상의 대상이다.
건축주가 적절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건축사의 작품에 대한 열정에 편승해 건축사를 힘들게 한 경우 이 건축주에게 시상을 했다면 과연 잘한 것인가? 시공자가 건축사의 의도를 벗어나 시공을 함으로써 전체적인 작품의 완성도를 떨어뜨린 경우 시공자에게 시상을 한 것은 잘한 일인가? 이러한 문제가 있음에도 수상을 계기로 스스로를 돌아보고 부끄러워한다면 다행이지만 그들이 잘해 수상한 것으로 생각한다면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본다.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도 않고도 좋은 작품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될지 참으로 걱정이 된다.

둘째로 20년 동안 시상한 작품에 대한 관심과 관리를 잘하고 있는 것인가?
얼마 전 파주의 한 주택을 방문하였는데 그곳에 거주하는 건축주가 집에 대해 상당히 애착을 갖고 자랑을 하여 집을 둘러보던 중 입구 벽에서 2007년 한국건축문화대상 수상 동판을 볼 수 있었다. 그분들은 좋은 작품에 살고 있다는 자부심이 대단했고 또 아끼고 관리를 잘하고 있는 것을 보고 참으로 기분이 좋았다. 돌아오면서 한국건축문화대상 시행이 20년이 지난 지금 20년 전 시상을 했던 작품들이 관연 잘 유지 관리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던 중 선배 건축사 한분이 본인의 작품을 본인과 의논도 없이 임으로 변경하여 해당 건물을 망쳐놓았다고 분개하시던 모습이 떠올랐다.
이제 역사와 전통을 갖춘 한국 건축문화 대상이라면 건축문화의 발전을 위해 한 번 더 도약하기 위해서 20년 전 시상한 작품을 재점검하여 현재의 시점에서 평가를 해보고 또 유지 관리를 잘 한 건물에 대한 포상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또 선배 건축사가 분개했던 그런 일에 대해서는 건축문화의 발전을 위해 우리 모두가 뜻을 같이하고 사회의 인식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로 한국건축문화대상의 진행에 문제는 없는 것인가?
건축문화대상의 홍보 부족으로 일부 부문의 응모건수가 적어 본상의 수준이 저하될 우려가 있기에 좀 더 적극적이고 충분한 사전 홍보 필요하다고 본다. 또 해외 건축사가 설계한 작품으로 실시설계만 한 국내 건축사가 출품을 한 경우 국내 건축사를 시상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할 것이다.
똑 같은 작품에 대해 여러 단체나 기관에서 시상을 각각 하고 동판을 붙이는 것도 또한 고민해야 할 문제로 한국건축문화대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여 확고한 권위를 갖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건축문화대상을 21년째 시행하면서 매번 개선 사항이 나왔을 것이다. 행사를 잘 치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년 반복되는 똑같은 내용의 문제점은 더 이상 나오지 말아야할 것이며 이제 진정한 성인이 된 시점에서 좀 더 창의적인 생각으로 더욱 성숙한 한국건축문화대상이 되기를 기원한다.

필자는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 후 (주)서울건축을 거쳐 현재 (주)예창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대한건축사협회 법제 담당이사와 건축사등록원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윤선도의 五友歌와 Ecosystem

"O-Woo-Ga" by Yoon Sundo and Ecosystem

이애란 | (주)해안 종합건축사사무소 상무이사

사람들에게 자연환경에 대한 강의를 하게 될 때면 읽어주는 옛 시조가 있다.
윤선도(尹善道, 1587~1671)의 '산중신곡' 중 마지막 시조인 '오우가(五友歌)'이다.

'내 벗이 몇인가 하니 수석과 송죽이라.
동산에 달 오르니 그 더욱 반갑고야.
두어라 이 다섯밖에 또 더하여 무엇하리'

생태계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기 전에는 이 다섯 친구를 단지 '자연' 이란 변치 않는 친구라는 교육적 내용으로만 여겼었다. 윤선도가 이 시조를 지은 것이 방년 56세. 생애의 말단에 찾아낸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이다.

생태계의 측면에서 이 시조를 분석해보면 가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첫째, 바로 이 다섯 친구는 지구상 생존조건의 3요소인 것이다. 물, 녹색식물, 그리고 생물이 살 수 있는 땅. 윤선도의 첫 번째 친구 '水'와 생존조건의 첫 요소가 일치한다. 또한 두 번째 친구인 '石'은 생명체의 생존기반인 땅이다. 이 두 친구가 만나면 생태다양성의 보고인 습지가 만들어진다. 물을 머금은 땅 바로 '습지'. 이 두 요소만 있으면 그 다음 친구들인 송과 죽 즉 녹색식물이 생존할 수 있다.

둘째, 다음 친구들인 '松'과 '竹'. 생태계의 관계성으로 본 소나무와 대나무이다. 생태계의 4대원리 중 가장 중요한 원리인 안정성 그리고 두 번째 원리인 순환성은 위의 두 나무로 해석할 수 있다. 소나무는 우리나라 핵심생태계의 수직관계 즉 생태적 안정성의 보고인 서식처에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하는 우점종(優占種)이다. 소나무가 없다면 온대기후인 우리나라의 지하, 지표, 지상의 생태피라미드의 안정성은 유지될 수 없다. 또한 대나무는 모든 사람이 알듯이 뿌리가 옆으로 뻗어 수평생태계를 잡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우리나라 수림대의 대표적인 자산이다. 유연하고 부드러워 바람을 막아주고 토양을 정화시키며 각종 동식물들의 먹이처와 피난처, 산란처가 되는 서식처(habitat)이다.

셋째, 달이다. 태양계에서 수많은 행성 중 유일한 단 하나의 생물권(biosphere) 지구. 그 지구의 순환원리를 이끌어주는 요소를 마지막 벗으로 결정한 것이다. 생태계의 두 번째 원리 순환성. 우리가 계획을 하며 가장 많이 다루는 녹과 물, 바람의 네트워크는 결국 달의 공전원리가 있지 않으면 안 되는 육지와 바다의 순환성에 기초한다. 이러한 생태적 원리는 자연스레 자연성과 다양성을 띄게 되어 살아있는 지속가능한 지구의 생태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윤선도는 60세인 귀가 순해진다는 이순(耳順)에 가까이 와서야 이 친구들을 진정한 벗으로 여겼던 것일까. 우리들은 벌써 선인의 지혜의 힘을 빌려 이미 다섯 친구의 소중함을 알 수 있는가보다. 이외수는 '발상의 전환'이란 에세이를 통해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에 대해 말하고 있다. 그의 글을 빌어 짧은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한다.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아주 하찮은 것들에 눈물겨워한다. 깨달음을 얻고 나면 대개 시가 터져 나온다고 한다. 그런 시를 일컬어 오도송(悟道頌)이라 한다. 대부분의 오도송은 자연을 이야기한다. 달빛을 얘기하거나 강을 얘기하거나 산을 얘기한다. 지천으로 공짜인 것들에 대해서 아주 크게 감동한다. 그대들도 발상의 전환을 통해 진실로 소중한 것들이 어떤 것인가를 깨달아가야 한다."

필자는 성균관대학교 조경학과 학사와 석사를 마치고, (주)정림건축, 솔토조경, 희림건축을 거쳐 현재 (주)해안건축에서 조경설계실을 맡고 있다. 조경기술사와 자연환경관리기술사를 취득하였으며, 중앙대 건설대학원 겸임교수를 지냈다. 현재 아주대, 단국대, 연세대 건축학과에서 조경과 건축을 강의하고 있다.

한국건축산업대전 2012 행사 개최

우수건축자재추천심사, 한국건축산업대전대상 등 풍성

대한건축사협회가 매년 개최하는 건축전문 전시회 '한국건축산업대전 2012(이하 KAFF 2012)'이 지난 10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성대히 개최됐다.

서울 삼성동 코엑스 3층 C Hall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는 '더 나은 건축을 위하여, GREEN NETWORK'을 주제로 예년에 비해 보다 다양해진 친환경건축, 건설자재와 교육 프로그램들을 선보였다.

10월 23일 오후 3시에 열린 개막식에는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과 이상정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 김영종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청장 등 외빈과 강성익 대한건축사협회 회장과 조성원 전시사업단장 및 협회 임직원이 참석했다. 개막식 컷팅 후 권도엽 장관은 내외빈들은 전시장을 둘러보며 참여한 여러 업체들과 대화를 나누는 등 지난해보다 더 깊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전시회 기간 동안 '우수건축자재 추천심사'를 실시했으며, 우수한 건축자재를 발굴, 추천하여 회원들에게 우수 건축자재에 대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했다.

한편 한국건축산업대전대상은 지난해보다 더욱 확대돼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상에 (주)삼한씨원과 (주)센구조연구소가 처음으로 수상했으며, 국토해양부장관상에는 (주)하나인더스, 경민산업(주), 하나케이텍(주)가, 환경부장관상은 (주)선진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건축사사무소 효성디벨럽이 수상했고, 대한건축사협회장상은 동방노보펌(주), (주)세이크가 수상했다.

1	
2	3
4	5
6	7
8	

1. 전시장 입장을 위해 길게 늘어선 관람객
2. 한국건축산업대전2012 개막식
3.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상 시상
4. 건축전문가들 간의 업무협력네트워크의 장
5. 전시장을 관람중인 내외빈
6. 2012년도 건축사실무교육
7. 우수건축자재 추천부스를 방문한 관람객
8. 전시장 전경

2012 건축의 날 기념식 개최

건축인걷기 한마당에 2,500여명 참여, 내년에 우리협회 개최

한국건축단체연합(FIKA/대한건축사협회 · 대한건축학회 · 한국건축가협회)이 주최하고 대한건축학회(회장 서치호)가 주관한 '2012 건축의날' 기념식이 지난 10월 8일 오후 2시 국립중앙박물관 야외행사장에서 개최됐다.

행사에는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과 이상정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 강성익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서치호 대한건축학회 회장, 이광만 한국건축가협회 회장 등 내외빈과 건축인 500여명이 참석했다. 건축의 날은 원래 경복궁 창건일 9월 25일이지만 기념식은 매년 10월 초에 개최하고 있다.

이날 유공자 포상에서 우리협회 권연하 회원이 영예의 대통령표창을 수여받았고, 국무총리표창에 김의중, 국가건축정책위원장 표창에 이운희, 정종태, 구창서, 국토해양부 장관표창에 안택영, 노경윤, 박대융, 이동춘, 전찬흥, 김성민, 문화체육관광부장관표창은 마춘영, 김강수, 백민석 회원이 수상했다. 공식적인 기념식이 끝난 후 이어진 리셉션에서는 다양한 축하공연이 채워졌다.

한편, 건축의 날 기념식에 앞서 지난 10월 6일 남산 국립극장 문화광장에서는 2,500여명이 모인 가운데 '2012 건축인 걷기한마당'이 개최됐다.

건축의 날을 기념해 열린 이날 행사에는 건축사 및 건축사 가족을 비롯한 건축사사무소 임직원, 건축과 대학생 그리고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이상정 위원장과 건축3단체장과 여러 단체의 임직원 등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1	
2	3
4	5
6	7
8	

1. 건축인 걷기 한마당 전경
2. 건축의 날 기념 전시회 개막식
3. 건축인 걷기대회 출발점에서 남산산책로로 출발
4. 대한건축사협회 수상자 기념촬영
5. 남산산책로를 걷고 있는 참석자들
6. 걷기한마당 후 열린 비보이 공연
7. 경품을 증정하고 있는 강성익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8. 건축의날 기념식 전경

건축사 '파워' 보여준 '201

'時+文=建築 건축사, 삶을 짓다'란 슬로건 아래 지난 10월 26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2대한민국건축사대회'가 성료 됐다. 지난 2005년 부산, 2010년 경기에 이어 지역에서 3번째 개최되는 대회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각지에서 5,000여명의 건축사들이 참가, 화합과 교류의 장을 이뤄냈다. 특히 건축계 행사로는 처음으로 김황식 국무총리가 참석해 의미를 더했으며, 이상정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 한만희 국토해양부 차관, 해외단체장으로 처수지엔 중국건축학회(ASC) 회장, 스미스 오바야왓 태국건축사협회(ASA) 회장, 폰사이 쑤티퐁 라오스건축사기술인협회(ALACE) 회장이 참석했다. 또 진보정의당 대선후보인 심상정, 새누리당 주영순, 통합진보당 오병윤 등 국회의원, 강운태 광주광역시장 등 정부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대한민국건축사대회가 건축계 대표 행사임을 증명했다. 한편 행사 전 새누리당 대선후보인 박근혜 의원이 참석하기로 했으나, 박정희대통령 서거 33주년 행사로 인해 참석이 무산되기도 했다.

1부 오프닝 공연 '타악그룹 얼쑤'의 '건축사 코리아를 울려라'는 대회장을 가득 매운 수천 명의 이목을 집중시켰으며, 사회를 맡은 김병찬 아나운서는 지난 2010년 대회에 이어 행사를 매끄럽게 진행했다. 내외빈과 16개 시도건축사회의 입장에 이어 강성익 대회장과 이창섭 대회조직위원장, 16개 시도회장은 전국에서 참석한 건축사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했으며, 대회장을 가득채운 5,000여명의 건축사들은 큰 박수로 화답했다.

이창섭 조직위원장의 개회선언과 강운태 광주광역시장의 환영사, 강성익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의 대회사, 김황식 국무총리의 치사에 이어 심상봉 집행위원장의 선포문에 맞춰 건축비전 선포식이 진행됐다.

이어 귀빈들의 축사와 참석한 3국의 해외 건축단체장에 대한 대한건축사협회 명예회원

2대한민국건축사대회’ 성료

1
2 3 4 8
5 6 7 9

1. 대한민국건축사대회 전경
2. 대한민국건축사대회 전경
3. 10월 25일 열린 환영만찬
4. 강성익 회장의 영접을 받고 있는 김황식 국무총리
5. 환영만찬에서 건축사합창공연
6. 환영만찬 전경
7. 대회를 찾은 한만희 국토해양부차관(좌)
8. 김대중컨벤션센터 내부홀 전경
9. 사회를 맡은 김병찬, 최한아름

건축사 화합과 국내 건축계 대표하는

국무총리와 대선후보, 해외 인사, 건축사 5천여 명 참여

증 수여식, 광주광역시건축사회의 빛고을 장학기금 1천만 원 기탁식이 진행됐으며, 차기 대한민국건축사대회 개최지를 경상북도건축사회가 개최함을 발표하고 대회기 전달과 함께 차기 개최지 축하영상을 상영하며 1부 행사를 마무리 했다.

2부 행사에서는 건축사 음악동아리 '상상밴드'의 공연과 '리틀사이' 김민우 군의 공연, 초청가수 축하공연, 회원 장기자랑, 행운권 추첨 등 다채로운 행사로 막을 내렸다.

한편 본 대회에 앞서 열린 세미나 강연에서는 다양한 건축담론 펼쳐졌으며, 강성익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은 '새로운 시대의 건축사의 사회적 역할과 직업윤리'란 주제로 강연해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1	2	3	7	8	9	
4		5		10	11	12
6			13	14	15	
			16	17	18	

1. 강성익 대회장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2. 김황식 국무총리를 마중 중인 강성익 회장
3. 식전행사
4. 대회를 찾은 국회의원들
5. 대회장 입장 모습
6. 대회기를 흔들고있는 강성익 대회장
7. 치사 중인 김황식 국무총리
8. '건축비전선언' 터치버튼 행사
9. 건축비전 선언중인 건축사들
10. 건축사 합창제
11. 리틀싸이 김민우 군의 축하행사 모습
12. 이상정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
13. 시도회장단 인사
14. 행사장 뒷뜰에서의 점식식사
15. 출입구 검색대를 통과하고있는 건축사들
16. 김황식 국무총리의 방명록 서명
17. 건축사실무교육 전경
18. 장학기금을 전달하고 있는 심상봉 집행위원장(좌)

메머드급 행사로 성장

2014대한민국건축사대회는 경상북도건축사회

한국건축문화대상

Korean Architecture Awards 2012

한국건축문화대상은
1992년부터 건축문화 창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인간중심의 건축물,
환경과의 조화 및 건축계의
유능한 후진 발굴과
창작의욕 고취를 목적으로
매년 시행되고 있다.

올해로 21회째를 맞는 2012한국건축문화대상 수상작이 발표됐다.
영예의 대통령상에는 「서천 [봄의 마을]」, 「다음 스페이스닷원」, 「빌라드와이」 설계자와 「해운대 IPARK」 시공자가 선정됐다.
국무총리상에는 「영주시 조제보건진료소」, 「LIG손해보험 인재니움 사천연수원」, 「모켄팬션」 설계자와 「첫마을 1단계 1, 2, 3단지 공동주택」 시공자가 선정됐다.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으로 선정된 작품의 시공자, 건축주에게는 국토해양부장관상이 수여됐다.

한국건축문화대상은 건축에 대한 문화적 토대가 부족한 1992년에 제정돼 「건축은 문화다」임을 표방하며 이 땅에 우수한 건축물이 탄생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내고 건축인의 창작의욕을 북돋워왔다.

올해에는 준공건축물의 완성도가 뛰어나야 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작품 선정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척도이나, 작금의 공공분야 건축물에서 작품의 혼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섬세하고 창의적인 디테일 디자인이 사라져가고 있는 현상을 안타까워하면서 이러한 현상들을 심사를 통하여 준열하게 지적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반영하였고, 사회 공공건축부분을 평가함에 있어 공공건축이 기존의 이웃환경과 얼마나 상호 교감하고 서로를 존중하느냐를 살펴보았다. 또 프로젝트의 진행 과정에서 건축사와 기획자, 발주처와 시행사 모두가 얼마나 진지하고 끈기 있게 주어진 문제를 풀어나갔는가 하는 과정 중시형의 평가 기준으로 엄정한 심사를 통해 우수한 건축물을 선정했다.
특히 사회공공부문의 대통령상 수상작인 「서천 [봄의 마을]」은 서천시민과 서천시가 오랜 잉태기간을 거쳐 만든 진정한 의미에서의 시민공동체 광장이고, 그 결과를 도출해 내기까지는 한편의 드라마 같은 관계자들의 헌신과 열정이 만들어 낸 작품으로 평가 됐다.

올해 한국건축문화대상에는 준공건축물부문 100점, 계획건축물부문 386점 등 총 486점이 응모됐으며, 시상식은 10월 23일(화) 코엑스 4층 그랜드컨퍼런스룸에서 개최됐고, 수상작은 코엑스 3층 C Hall에서 개최된 '한국건축산업대전 2012' 행사에 10월 23일부터 26일까지 전시됐다.

1	2
3	4
5	6

1. 시상식 전경
2. 강성익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대회사
3. 공로상 시상_박정태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설기술부문 부문장
4. 올해의 건축문화인상 시상_김영종 서울특별시종로구 구청장
5.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축사
6. 한국건축산업대전2012에서 열린 수상작 전시장 전경

준공건축물부문

준공건축물부문

□ 행사일정

▶ 작품공모공고 : 2012. 3. 2 ~ 6.5
▶ 참가신청(인터넷 신청) : 6. 5까지 (kaa.kira.or.kr)
▶ 접수 : 6.7 ~ 6.8 / 장소 : 대한건축사협회 대강당
▶ 심사 : • 1차 사진첩심사 : 6.21
• 준공건축물부문 2차 현장심사 :
7.2~7.4(지방), 7.10 ~ 7.13(수도권)
• 준공건축물부문 최종심사 : 7.13
▶ 시상식 : 10. 23 10:00 / 코엑스 3층 C홀
▶ 수상작 전시 : 10. 23 ~ 26 / 장소: 코엑스 3층 C홀

□ 심사위원

류춘수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이공 대표_심사위원장
김용승 한양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김영섭 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정태복 (주)부산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서용주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도우건축 대표
권구찬 서울경제신문 논설위원
신성우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대상 수상작

- 서천 [봄의 마을]
- 다음 스페이스닷원
- 해운대 IPARK
- 빌라드와이

본상 수상작

- 영주시 조제보건진료소
- LIG손해보험 인재니움 사천연수원
- 첫마을 1단계 1, 2, 3단지 공동주택
- 모켄팬션

우수상 수상작

- 울산 월드메르디앙 월드시티
- 지노하우스
- 폴라리온 스퀘어
- 글로벌 엔지니어링센터
- 소소헌
- 인페쏘
- 루프텍처 : 이플러스 그린홈
- 수원 쉬즈메디 병원 증개축
- 보정성당
- 제주아트빌라스
- 영화의 전당
- 서울 추모공원 : 화장시설
- 문화역 서울 284
- 서울대학교 기초사범교육 협력센터
- 2012 여수세계박람회 주제관
- 전곡 선사박물관
- 여초 김응현 서예관
- 한성백제박물관
- 수지문화복지타운

서천 [봄의 마을]

Village of Spring, Seocheon

- 설계자–대통령상 :
  이흥재_(주)비드 종합건축사사무소
- 시공자–국토해양부장관상 :
  (주)에이치에스홀딩스
- 건축주–국토해양부장관상 :
  서천군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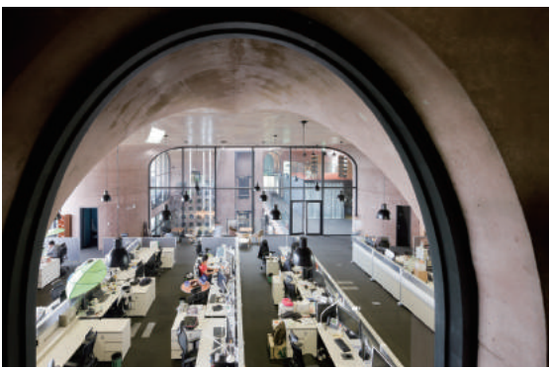
심사평

충남 서천의 봄의 마을은 서천시민과 서천시가 오랜 잉태 기간을 거쳐 만든 진정한 의미에서의 시민공동체 광장이고 그 결과를 도출해 내기까지는 한편의 드라마 같은 관계자들의 헌신과 열정이 만들어 낸 작품으로 평가되었다. 기획과 준비를 무려 3년여에 걸쳐 꼼꼼히 한 후 관과 민을 설득한 주대관 커미셔너(기획자)는 조정자의 역할을 훌륭하게 해내어 이 프로젝트의 수훈갑으로 손꼽아도 전혀 흠 잡을 수 없을 건축사이다. 그는 늘 낙후된 농촌과 탄광지역을 돌아다니며 저소득층의 주민들의 삶을 고양시키는 집지어주기 운동의 기수이며 투사이기도 하다.

서천 봄의 마을 광장은 서천시의 오래된 시장터를 이전하고 그 자리에 시민 문화센터와 광장을 건립한 어찌 보면 지극히 평범한 공공프로젝트일수도 있었다. 그러나 서천시와 커미셔너는 들쭉날쭉한 경계에 접한 건축주들을 오랜 기간 동안 수없이 접촉하고 일일이 설득하여 세상 어디에 내놓아도 자랑스러울 훌륭한 외부 광장과 그곳을 에워쌓는(서천시민 누구나에게 열린) 아름다운 커뮤니티 시설을 만들 기틀을 닦았다. 서천시와 커미셔너는 탁월한 능력을 가진 건축사를 공정하게 평가한 지명설계경기를 통하여 선정하였고, 많지 않은 비용과 예산 속에서도 설계를 맡은 건축사는 실현 가능한 재료로 검박한 콘크리트의 물성을 채택하였지만 시민들이 주인이 되는 근사한 공간을 만들어 놓았다. 협력설계자이자 감리 감독을 맡은 경기대 건축학과 윤희진 교수는 관계 공무원이 감동할 정도로 매주 현장을 찾아 헌신과 봉사를 다하여 건축사를 비롯한 건축 전문인들이 사회를 위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를 확실히 각인시켰다는 소회를 현장 설명 시 직접 들을 수 있었다.

다음 스페이스닷원
Daum Space.1

- 설계자–대통령상 :
  박기수_(주)건축사사무소 매스스터디스
- 시공자–국토해양부장관상 :
  현대산업개발(주)
- 건축주–국토해양부장관상 :
  (주)다음커뮤니케이션



심사평

건축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제주도는 풍광이 빼어난 곳일 뿐만 아니라 독특한 경관이 지배하는 곳이라 무엇보다도 주변과의 조화, 특히 제주도라는 자연 속에 어떤 방법으로 건축물을 결합시키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라고 쉽게 말하게 된다.
그러나 여기 새로운 건축적 풍경(Architectural Landscape)을 만들어 제주의 풍광을 다시 기억하게 만든 젊은 건축사가 있다.
우리나라 유수의 인터넷사 Daum은 회사 설립 초창기부터 혁신적인 발상과 시도로 세인들의 주목을 끌어왔다. 민간회사 스스로가 혁신도시 이전이라는 정부시책과 무관하게 서울에서 제주도로 본사를 이전한다는, 그리하여 지역 발전과 상생에 기여한다는 충격적이고도 신선한 시도에 적지 않은 사람들은 갈채와 함께 우호적 시선을 보냈다.

Daum의 제주사옥 건축역시 새로운 방식의 기능과 결합한 건축 구조체제(어쩌면 1950년대와 60년대 미국의 루이스 칸의 작품이나 일본의 메타볼리스트들의 건축형식과 유사한)를 제주시가 내려다보이는 구릉지에 선보이고 있다. 구릉지에 펼쳐진 넓은 테라스는 미래 확장형의 모습을 취하고 있는데 내부로 들어가면 딱딱하고 경직된 겉모습과는 달리 조화된 재료의 물성과 함께 풍부한 감성의 공간이 여기저기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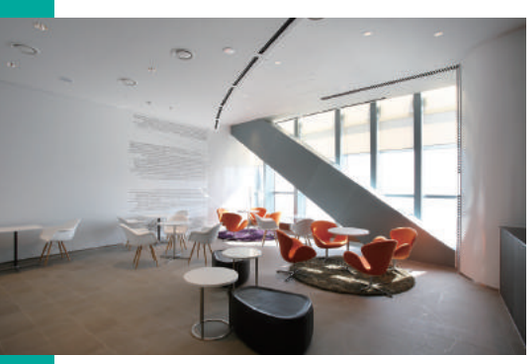
탁 트인 앞뒤의 전경에서 사람들은 한라산과 제주 앞바다를 동시에 바라보며 미래를 꿈꾼다. 다음 스페이스 건물에서는 미래를 향한 새로운 젊음이 느껴진다.

해운대 IPARK

Haeundae IPARK

- 설계자–국토해양부장관상 :
  김회훈_(주)종합건축사사무소 건원
- 시공자–대통령상 :
  현대산업개발(주)
- 건축주–국토해양부장관상 :
  현대산업개발(주)

※ 시공자 · 건축주 동일인 이므로 시공자만 시상



심사평

건축적 차별성이 뚜렷하지 않음으로 인해 늘 아쉬웠던 공동주거부분에 있어서 올해에도 출품된 작품의 수가 타 분야에 비해 적어, 공동주거부문에 대한 보다 다양하고 의외적인 참신한 새로운 대안이 필요함을 절감할 수 있었다.

본 작품의 경우는 오래전 바다를 매립하여 인공적으로 생성된 대지 위에 획일화된 기존 도시, 부산 해운대의 스카이라인에 걸맞는 아이코닉한 건물로 다이내믹한 경관 창조의 노력이 돋보였다.

다양한 외부공간과 바다로의 조망을 우선하여 주동배치를 하였고, 외관이 곡선 형태로 구성된 각각의 주동들은 모든 방향에서의 시각적인 개방성과 각 건물간의 연계성 확보를 고려하여 단지 중앙을 커다란 오픈 스페이스로 계획하였으며 그 안에 3개의 초고층(72층) 주거동, 업무 및 판매동 각 1동이 각자의 독특한 건축적 언어로 연결된 점도 인상 깊었었고, 특화된 스카이브릿지 디자인들을 통해 각동의 초고층 건물에 대한 위압감을 경감시킨 점은 인상적이었다.

각각의 단위 unit을, 형태의 제약을 뛰어 넘어 실생활의 효용성과 경관의 다이내믹한 view를 느낄 수 있도록 섬세하게 계획되었으며 각 동의 향에 따라, 특히 수직적으로 평면유형이 달라지면서 3개 주동의 전체 평면 유형이 200여개에 이르는 점에 대해서는 다양성 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삶의 기능면에서나 시공성, 사업성면에서는 의아심을 떨칠 수가 없었다.

업무시설과 판매시설의 역동적 매스의 조합이 제공하는 긴장감이나 전통 한옥의 처마선(현수선)을 현대적으로 형상화시킨 출입구 디자인은 특히 인상적이었다. 무엇보다도 기존의 획일화된 모습에서 탈피한 공동주거의 새로운 유형을 제시한 건축적인 아이디어에 갈채를 보낸다.

빌라드 와이
Villa De Y

- 설계자–대통령상 :
  오세왕_(주)지디엘 건축사사무소
- 시공자–국토해양부장관상 :
  요진건설산업(주)
- 건축주–국토해양부장관상 :
  요진건설산업(주)

※ 시공자 · 건축주 동일인 이므로 시공자만 시상

심사평

분당의 자투리 경사부지에 잘 조합된 36가구의 연립주택으로 층간의 레벨을 잘 이용해 다양한 평면의 가구를 창조해 낸 수작이다.
이 건물은 사선 배치의 주동으로 대지 경계와 마주한 1층의 마당 공간, 평면의 슬라이딩 배치로 다양한 외부공간이 삶의 다양성을 제공하고 있다.

다양한 레벨의 입면구성으로 단지의 단조로움을 피하고 다양성을 추구했으며 다소 과한 디자인이 거북한 면도 있으나 마감으로 잘 정리됐다.
내부공간은 과도한 오픈의 단면구성으로 에너지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노인세대의 거주에는 동선의 단차가 많아 불편함도 보인다.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좁은 대지에 주동의 조망권 확보 등 설계자의 공간창출에 대한 내공이 잘 투영된 건축물이다.

사회공공부문 영주시 조제보건진료소
Joje Public Health Center

- 설계자–국무총리상 : **윤승현**_(주)건축사사무소 인터커드
- 시공자–국토해양부장관상 : **(주)은송**
- 건축주–국토해양부장관상 : **영주시청**

심사평

영주시 조제보건진료소 또한 서천시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은 숨은 건축의 재능 봉사자들이 이룩해 놓은 성과이다. 영주시의 공공건축담당관(조준배)은 영주시의 각종 공공 프로젝트의 커미셔너를 맡아 최근 영주시가 행안부와 국토부 국가건축정책위의 공공건축과 공공디자인에 관한 벤치마킹 도시가 되는데 큰 역할을 한 인물이지만 이러한 배경에는 영주시장이 추구하는 공공건축에 대한 철학과 지속적인 시스템 구축, 강력한 행정지원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영주시 조제보건진료소는 영주시 외곽의 대중교통소외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20호 남짓한 산촌마을의 주민 편의시설이다. 시군구에 위치하는 보건소에 가기조차 힘든 오지마을에 책임간호진료사를 파견하여 지역주민 건강을 돌보는 시설이면서 마을의 사랑방이나 경로당 같은 역할을 하는 140㎡(40평정도 규모) 남짓한 소규모 건물로 이루어져 있다.

내부는 상주 진료사의 주거공간이 함께 있다. 가족들이 거주하는 사적 영역과 공적 진료 영역이 적절하게 분화되어 있으면서도 쉽게 근무지를 드나들 수 있도록 기능적 조화가 잘되어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영주시 조제보건진료소 건축에서 가장 크게 주목해야할 대목은 커미셔너의 디자인 지침에 따라 기존 마을 분위기를 저해하지 않도록 박공지붕의 형태를 취해야 하는 제약 속에 섬세하게 설계되었고 시공수준 역시 투자비용과 효과 측면에서(오지와 소규모임을 감안하면)만보더라도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공건축에 대한 남다른 사명감으로 건축사는 영주의 오지까지 서울에서 매주 왕복하면서 공공건축의 감리 수행을 (재능 기부를 통하여) 훌륭하게 이루어낸 바 있다. 그 결과 참으로 지역에 잘 어울리는 근사한 건축물을 마을 주민에게 선사하게 된 것이다.

민간부문 LIG손해보험 인재니움 사천연수원
Sachun Training Institute Masterplan of LIG Insurance

- 설계자–국무총리상 : **김자호**_㈜간삼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 시공자–국토해양부장관상 : **지에스건설(주)**
- 건축주–국토해양부장관상 : **엘아이지손해보험(주)**

심사평

한 기업의 연수원이라 함은 그 기업의 얼굴과도 같다는 생각을 해본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천 인재니움은 건축주의 뜻이 잘 구현된 연수원이란 점에서 모든 심사위원이 동의하였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최대한 존중하며 들어선 저층의 기다란 두 개의 동은 지형에 순응하며 사선으로 교차되고 있다. 이 교차되는 중앙부분은 그대로 열려 있어서 전면의 다도해 풍광을 그대로 담고 있으며 바닷가로의 동선을 자연스럽게 이끌고 있다. 숙소동은 객실뿐만 아니라 숙박객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기능과 프로그램들이 잘 구현되어있다. 더불어 교육동은 교육을 받는 이용자들을 최대한 배려한 기능프로그램을 설정하여 그에 적합한 최적의 공간들을 제공하고 있다.

원경에서의 연수원은 옆으로 길고 낮은 프로필로 그 존재를 겸손하게 드러내고 있으며 근경에서의 모습은 성공적 시공과 디테일로 인하여 잘 만들어진 건물임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건축주의 의지가 그대로 반영된 결과임이 모든 심사위원의 이구동성이었다.

공동주거부문
첫마을 1단계 1, 2, 3단지 공동주택
The First Twon Apartments, Phase 1, Blocks 1, 2 and 3

- 설계자–국토해양부장관상 : **김회훈**_(주)종합건축사사무소 건원
- 시공자–국무총리상 : **한신공영(주)**
- 건축주–국토해양부장관상 : **한국토지주택공사**

심사평

전체적으로는 지형의 원형을 잘 보존하면서 각 영역별 특성에 적합하게 대지를 재구축하여 'Platform'이라는 입체적인 대지의 주름, 내외부가 연속되고 탈위계적으로 이어지는 '지형적 건축공간'은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이루게 된다. 기본 Master plan에서 Urban spine이라는 인접한 도시가로와 BRT의 연계를 통하여 기본적인 진입체계 및 도시의 골격을 형성한 점과 기존의 녹지를 최대한 보존하며 대지와의 접촉면을 최대화하기 위한 바람개비 형태의 7개 주거판계획 등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원초적인 시도로 높이 평가 되었다.

중앙공원을 중심으로 주생활영역의 사이공간에 방사형의 자연축과 커뮤니티를 위한 녹도형성, 입체 Deck계획으로 보 · 차분리 구현 및 단지 내 커뮤니티 활성화를 도모한 점은 기존 공동주거에서 탈피한 좋은 선례로 보인다.

단지 주요 거점부에 3개동씩 위치하며 첫 마을과 각 블록의 인지 등을 확실히 하는 Landmark tower, 동간거리를 최대화하여 금강변의 바람길 유입과 연속적 경관연출을 위한 금강수변의 생태경관타워로서의 Panorama tower, 주동의 저층부 · 고층부 분리와 매스와 재료분리를 통한 보행가로변의 위압감 해소, 마감재 본래의 물성을 강조하고 돌출발코니를 이용한 입면계획과 저 · 고층부 분리를 통한 디자인으로 판상형 외관의 단조로움을 탈피한 시도는 높이 평가되었다.

공간이용의 섬세함과 다양성이 살아있는 공간 추구로 개방감이 있는 복층구조는 수작이라 말할 수 있다. 역동적인 형태미를 뽐내는 커뮤니티센터와 주동과 통합 계획된 보육시설, 수경시설물을 활용한 조형적인 테마공간도 빼놓을 수 없는 훌륭한 친화적 공간이었다.

일반주거부문 모켄팬션
The Pension MOKEN

- 설계자–국무총리상 : **곽희수**_㈜이뎀 건축사사무소
- 시공자–국토해양부장관상 : ㈜**제효**
- 건축주–국토해양부장관상 : **박순자**

심사평

주변 풍경과는 너무도 낯선 충남 태안에 있는 펜션건물이다.

평범한 야산자락에 경사를 활용한 도시적 건축물이 전원 속에서도 조화롭게 어우러질 수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특히 경사면에 대응하는 강한 선들은 꿈틀대는 생명력으로 역동적인 공간으로서의 역할과 대지의 확장요소를 옥상정원을 통해 드러낸다.

크로스 브리지 램프는 설계자의 공간 창출에 대한 내공을 충분히 보여주고, 관통된 유리창을 통한 공간확장은 전원을 실내로 유입시키며 외부공간과의 확장을 꾀하고 있다.

실내마감부분의 노출콘크리트는 통일성은 돋보이나 시공의 정밀도가 낮음을 지적한다. 그러나 한적한 전원 속에서 이 건축물이 주는 강한 임팩트는 건축의 다양성을 대변하고 있다.

2012 한국건축문화대상 준공건축물부문 대한건축사협회장, (주)서울경제신문 사장 공동명의상

울산 월드메르디앙 월드시티

World Meridian World City, Ulsan

- 설계자 : **함인선**_(주)선진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 시공자 : **월드건설(주)**
- 건축주 : **울산개발(주)**

심사평

공업도시 울산광역시의 중심에서 다소 벗어나 있는 듯한 다소 한적한 산자락 끝에 위치한, 그렇지만 대단지 고층아파트로서 단지입구에서는 조금은 위압감이 느껴지는 평범한 주거단지였다.
입지를 시작한지 1년여가 지났지만 아직 입주하지 않은 세대가 눈에 띄게 느껴질 정도로 단지 내 삶의 생동감은 다소 떨어졌다.

주동배치는 비슷한 매스의 주동들이 나름대로의 조망감과 일조, 프라이버시 등을 기본적으로 확보하며 지형의 형태에 따라 자연스럽게 정렬되어, 정갈스럽고 조용한 아파트단지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다. 완성도 높은 마감과 더불어 지형의 자연스런 모습과 함께한 각 주동계획, 주민을 위한 공공공간의 효율적인 도입 등이 다소 높게 평가되었으며, 대지의 레벨차를 활용한 배치계획은 각주호별 평면계획과 적절히 조합되어 입주민의 프라이버시와 조망권 확보, 공공영역의 확보로 이어지고 있는 점은 수작이었으며, 다양한 단차를 이용한 주동구성과 입면구성은 획일적일 수 있는 아파트 단지의 경관을 다양하게 유도하며 자칫 폐쇄적이 될 수 있는 공동주거의 단점을 줄이려는 노력이 돋보였다. 하지만 경제적 측면에서 사업성 제고 등을 고려하다 보니 주변 스카이라인과 배치되는 목표 용적률로 인한 일률적인 주동의 높이는 어쩔 수 없는 현실적 아쉬움으로 남는다.

세대 방문을 통한 입주민과의 대화에서도 전체적으로 만족하고 있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기에 다행이었다.

지노하우스

JINO HAUS

- 설계자 : **이기옥**_(주)필립 종합건축사사무소
- 시공자 : **주식회사 예지인 종합건설**
- 건축주 : **손진호**

심사평

판교신도시에 근린생활시설과 주택의 복합 건축으로 카페거리에 연속된 의식 없는 건물 속에서 돋보이는 건축물이다. 좁은 대지임에도 불고하고 전후면 도로를 관통할 수 있도록 배치한 통로는 돋보이는 아이디어다.

Sunken을 이용한 지하 근생도 건축주의 만족도를 높였음직하다. 잘 시공된 노출 콘크리트는 돋보이나 과도한 곡선은 시공성을 떨어뜨려 아쉽다. 특히 내후강판의 곡선이나 미완의 흠결은 옥의 티로 시공과정에서 재료의 특성을 잘 파악해 사용해야 할 부분이다.
또한 주인세대 입구의 툇마루 등 한옥의 개념도입은 돋보이는 아이디어요 미닫이 문을 열면 대공간 창출은 좁은 주거부분의 확장이라는 신선한 발상이며 옥상정원도 잘 정리되었다.
건축주의 만족도 표현은 설계 · 시공과정의 소통을 대변하는 듯하다.

폴라리온 스퀘어 Polarion Square

- 설계자 : **김창길**_삼정환경 건축사사무소
- 시공자 : **세한건설(주)**
- 건축주 : **주식회사 폴라리온**

심사평

손전등을 만드는 회사의 사옥으로서 화성시의 한적한 곳에 위치한 본 건물은 주변에서 눈에 띄는 모습을 지니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두 개의 동이 지붕으로 연결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한 동은 사옥으로 다른 한 동은 유사 기업에 임대하는 개념으로 설계되었다. 캔틸레버를 이용한 과감한 조형의 구현이나 비교적 잘 시공된 노출콘크리트, 내부 공간의 다양한 공간감 구현 등은 요소요소별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는 건축주의 건축에 대한 관심의 결과로 나타난 것으로 보여 좋은 인상을 주었다. 그러나 건축적인 측면에서 전체적인 개념의 부재, 조형의 부조화 등은 아쉬운 부분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글로벌 엔지니어링센터 Global Engineering Center

- 설계자 : **김관중**_(주)삼우 종합건축사사무소
- 시공자 : **삼성엔지니어링(주)**
- 건축주 : **삼성엔지니어링(주)**

※ 시공자 · 건축주 동일인 이므로 시공자만 시상

심사평

삼성엔지니어링의 본사 건물로 기업사옥으로서 필요한 업무와 교육 프로그램이 기능적으로 잘 해결된 수작으로 평가되었다. 홍보관이나 국제회의장 등은 지역사회에도 개방하여 공공성도 강조하고 있다. 커튼 월로 계획되었으나 에너지 저감을 위한 친환경적 기술의 적용으로 그 단점을 해결하고 있다. 세 개의 동으로 구성된 본 건물은 전체적으로 조화롭지 못한 점과 특별히 눈에 띄는 건축적 어휘도 없었음이 아쉬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완성도에서 높은 성취를 이룬 수작임에 심사위원 모두 동의하였다.

소소헌 Sosoheon

- 설계자 : **최삼영**_(주)가와 종합건축사사무소
- 시공자 : **금혜원**
- 건축주 : **금혜원**

※ 시공자 · 건축주 동일인 이므로 건축주만 시상

심사평

갤러리에 부속되어 있는 게스트하우스 개념의 이 건물은 목조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목조주택이라 함은 전통 한옥만을 생각하고 전통적 조립방식만을 길이라 생각하는 통념을 벗어나 서구의 목조 축조방식도 한옥의 전통적 요소들과 결합되어 좋은 건축물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해주고 있는 좋은 사례이다.

2012 한국건축문화대상 준공건축물부문 대한건축사협회장, (주)서울경제신문 사장 공동명의상

인페쏘 Infeso

- 설계자 : **임재용**_건축사사무소 O.C.A
- 시공자 : **(주)이안알앤씨**
- 건축주 : **주식회사 인페쏘**

심사평

주로 철을 이용하는 가구공장의 부속 건물로 사무실과 직원들을 위한 서비스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강력하고 단순한 조형과 잘 시공된 노출콘크리트의 궁합은 매우 성공적으로 평가되었다. 단순한 조형은 주변 경관을 적극적으로 고려한 건축사의 고심의 흔적이었으며 단순한 조형과 이를 성공적으로 구축한 구조적 해결은 비록 공장의 부속 건물로 계획되었으나 건축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건축주와의 호흡은 본 건물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요인임을 충분히 인식하였다.

루프텍처 : 이플러스 그린홈

Rooftecture : e+green home

- 설계자 : **신창훈**_운생동 건축사사무소(주)
- 시공자 : **코오롱글로벌(주)**
- 건축주 : **코오롱글로벌(주)**

※ 시공자 · 건축주 동일인 이므로 시공자만 시상

심사평

본 건축물은 친환경 테크놀로지를 디자인에 적극적으로 접목시키고 있다. 현재 시점에서 이용가능한 모든 친환경적 기술들이 총체적으로 적용됨과 동시에 에너지 손실의 최소화, 태양에너지를 최대한 획득하려는 지붕 경사면의 각도, 수자원을 이용하는 굴곡의 형태, 옥외 테라스 등 패시브한 건축적 접근을 위한 건축사의 조형적 실험이 눈에 띄는 작품으로 평가되었다. 다만 실험주택이라는 점에서 실제 이용자의 삶의 경험이 없는 점이 아쉬웠다.

수원 쉬즈메디 병원 증개축

She's Medi Hospital Remodeling

- 설계자 : **김선현**_디림 건축사사무소
- 시공자 : **씨에이건설 주식회사**
- 건축주 : **이기호**

심사평

기존 창고형 마트를 병원으로 개조하여 기존 병원건물과 연결한 계획이다. 마트의 특성상 높은 천장고, 넓은 스팬 등 기존 건물이 지니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살려 병원의 공간들로 치환한 이 프로젝트야 말로 지속가능한 건축을 향한 건축사의 의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수작이다. 창고형 마트의 부지에 새로운 병원을 신축하려고 그에 적합한 건축사를 찾았던 건축주, 이러한 건축주를 설득하여 리모델링을 권장한 건축사, 이를 흔쾌히 받아들인 건축주 모두 좋은 건축이 만들어지기 위한 필요조건임을 보여주고 있다.

보정성당 Verticality Depth & Light

- 설계자 : **한철수**_(주)종합건축사사무소 시.건축
- 시공자 : **(주)삼일기업공사**
- 건축주 : **(재)천주교 수원교구 유지재단**

심사평

성당건축은 그 역사가 길다. 그 역사는 진화론적이다. 국내의 많은 성당건축들이 유럽에서 시작된 그 긴 역사의 진화론적 흐름에 크게 벗어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보정성당은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시사점을 보여주고 있다. 우선 형태 생성과정에서 성당이 지니고 있는 기본 개념을 유지한 채 기존의 틀을 깨기 위한 건축사의 노력을 엿볼 수 있었다. 더욱 의미 있는 부분은 공간의 구성이다. 물론 이는 건축주의 성당에 대한 새로운 해석에서 나온 프로그램에 기인한 것이다. 1층을 공공을 위해 할애하여 넓은 로비공간과 커피숍 등은 신자가 아니라도 인근 주민이 언제든지 들려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1층의 대부분을 열린 공간으로 만든 것이다. 새로운 프로그램, 새로운 건축적 제안 등은 모든 심사위원이 동감한 부분이다.

제주아트빌라스 Jeju Art Villas

- 설계자 : **승효상**_(주)종합건축사사무소 이로재
- 시공자 : **롯데건설(주)**
- 건축주 : **롯데제주리조트(주)**

심사평

제주 아트 빌라스는 롯데그룹계열사가 만든 소득 계층이 높은 계층을 대상으로 한 콘도미니엄 운영 형태의 빌라촌이다. 무엇보다도 반가운 것은 그동안 상업주의적 경향이 강했던 롯데그룹이 디자인을 중시하여 세계 톱 클래스 수준의 건축사 5명을 초빙하여 여러 평형의 빌라와 커뮤니티 시설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마을은 높은 위치에서 사방으로 시선이 펼쳐진 주변 구릉지의 풍경과 지형을 존중하여 조성되었고 크고 작은 건물들은 건축사들의 개성과 역량이 보이는 섬세한 디테일로 마감되어 높은 수준의 내 외부공간들을 보여주고 있다.
재료 선정에 있어서도 제주에서 얻어지는 자연재료와 노출 콘크리트, 나무 판재와 제주 화산 석재 등이 주로 사용되었으며 따라서 마을을 구성하고 있는 집합 주거의 색채 또한 매우 절제되고 조용하다.
한마디로 경험 많은 베테랑 건축사 집단의 조율이 마스터플랜과 잘 어우러져 신선하면서도 낯익은 풍경을 만들어 내었다. 조화의 영감과도 같이 건축주와 국제 건축사 집단이 서로 교호하여 빚어낸 높은 수준의 빌라촌이 탄생된 것이다.

2012한국건축문화대상 시상식 장면

공로상 시상–박정태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설기술부문 부문장

준공건축물부문 시상

계획건축물부문 시상

2012 한국건축문화대상 준공건축물부문 대한건축사협회장, (주)서울경제신문 사장 공동명의상

영화의 전당 Busan Cinema Center

- 설계자 : **정영균_(주)희림 종합건축사사무소**
- 시공자 : **한진중공업 건설부문**
- 건축주 : **부산광역시**

심사평

영화의 전당은 국제지명공모를 거쳐 오스트리아의 쿠프 힘멜부라우(coop Himelbrau)건축사 그룹이 당선되어 설계한 부산영화제의 중심건물이다. 세계 최장의 캔틸레버 건물로 기네스북에 등재된 영화의 전당은 구조적 형태적 특이성으로 이미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부산의 유명 건축 아이콘이 되었으나 주변 환경과 동떨어져 홀로 존재하는 단절의 문제는 이곳이 일상이 아닌 축제의 장소라는 강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최종 대상 수상작품 선정에서 한걸음 못 미친 요인이 되고 말았다.

서울 추모공원 : 화장시설

Seoul Memorial Park : Crematorium

- 설계자 : **윤세한_(주)해안 종합건축사사무소**
- 시공자 : **(주)한화건설**
- 건축주 : **서울특별시**

심사평

자연이 에워싸고 있는 숲속의 장제장으로 설계된 서울 추모공원의 특징은 진입부 어프로치의 특이성에서부터 시작 된다. 터널을 통해서 이승과 저승의 세계의 경계를 넘나든다는 배치 발상은 매우 높이 평가받아 마땅하며 혐오시설이라는 오명을 씻어버리기에 충분한 시발점이 되었다.

서울추모공원은 오랜 사업 준비기간 동안의 갈등과정의 극복에 높은 평가를 하였고 건축물의 기능과 동선의 합리성 시공의 정교함 등 모든 것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이곳을 찾는 시민들에게 건축공간의 감동을 주는 플러스, 알파를 찾을 수 없는 것이 애매한 흠결로 부각되었다.

문화역 서울 284 Culture Station Seoul 284

- 설계자 : **한종률_(주)삼우 종합건축사사무소**
- 시공자 : **삼부토건(주)**
- 건축주 : **문화체육부**

심사평

서울역은 일제강점기의 시작부터 일제가 들여온 개화기의 근대 양식 건물 중에서도 매우 주목받는 문화재(철도역사)이다.

역 대합실과 부속공간을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는 시도는 매우 좋은 의도에서 비롯된 일이었으나 리노베이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다 철저한 고증과 방법론이 일부 누락된 점이 아쉬웠다. 무엇보다도 내부 재료의 선정과 공간재배치에서 심사위원 모두가 공감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다. 그러나 충실하게 복원된 외관 부분에는 모두 높은 점수를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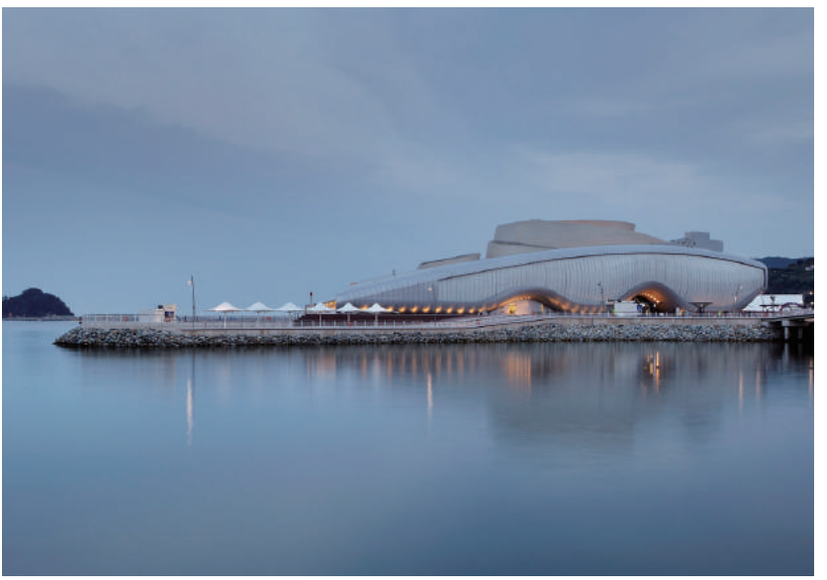
서울대학교 기초사범교육 협력센터

Seoul National University Education Center

- 설계자 : **장기욱**_(주)보이드아키텍트 건축사사무소
- 시공자 : **하이스트종합건설(주)**
- 건축주 : **서울대학교**

심사평

교육시설을 저가입찰이 아닌 설계경기를 통하여 왜 능력 있는 건축사에게 온전히 맡겨야 하는가를 건축공간으로 남김없이 보여주고 있는 매우 중요한 건물이고, 저예산으로 창조한 훌륭한 공간과 분화된 공간들을 이어나가는 순로에서 시선을 달리하는 풍경을 만들어내는 건축사의 능력이 높이 돋보인 수작 중의 하나이다. 건축학도들에게 건축교육 실무 대상 건물로도 쓰일 수 있는 매우 정공법적인 건축 설계 수법을 보여 주고 있는 작품이다.



2012 여수세계박람회 주제관

Theme Pavilion of EXPO 2012 Yeosu, Korea

- 설계자 : **김 혁**_(주)종합건축사사무소 디자인캠프문박디엠피
- 시공자 : **현대건설(주)**
- 건축주 : **재단법인 2012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

심사평

설계경기를 통하여 제안된 탁월한 설계 개념이 충분히 발전되고 승화되지 못한 점이 못내 아쉬운 작품이었다. 승천하지 못한 용이 이무기로 주저앉은 듯 디테일이 쉽게 결정한 외장 재료의 선택이 공들여 만든 내부 공간의 풍부한 표정과 정성을 다한 삼차원 노출콘크리트 시공에 찬물을 끼얹어 놓은 결과가 되고 말았다. 그러나 제한된 시간과 어려운 제약조건 속에도 우수한 시공 결과를 보여준 것은 매우 인상적이었다.

전곡 선사박물관 Jeongok Prehistory Muse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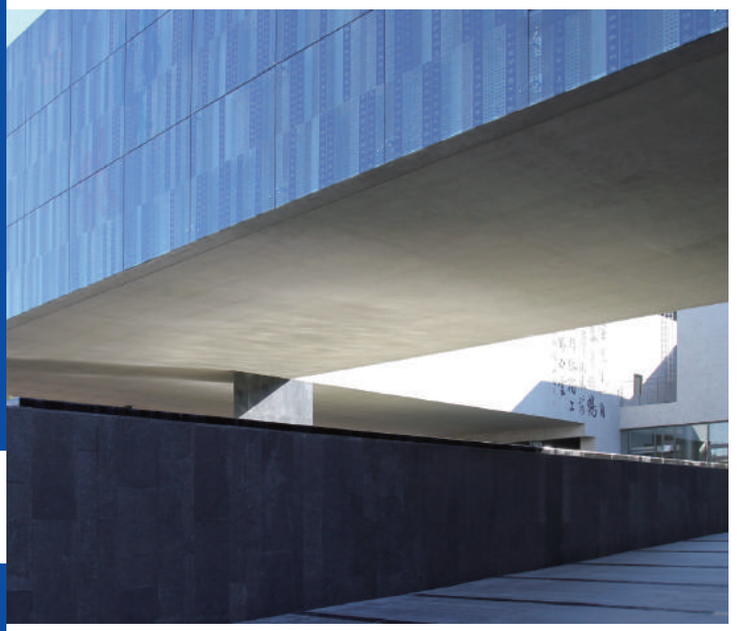
- 설계자 : **홍경식**_(주)서울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 시공자 : **현대건설(주)**
- 건축주 : **(재)경기문화재단**

심사평

국제 설계 경기를 통해 탄생된 전곡선사박물관은 무엇보다도 건축물의 설계뿐만 아니라 전시 형태까지 모두 당선자가 적극적으로 관여한 설계과정과 공사수행과정상 모범이 되는 공공건축물로 탄생되었다는 점을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다.

폴리싱된 곡면에 또 다른 하늘과 들판이 투영되는 전곡선사박물관은 주간에는 구릉지 위에 걸쳐 놓은 UFO같이 보이고 밤에는 먼 옛날 우주로 간 선사시대의 조상들이 지구로 다시 귀환 길에 오른 모습처럼 공상과학에서 상상하는 착륙한 우주선처럼 보이는, 먼 과거와 먼 미래를 상상 속에서 연계시키게 되는 독창성이 뛰어난 공공건축임이 틀림없다.

2012 한국건축문화대상 준공건축물부문 대한건축사협회장, (주)서울경제신문 사장 공동명의상



여초 김응현 서예관

Yeocho KimEungHyun Calligraphy Museoum

- 설계자 : **이성관_(주)건축사사무소 한울건축**
- 시공자 : **전진종합건설(주)**
- 건축주 : **인제군청**

심사평

필자 개인적으로는 건축적 완성도가 가장 높고 유기적인 주변 풍경과 대비되는 기하학적 방법론을 엄격하게 사용하였지만 오히려 주변 풍경을 더욱 고양시키는 결과를 가져온 수작으로 일찌감치 대상 후보작으로 염두에 두고 있었다. 그러나 내부의 전시계획이 완성되어 있지 않은 점과 전시 디자인이 전곡 선사박물관과 달리 건축사의 의지와 동떨어져 발주계획되고 있는 점이 아쉽게 느껴지는 대목이었다.
그러나 입구에서부터 호흡이 가빠지고 수변 공간의 적막함이 마음속 깊이 잔물결을 일렁이게 하는 건축은 이 시대에 그리 흔치 않다.

한성백제박물관 Seoul Baekje Museum

- 설계자 : **김용미_(주)금성 종합건축사사무소**
- 시공자 : **(주)포스코건설**
- 건축주 : **서울특별시**

심사평

원지형을 잘 기억해내고 건축물로 지형을 복원하려는 무모하고도 기나긴 실현 과정을 감내하는 (공공건축과정에서 거의 실현 불가능한 천형(天刑)을 묵묵히 감수하는) 건축사는 요즘 세상에서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 있다면 거의 천연기념물처럼 희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성백제박물관을 설계한 건축사는 오랜 기간 동안 끊임없이 관의 문을 두드리며 호소하기도 하고 예산이 추가되지 않으면 몸으로 때우는 재능 봉사를 한 끝에 그 꿈을 일부나마 이루었다.
무엇보다도 한성 백제 몽촌토성에 비해 존재감이 거의 보이지 않는 새로운 박물관은 역사적 가치가 높은 주위 환경을 최우선으로 존중하려는 고귀한 의지의 산물이다.

수지문화복지타운

Suji Culture and Welfare Town

- 설계자 : **이상림_(주)공간 종합건축사사무소**
- 시공자 : **삼성물산(주)**
- 건축주 : **용인시청**

심사평

경기도 수지에 세워진 공공청사를 기능적으로만 풀어내고 외관은 빼어나지 않게 수수한 회색 옷차림새로 나서게 한 것이 요즈음같이 튀려고만 하는 풍토에서 얼마나 대견하고 다행한 일인가. 수지 구청과 문화 복지 타운은 천편일률적인 동일 외장석재로 마감한 공공건축의 보기 드문 예이나 적어도 서울 시청보다는 훨씬 친근하다. 실망스러운 구석이 있다면 여전히 내부 공간은 옛 관행적 모습에서 별로 달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심사총평 – 준공건축물부문

한국건축문화대상이 올해로 청년기에 들어섰다.
시행 첫 해와 그 다음해 주택작품으로 연속 본상을 수상한 필자로서는 청년기를 맞이한 건축문화대상 심사에 특별한 감회가 있다. 이번 심사에 같이 참여한 서울경제신문사의 권구찬 논설위원(시행 첫해 당시 취재기자로 활동한) 역시 감회가 깊을 것이다. 필자를 비롯한 심사위원 모두는 21회 한국건축문화대상 준공 건축물 부분 현장실사에 임하면서 청년기를 맞은 한국건축문화에 가장 역점을 두고 살펴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서로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무엇보다도 준공건축물의 완성도가 뛰어나야 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작품 선정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척도이나 작금의 공공분야 건축물에서 작품의 혼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섬세하고 창의적인 디테일 디자인이 사라져가고 있는 현상을 안타까워하면서 이러한 현상들을 심사를 통하여 준열하게 지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즉 높이 공중으로 날아오른 새의 눈높이(bird's eye view)에서 그린 조감도만으로 발주처의 행정관과 시민들에게 가상의 드림플랜을 보여주고 정작 시행단계(실시설계)에서는 어떠한 피드백이나 디테일설계에 대한 발전과 연구 없이 천편일률적으로, 속도전으로 밀어 붙이거나 실시설계 하청과 같은 경제 논리만으로 설계를 진행시키는 작금의 대형공공건축설계의 위험성을 개선해야 될 시점에 와있다는 것에 모두 공감하였기 때문이다.
지난 봄 미국의 저명 건축사 중 한사람인 스티븐 홀(steven Hall)이 국내 유력지와의 회견에서 한국건축 특히 설계경기를 포함한 공공건축의 공간품질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나타낸다고 말한 바 있다. 특히 실망한 점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고 있는 형해뿐인 건축공간과 섬세한 디테일이 없는 건축물–영혼이 없는 건축과도 같은–에 기인한다고 갈파하였는데 그의 뼈아픈 지적은 우리 공공 건축의 실상을 단도직입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우리 건축인들의 마음을 무겁게 한 바 있다.
두 번째로 심사위원단 모두는 사회 공공건축부분을 평가함에 있어 공공건축이 기존의 이웃환경과 얼마나 상호 교감하고 서로를 존중하느냐를 살펴보았다.
오래된 역사 도시 속에 들어서거나 삽입되는 새로운 건축행위 속에서 그 장소와 터, 역사 도시 속에서 복합적으로 형성된 시간의 켜를 존중하면서 새로운 것을 부가시키는 모습에 주안점을 두고 평가하였고 자연 상태 또는 농어촌 지역에서도 자연 또는 지역성과의 조화, 즉 총체적(holistic)풍경의 통합성과 도시풍경의 지속가능한(Sustainability) 품위 유지를 공간과 시간을 통시적으로 살펴보았다.
심사위원들의 세 번째 주안점은 프로젝트의 진행 과정에서 건축사와 기획자, 발주처와 시행사 모두가 얼마나 진지하고 끈기 있게 주어진 문제를 풀어나갔는가 하는 과정 중시형의 평가를 한 것이다. 사업기간 중에 발생하는 어려운 돌발변수들을 조정하거나 통제해 나가면서 공공성이라는 주제를 일관성 있게 구현해나갔느냐를 살펴 본 것이다.
할여된 예산이 크든 작든, 프로젝트 규모의 크기에 상관없이,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포풀리즘과 지명도에 구애받지 않고 공공건축의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성실한 태도로 참여한 모든 관계자들의 열정과 희생을 무릅쓴 노력이 점철된 건축의 전 과정을 심사위원들은 높이 평가하였다.
이상의 관점에서 사회 공공부문의 우수상 이상의 후보작들이 선정되었는데, 모두 수준 이상의 훌륭한 건축물들이어서 실사 첫날부터 마치는 날까지 우열을 가리기가 쉽지 않았다.
그중에서도 강원도 인제군에 위치한 여초 김응현 서예관과 부산시 영화의 전당, 경기도 전곡 선사박물관 등은 우수한 작가의 역량을 유감없이 보여준 작품성이 대단히 빼어난 건축물이라는 평가를 먼저 받았다.
한성 백제박물관과 서울대학교 기초사범교육협력센터는 설계 경기의 결과로 지어진 것이기는 하나 작가의 뛰어난 발상과 헌신적 노력으로 자칫 진부한 결과를 초래하기 쉬운 공공의 발주방식에 작가의 헌신과 성의를 다하여 높은 수준의 건축 공간으로 만들어 낸 수작으로 심사위원 모두에게 좋은 인상과 감동을 남겼다.
두 작품 모두 까다로운 지형에 대한 섬세한 배치와 접근방법(approach)은 작가들의 치열한 연구와 검토 없이는 불가능한 일로 파악되었다.
수없는 지역주민들의 반대를 모두 불식시키고 오히려 그 땅의 가치를 승격시킨 서울 추모 공원(화장시설)은 우리 사회가 이미 발 들여놓은 극심한 이기주의와 팽배한 혐오시설에 대한 고정된 인식을 단숨에 바꾸어놓기 충분할 만큼 건축주(서울시와 서초구)의 의지와 건축사의 수준 높은 해법이 공동으로 성취를 이루어낸 작품으로 심사위원들의 기억에 깊이 각인 되었다.

심사위원장 **류 춘 수**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이공 대표

계획건축물부문

행사일정

▶ 작품공모공고 : 2012. 3.2 ~ 6.3.
▶ 참가신청(인터넷 신청) : 5.30 ~ 6.3 (kaa.kira.or.kr)
▶ 접수 :
  • 1차 작품접수 : 2011. 6. 4 ~ 6. 5
  • 2차 패널 및 모형접수 : 7. 17
▶ 심사 :
  • 1차 작품계획안 심사 : 6.12
  • 2차 패널 및 모형심사 : 7.18
  • 3차 작품설명 프레젠테이션 심사: 7.20
▶ 시상식 : 10. 23 10:00 / 코엑스 3층 C홀
▶ 수상작 전시 : 10. 23 ~ 26 / 장소: 코엑스 3층 C홀

응모작품 및 자격

▶ 응모작품 : 제시된 주제를 적용한 미발표 창작 작품
▶ 작품주제 : "화이부동 (和而不同) – Symbiotic Diversity"

심사

가. 심사방법 : 패널 및 모형 심사
나. 심사위원 :
손기찬 건축사사무소 동이 대표_심사위원장
김호준 (주)아도스 건축사사무소 대표
신춘규 씨지에스 건축사사무소 대표
유대근 (주)유용준 건축사사무소 대표
이재림 (주)지담 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시상내용

▶ 대상(1점) : 상금 500만원, 국토해양부장관상, 해외건축탐방
▶ 우수상(5점) : 상금 200만원,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상, 해외건축탐방
▶ 특 선(6점) : 상금 100만원,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상
▶ 입 선(20점 내외) : 상금 30만원,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상
※ 우수상 이상 수상자(대학 재학생에 한함)중 영어 인터뷰 심사를 거쳐 ARCASIA 학생잼버리대회 파견 특전

대상

• 시간의 흔적을 담다

우수상

• 피맛골 ; 세상을 잇다
• Auto Convergence
• 유쾌한 개성의 공생을 꿈꾸다
• 문래예술공단
• 공존, 또 하나의 어울림 ; 작은 지구촌 원곡동 이야기

특선

• 구 음식물자원화시설의 리노베이션을 통한사회적 소통 제안
• 고가도로 놀이터
• 死각형 아파트를 生각한 커뮤니티
• 경계를 허물다
• 삶의 풍경, 공동의 풍경, 도시의 풍경
• 共繁 (공번) –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공생 계획안

입선

• 안양 유유산업부지(안양사터)의 보전과 보존을 통한 복합문화공간 계획안
• 대비를 통한 공존_도시와 자연의 경계에서 공존하기
• 公.工.共 園(공.공.공 원)
• 남산과 옹벽사이
• 스폰지는 물을 흡수한다
• 틈의 재인(再認)
• 정체성을 찾다
• 그럼에도 계속 되는 이야기
• 흔적의 재구성
• 탑동양관, 시대를 품다
• 마을에 마을을 얹다
• 도심 내 설 곳을 잃어가는 industry zone에 대한 인식재고와 활용 대안 제시
• 자연과 예술문화를 바탕으로 한 세대 간의 융합
• 골목길 내 전통주거와 화하다
• 잃어버린 이웃과 조우하다

시간의 흔적을 담다

이태호, 손종호, 이필석
한양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작품설명 요약

이 지역은 과거 개항기 때 인천항 제1부두에 인접하고 바로 앞으로 철도길이 지나가던 자리이다. 위치적 특징에 맞게 초기에는 정미소를 통해 쌀을 수출했으며 이후에는 인천세관창고가 자리 잡아 수입품들을 보관하던 곳이다.

인천항이 매립을 통해 부두를 확장함에 따라 인천세관창고의 기능을 잃고 가구제조공장으로 쓰이다 현재 물류창고로 쓰이고 있다. 그 사이 주거지가 사이트 주변으로 사이트 역시 개발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현재 정미소 때 쓰이던 굴뚝을 비롯해 6동의 창고가 남아있으며 일부 창고의 벽면을 이루던 벽체가 남아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DESIGN PROC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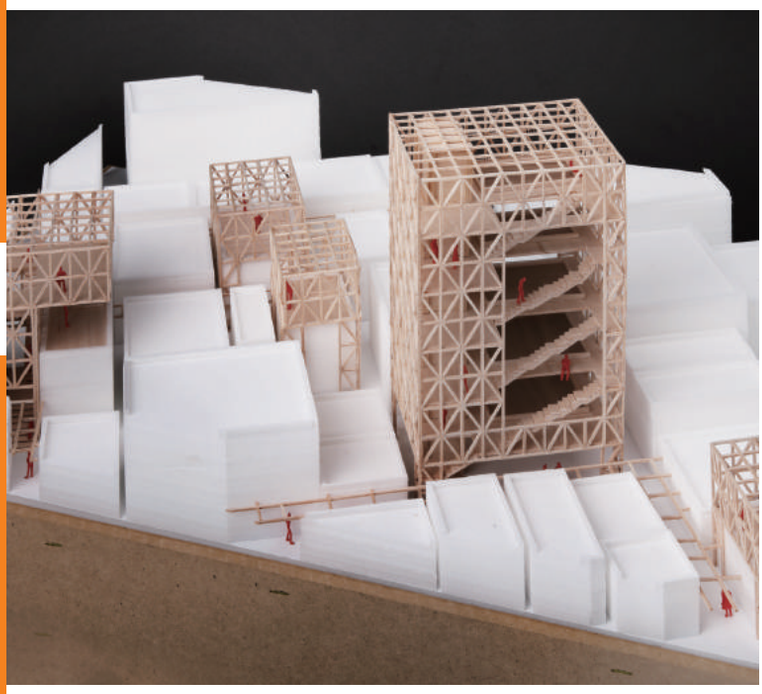
중첩 _ 창고가 가진 벽돌식 구조벽과 목재트러스는 최대한 보전하며 새로운 Mass와의 중첩을 통해 공간을 분할하고 Program을 부여한다.

반전 _ Program에 따라 창고의 내부가 중정이 되어 외부로 노출될 수 있고, 외부와 면해있던 외벽이 내부공간을 이루는 내벽의 역할을 한다.

연결 _ 인천의 정체성을 가진 컨테이너 박스를 통해 사이트 내 모든 Program을 연결하는 축을 만든다.

피맛골 ; 세상을 잇다

홍승우_수원대학교 건축공학과



Auto Converge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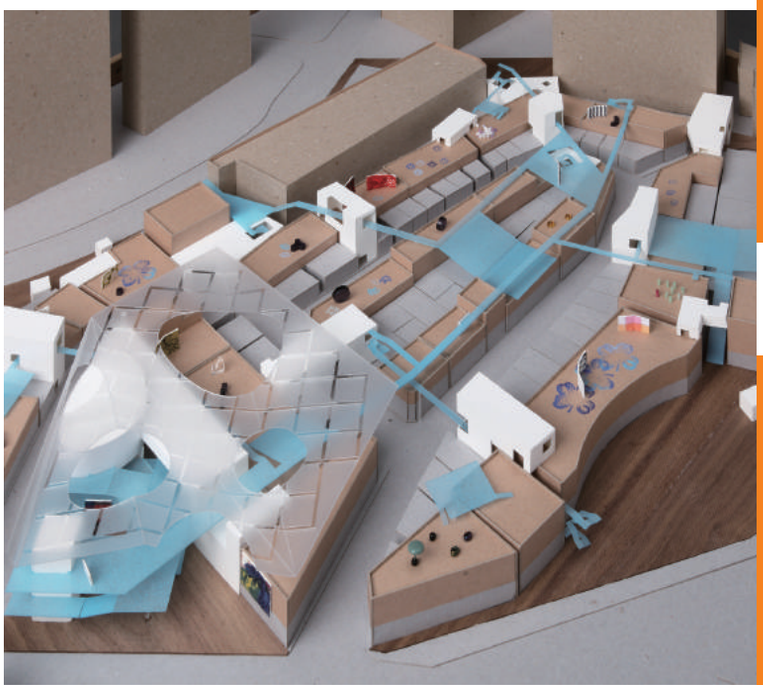
최지훈, 김웅, 문주원_홍익대학교 건축공학부

유쾌한 개성의 공생을 꿈꾸다

최호근, 김영준_홍익대학교 건축공학부 건축학전공

문래예술공단

이진경, 기세호_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건축학전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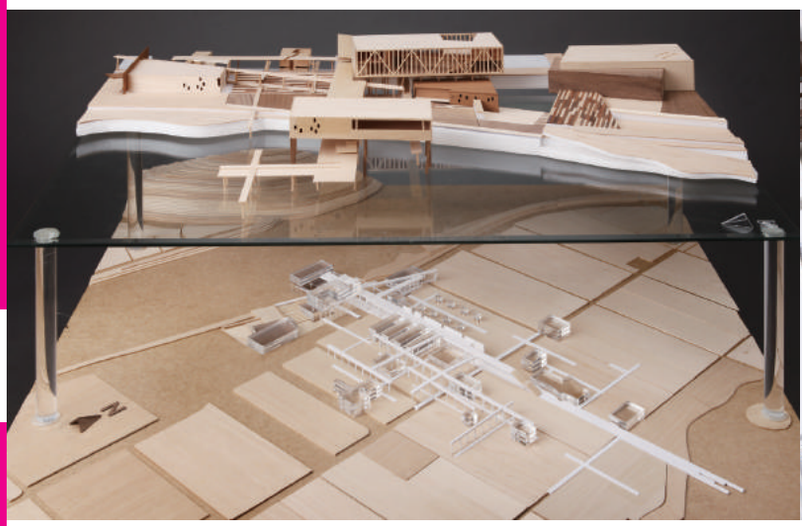
2012 한국건축문화대상 계획건축물부문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상

공존, 또 하나의 어울림 ; 작은 지구촌 원곡동 이야기

진익주_한밭대학교 건축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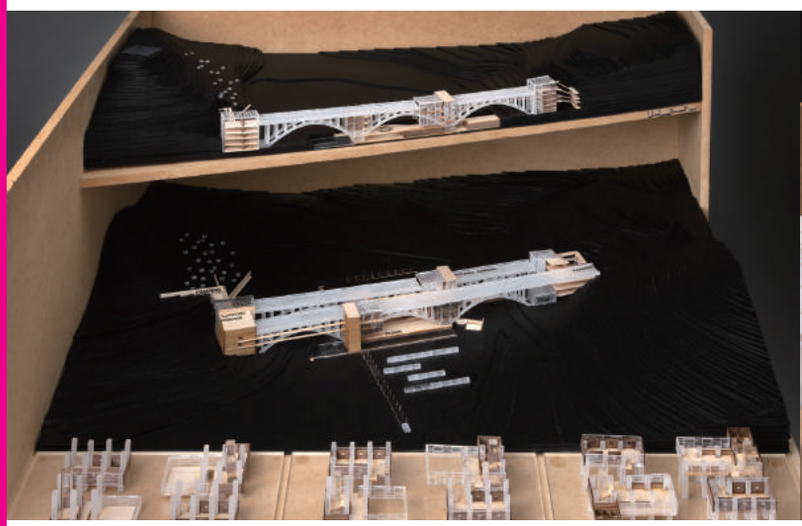
구 음식물자원화시설의 리노베이션을 통한 사회적 소통 제안

최병원, 정판기, 송지연_울산대학교 건축학과



고가도로 놀이터

박청석_충북대학교 건축학과



死각형 아파트를 生각한 커뮤니티

손인빈, 윤석민_청주대학교 건축학과

共繁 (공번) –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공생 계획안

김형일, 이광호, 박소영_강원대학교 건축학과

경계를 허물다

박성준, 이현욱, 함민영_서원대학교 건축학과

삶의 풍경, 공동의 풍경, 도시의 풍경

김태용, 신지훈_명지대학교 건축학과

안양 유유산업부지(안양사터)의 보전과 보존을 통한 복합문화공간계획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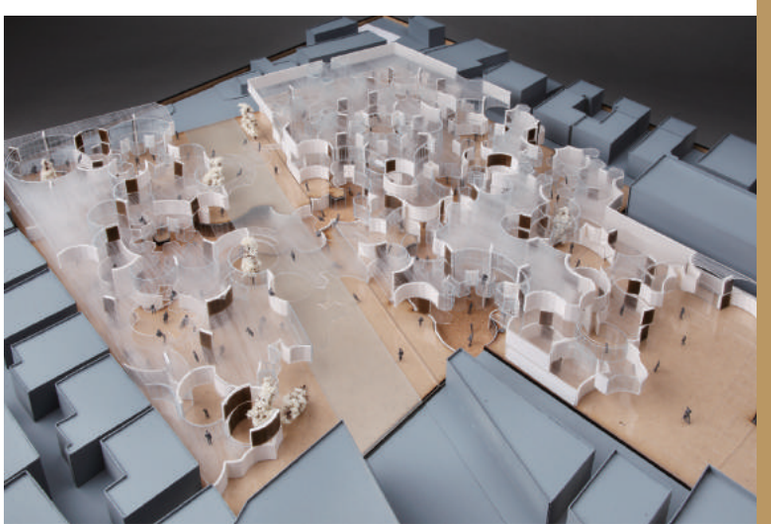
오종화, 한고은, 위대한_가천대학교 건축학과

公.工.共 園(공.공.공 원)

백동일_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과

스폰지는 물을 흡수한다

한상옥_단국대학교 건축학과



대비를 통한 공존_도시와 자연의 경계에서 공존하기

이성호_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과

정체성을 찾다

김현준, 진미연, 박한글_한밭대학교 건축학과

남산과 옹벽사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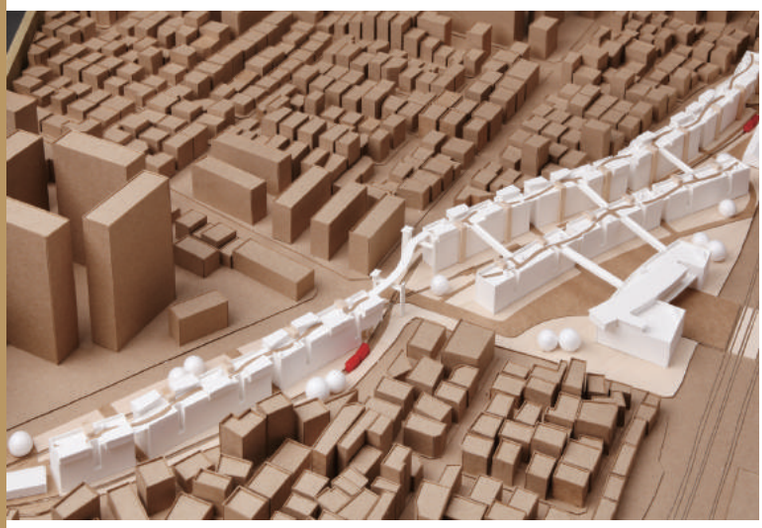
김상길_홍익대학교 건축학과

흔적의 재구성

안영욱, 박경원, 허재필_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건축설계

틈의 재인(再認)

원종현, 임경아_인하공업전문대학 건축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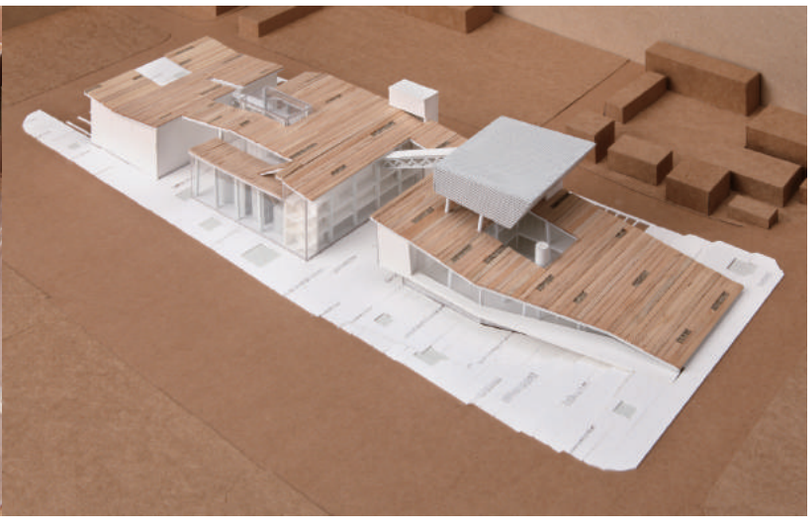


마을에 마을을 얹다

허길남, 김성진, 윤하림_청주대학교 건축학과

도심 내 설 곳을 잃어가는 industry zone에 대한 인식재고와 활용 대안 제시

문성준, 유승학, 오유종_제주대학교 건축학전공



자연과 예술문화를 바탕으로 한 세대 간의 융합

변재성, 한준희, 안재현_중앙대학교 건축학부

그럼에도 계속 되는 이야기

정종대_목원대학교 건축학과

골목길 내 전통주거와 화하다

이경수, 차수정_청주대학교 건축학과

탑동양관, 시대를 품다

이재연_청주대학교 건축학과

잃어버린 이웃과 조우하다

신성일, 백다슬, 최다은_한밭대학교 건축학과

심사총평 – 계획건축물부문

올해의 계획건축물부문 작품 주제로서 제시된「화이부동和而不同」이라는 테마는 오늘날까지의 빠른 성장은 이제 다양한 사회적 요구와 함께 양극화 문제가 처한 현실만큼이나 난제임에도, 예년보다 작품수가 줄어들긴 했지만 총 386점이 출품되어 1차 심사할 수 있었던 것은 어려운 제약 조건에도 불구하고 공모자들의 열정이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다. 물론「화이부동」이라는 주제에 대한 구체적 해법을 놓고, 심사에 들어가 2차 심사대상을 선정할 때, 경계지점의 절묘한 부지 선정과 주제의 대상은 쉽게 접근할 수 있었지만,「화이부동」이라는 주제를 건축디자인 대상으로서만 보는 인식이 눈을 흐리게 하였고, 여전히 개념에서 껑충 뛰어 넘어 시각으로 이어지는 비약이나, 아이디어 이전에 행동으로 나서는 소모적인 무모한 도전은 주제 선정의 고심만큼이나 심사위원들을 안타깝게 하였다. 그래서 1차 심사에서의 아쉬운 점과 함께, 2차 심사에서는 자유롭게 주제를 발전시킬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1차 심사에서 선정된 36작품은, 심사위원들의 바람만큼이나 대부분 1차 제출 패널과는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패널 확장에 그친 작품들이어서 2차 심사에서는 입선 작품 이상을 쉽게 선정할 수 있었다. 그중 일부는 주제를 벗어나거나, 주제의 해법보다 건축 조형적 제안에 탐닉한 몇몇 작품은 화려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였기에 쉽게 배제할 수 있었다.

상상력의 빈곤 속에 물량적인 공세로 표현의 수단(도구의 발달로 안정되고 평준화된)을 답습하는데 그친다면, 계획공모전이 갖는 자유로운 창의적인 기회는 쉽게 흘려보내게 되는 것이다. 이는 작금의 건축계와 현상공모전의 아바타Avatar현상을 접하는 것 같아 놀라움과 건축계의 성찰이 요청돼야 할 것이다.(한국 건축계의 미래를 짊어 질 진취적 젊은 건축학도들의 실험의 장이라는 의미를 부여한다면) 이는 대부분의 작품들이 주제의 대상이 주변적 해석 없이 독립된 프로그램의 대항으로서 존재하고, 관계로서의 장소로서 풀어 나가지 못하고 가시적 형식만 수용함으로 보여진다. 실제 부지의 해석 또한 주변과의 관계 설정보다 탐미적 아일랜드Ireland를 그려내고 있다. 이러한 철학의 빈곤은 미적 풍성함 만으로 보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양한 사회적 요구와 양극화의 대항사이에 걸려있는 긴장된 관계가 제대로 이해될 때, 우리는 다양한 공존의 건축적 의미와 가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차 심사에서 선정된 27작품 중, 우선 특선이상의 12작품을 프레젠테이션 심사대상 작품으로 선정하였다. 3차의 최종심사에서는 선정된 12작품 중에서 특선 6작품을 선정해 놓고, 대상 한 점을 우수상과의, 특별히 작품의 우열을 가릴 만큼 월등한 점을 발견하기 쉽지 않다는 의견에 심사위원들이 공감하였다. 대상 없이 결정하자는 견해도 깊이 제기되었으나, 결국 고심 끝에 우열의 의미보다 수상대상 선정으로서의 의미로 대상을 선정하게 된 아쉬움이 남는 심사였다.

물론「화이부동」의 해법이 단순히 물리적 공간을 매개로 형성되거나 재구성의 지리적 배치가 아닌 그 이상의 사회적 함의(含意)를 갖고 있기에, 주어진 해답은 없지만 실질적인 우리 사회의 다양한 삶과 유기적 연관성을 갖고, 상호 작용 속에서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는 리얼리티에 대한 실험정신의 기대가 아쉬움으로 남는다. 매년 관성에 의한 일률적인 공모방식에서 보다 독창적인 공모방식 제안은 한국건축문화대상이라는, 범 건축계의 상이라는 연속성 문제와 함께 보다 발전전인 논의도 선행되어야 할 과제일 것이다. 당연히, 제한된 주제의 난제와 공모기간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수상자와 참여한 공모자 모두의 열정과 노고에 찬사를 보낸다.

심사위원장 **손 기 찬** 건축사사무소 동이 대표

혜화동 어반엑스 사옥
URBAN EX BUILDING

건축주 | 오섬훈

설계자 | 오섬훈_KIRA | (주)건축사사무소 어반엑스

- 설계팀 : 김경남, 김선화, 김진영, 김유나
- 전문기술협력
  - 구조분야 : 단구조
  - 전기 · 통신설비분야(소방포함) : 공간 ENG
  - 기계설비분야(소방포함) : 상지 ENC
  - 토목분야 : 세한 ENC

감리자 | 오섬훈

시공사 | 푸른가람

대지위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혜화동 73-6번지

주요용도 | 제2종 근린생활시설(지하 1~지상 2) / 다가구주택(지상 3~5)

대지면적(Site Area) | 136.70㎡

건축면적(Building Area) | 81.72㎡

연면적(Gross Floor Area) | 319.48㎡

건폐율(Building to Land Ratio) | 59.78%

용적률(Floor Area Ratio) | 183.45%

규모(Building Scope) | B1 - 5F

구조 | 철근콘크리트 구조

주요마감재 | 외부마감_ 노출콘크리트, THK0.7 티타늄아연판(징크), THK22 투명복층유리
내부마감_ THK10 폴리카보네이트, THK6.5 자작나무합판, THK9.5 석고보드

설계기간 | 2010. 12 ~ 2011. 01(기획) / 2011. 01 ~ 2011. 03(계획)
2011. 03 ~ 2011. 05(실시)

공사기간 | 2011. 04 ~ 2012. 03

사진(Photographer) | Park, Yeong-chae

Client | Oh, Seom-hoon

Architect | Oh, Seom-hoon

Project team | Kim, Kyeong-nam / Kim, Seon-hwa / Kim, Jin-yeong / Kim, Yu-na

General Constractor | Blue gar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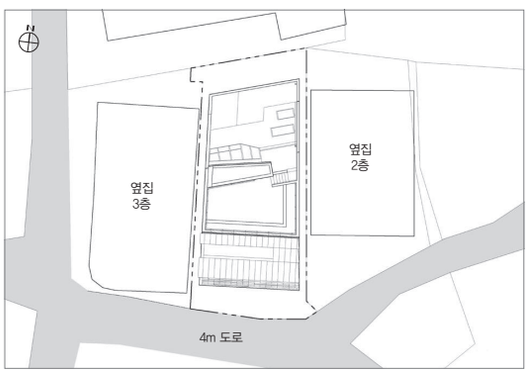
Location | 73-6, Hyehwa-dong, Jongno-gu, Seoul, Korea

Structure | R.C

Structural Engineer | DAHN Engineers & Consultants

Design period | 2010. 12 ~ 2011. 05

Construction period | 2011. 04 ~ 2012. 03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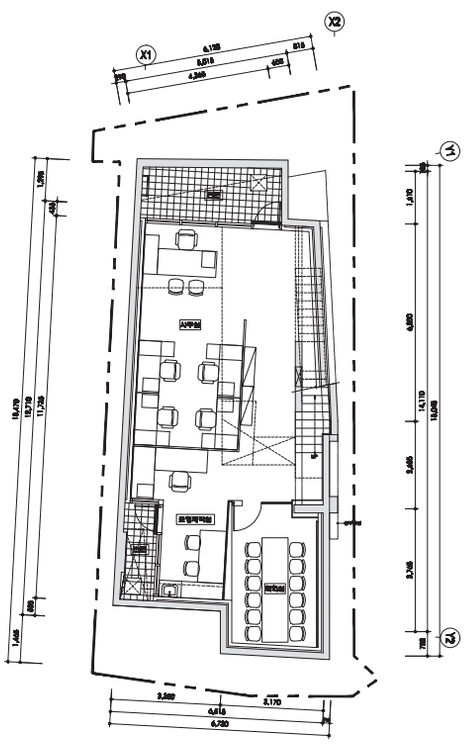
혜화동 작은 골목길에 면해서 양 옆집 사이에 꽉 끼여있는 작은 대지에 설계사무실과 살림집을 자의반 타의반 지어야했다. 속칭 상가주택으로 작업과 숙식을 동시에 해결하는 아지트를 만드는 일이 녹녹치 않았다. 주변의 민원은 고사하고도 작은 땅에서 많은 면적을 찾으려는 건축주의 마음과 건축적 성과와 제스쳐를 남기려는 건축사의 마음이 충돌하고 타협하여 태어났기 때문이다. 공간흐름의 매개체로서 계단을 중심으로 여러 장치들이 적절히 엮여져 인상적인 장소들이 되길 바랬다.

도시에서 공간연결 매개체로서 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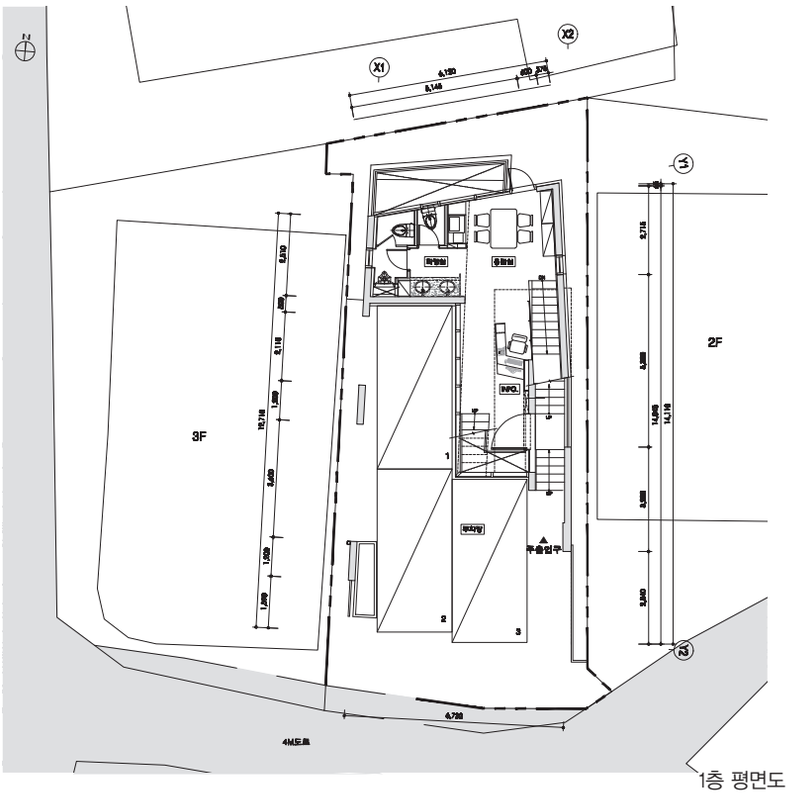
① 건물 집입구에서부터 시작, 골목길에 작은 쉼터로서 계단의 시작을 알림.
② 계단의 반투명 면으로서 빛의 흔적과 투과 및 2층 사무실 공간을 관통하는 공간 형성.
③ 계단-사무실-외부 골목길에 이르는 공간적, 시각적 소통감 형성.
④ 주택에 이르러 내부화되는 계단과 스킵플로의 연속이 옥상에 이르기까지 자연스레 연결.
⑤ OPEN된 공간과 미로같은 공간의 반복과 연속으로 다양한 공간감의 계단 매개체 형성.
⑥ 노출콘크리트, 자작나무 합판, 반투명 폴리카보네이트(단파론)로 반복, 변주되는 계단면의 물성과 특징으로 계단 매개체를 형성.

기존 대지의Context가 가지는 재료의 패턴, 색상, 속성등을 파악한바, 재료자체가 주는 솔직한 물성(기와집, 벽체의 기둥, 돌등)을 바탕으로 콘크리트노출, 짙은 색의 티타늄 아연판을 사용하였으며, 좁은땅이 가지는 불리한 여건에 대응하여 Compact한 공간을 계획하고 그 안에서도 획일적이지 않은 다양한 공간을 부여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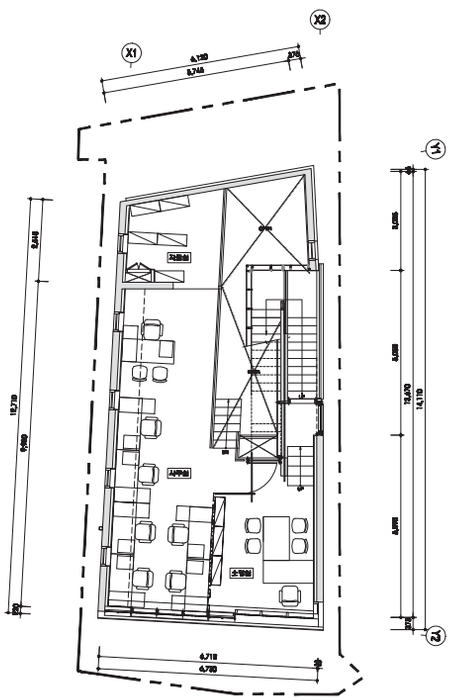
스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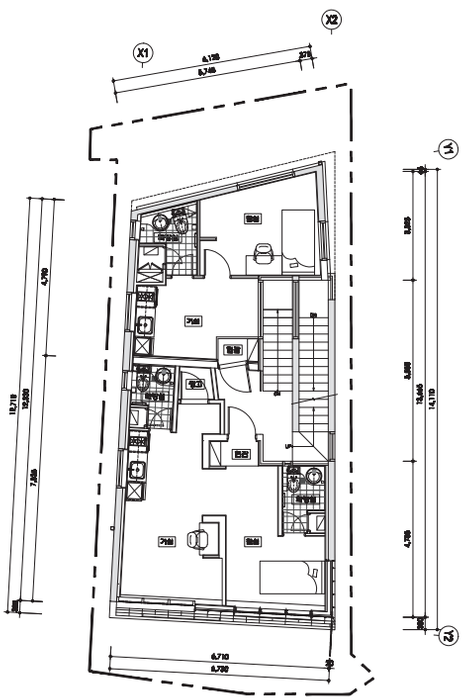
지하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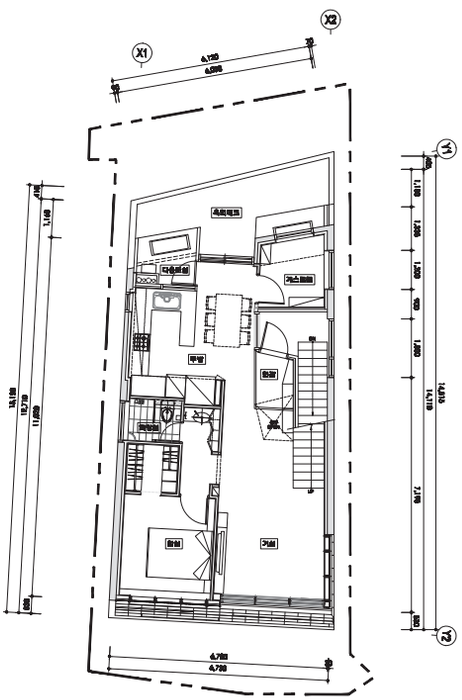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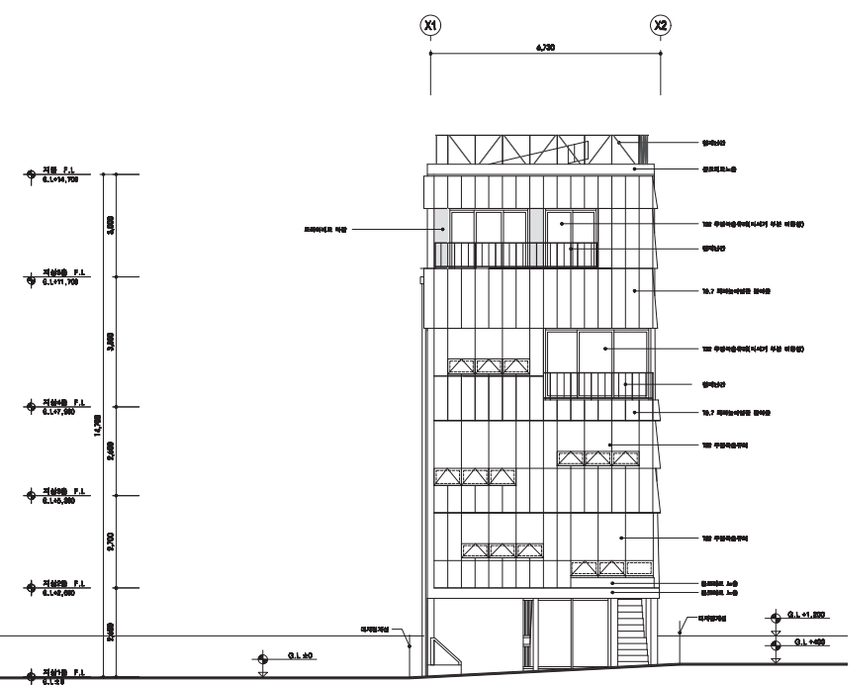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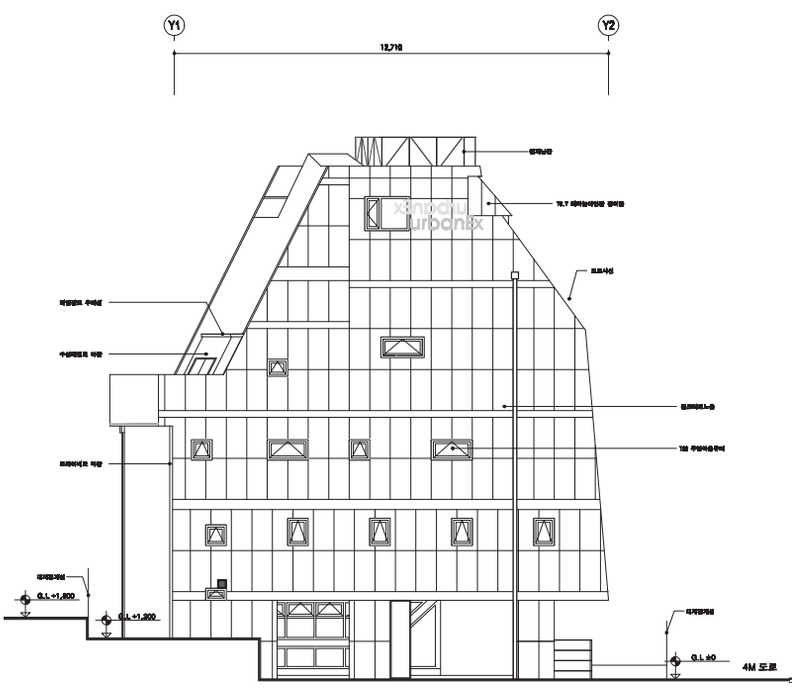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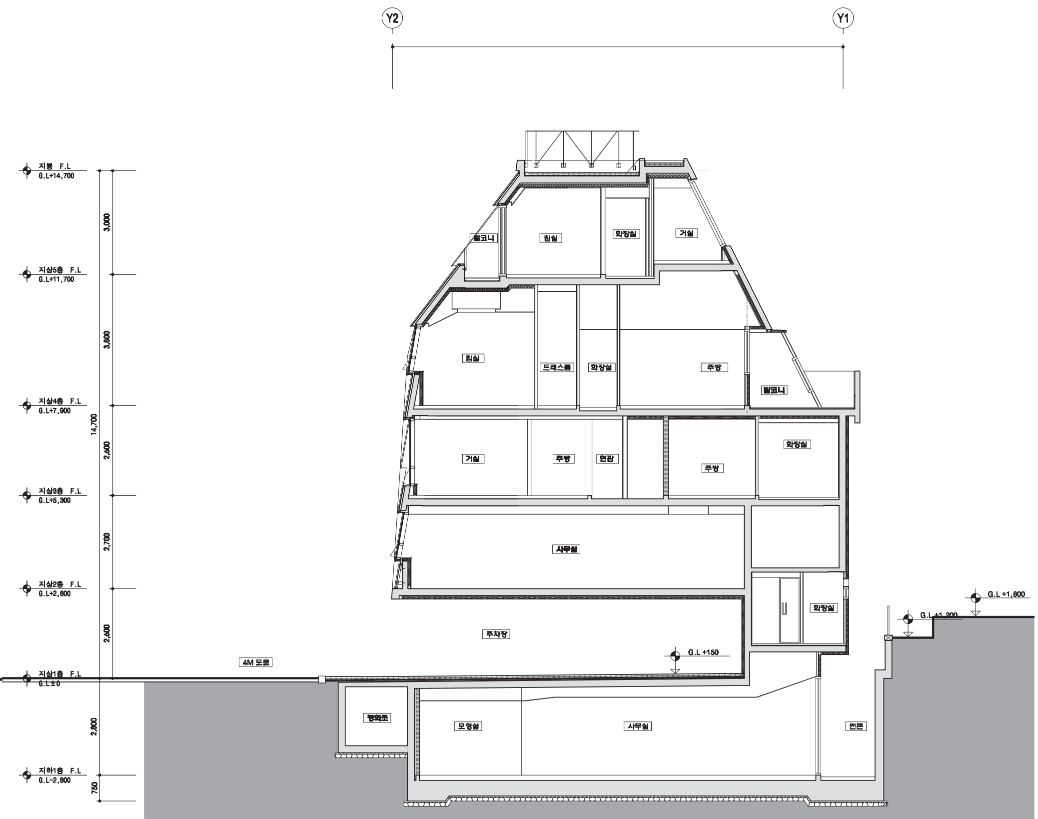
4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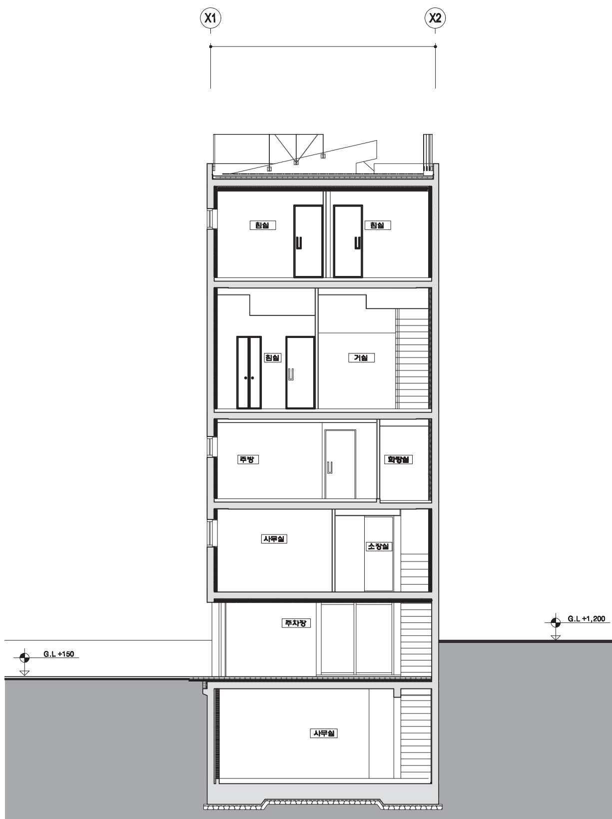
남측면도



서측면도



종단면도



횡단면도

구립 신사 어린이집
GANGNAM SINSA NURSERY

건축주 | 강남구청

설계자 | 조민석_KIRA | 단아 건축사사무소

- 설계팀 : 권은보, 최진협
- 전문기술협력
  - 구조분야 : 다우구조
  - 전기 · 통신설비분야(소방포함) : 동도MEC
  - 기계설비분야(소방포함) : 동도MEC
  - 토목분야 : 바이텍코리아

감리자 | (주)삼우공간 건축사사무소

시공사 | 서일건설/구민종합건설(주)

대지위치 |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43-5,6

대지면적(Site Area) | 659.30㎡

건축면적(Building Area) | 394.37㎡

연면적(Gross Floor Area) | 1,645.39㎡

건폐율(Building to Land Ratio) | 59.82%

용적률(Floor Area Ratio) | 184.97%

규모(Building Scope) | B1 – 4F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주요마감재 | THK0.7 티타늄 징크, THK24 투명복층유리
고밀도세라믹패널, 외단열마감(스톤뿜칠)

설계기간 | 2009. 10 ~ 2010. 02

공사기간 | 2010. 06 ~ 2011. 11

Client |GANGNAM CITY HALL

Architect | Cho, Min-seok

Project team | Kwon, Eun-bo / Choi, Jin-hyeok

General Constractor | Seoil construction / Kumin construction

Location | 543-56, Sinsa-dong, Gangnam-gu, Seoul, Korea

Structure | R.C

Structural Engineer | Dawoo struc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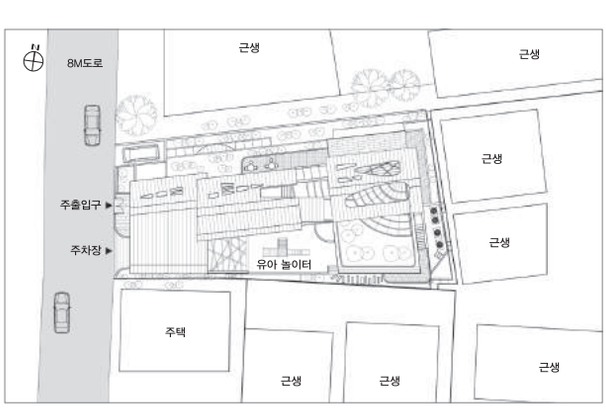
HVAC Engineer | Dong-do MEC

Electrical Engineer | Dong-do MEC

Finishing Materials | THK 0.7 titanium Zinc , Low-E glass
high-density ceramic tile , External insulation system

Design period | 2009. 10 ~ 2010. 02

Construction period | 2010. 06 ~ 2011. 11



배치도

구립 신사 어린이집
구립 신사 어린이집
SECOM
P 주차장

구립 신사 어린이집
구립 신사어린이집
5AD 9864

아이들의 둥지

아이들에게는 꿈이 있다
저마다 각기 다른 아름다운 꿈
마음 깊숙한 곳 보물과 같은 소중한 꿈
어미새가 알을 소중히 품듯
어린이들은 꿈을 품는다
아기새가 알을 깨고 창공을 향해 날개짓을 하듯
어린이들은 가슴에 꿈을 품고 상상의 세계로 날아 오른다
어린이들의 꿈을 소중히 간직하는 둥지
그 둥지가 지금 여기 어린이집에서 펼쳐진다

이야기가 있는 생명체

현관은 이야기의 제목이며 계단은 발단에 해당된다. 계단은 점진적인 시각의 변화를 가져오고 공간너머로 호기심을 던진다.
현관에서 복도로 전환되며 외부공간으로 확장되어 이야기를 전달한다.
끝없는 이야기는 계절에 따라 다른 이야기로 연속되고 변화하여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치를 지니게 된다. 신사어린이집은 매일 매일 이야기를 들려주는 아이들의 놀이터이며 아이들과 서로 이야기를 주고 받으며 성장과 변화를 거듭하는 생명체이다.

자연을 닮은 아이들의 상상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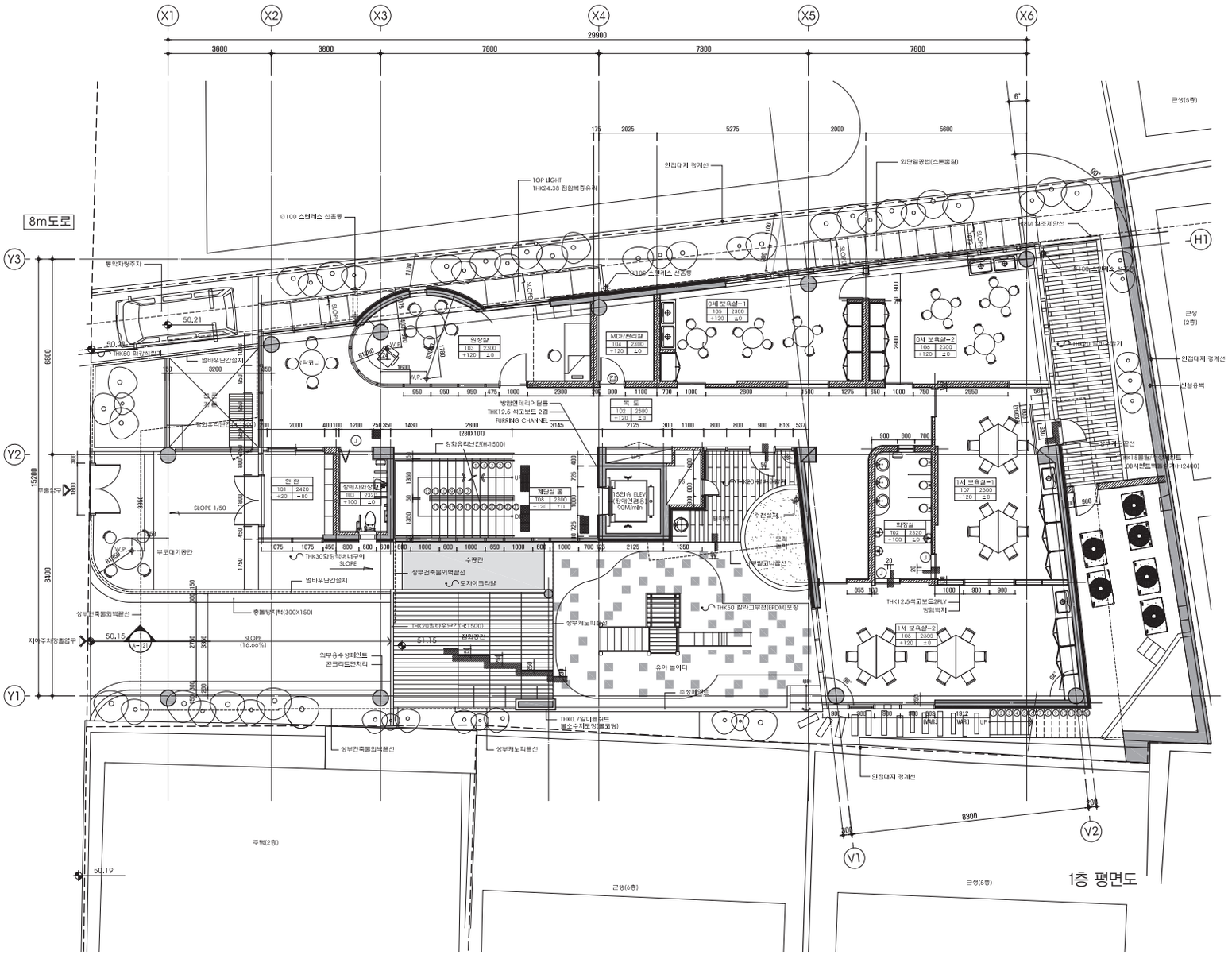
어떻게 하면 디자인으로 어린이들이 엄마와 떨어지는 것에 대한 공포감을 감소시킬수 있을까? 시각적인 요소를 통해 아이들이 재미와 상상력을 갖고 어린이집을 놀이공간으로 인식하도록 유도한다.
새둥지를 닮은 디자인으로 아이들에게 호기심을 불러 일으키고 상상력을 증폭시키는 경험을 제공한다. 사람들은 환경을 만들며 그 환경은 인간을 만들어 간다.
특히 유년기의 기억과 매일 접하게 되는 주변 환경은 사람들의 내부 풍경을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어렸을 때 자주 접한 이미지는 인간의 감성을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유치원은 아이들에게는 중요한 생활환경이다. 무미건조한 공간에서 생활한 아이들과 상상력을 풍부하게 담고 있는 공간에서 생활한 아이들의 미래는 서로 비교될 수 없을 것이다.

햇살과 웃음이 가득한 마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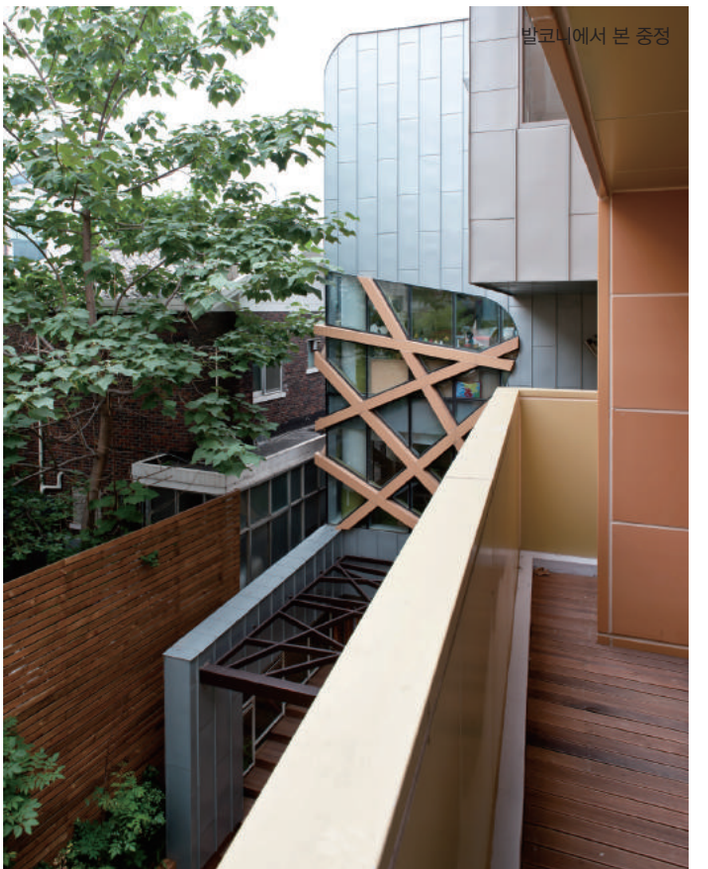
꽃이 피고, 나무가 자라며, 햇살 가득한 아이들만의 자연을 만들고 주변경관과 자연의 풍경을 대지로 끌어들여 햇살마당을 만들어 주자 건물로부터 품어진 자연은 내부 어디에서든지 대화할 수 있고 건축적 산책로로 연결하여 다양한 공간적 사건을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또한 직접 어린이들이 식물을 가꾸면서 생명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텃밭과 다양한 나무와 초화류를 보고 만지면서 감각적 경험을 제공하도록 계획하였으며 각종 이벤트와 교육이 가능한 옥외집회장을 계획하였다.

남동측에서 바라본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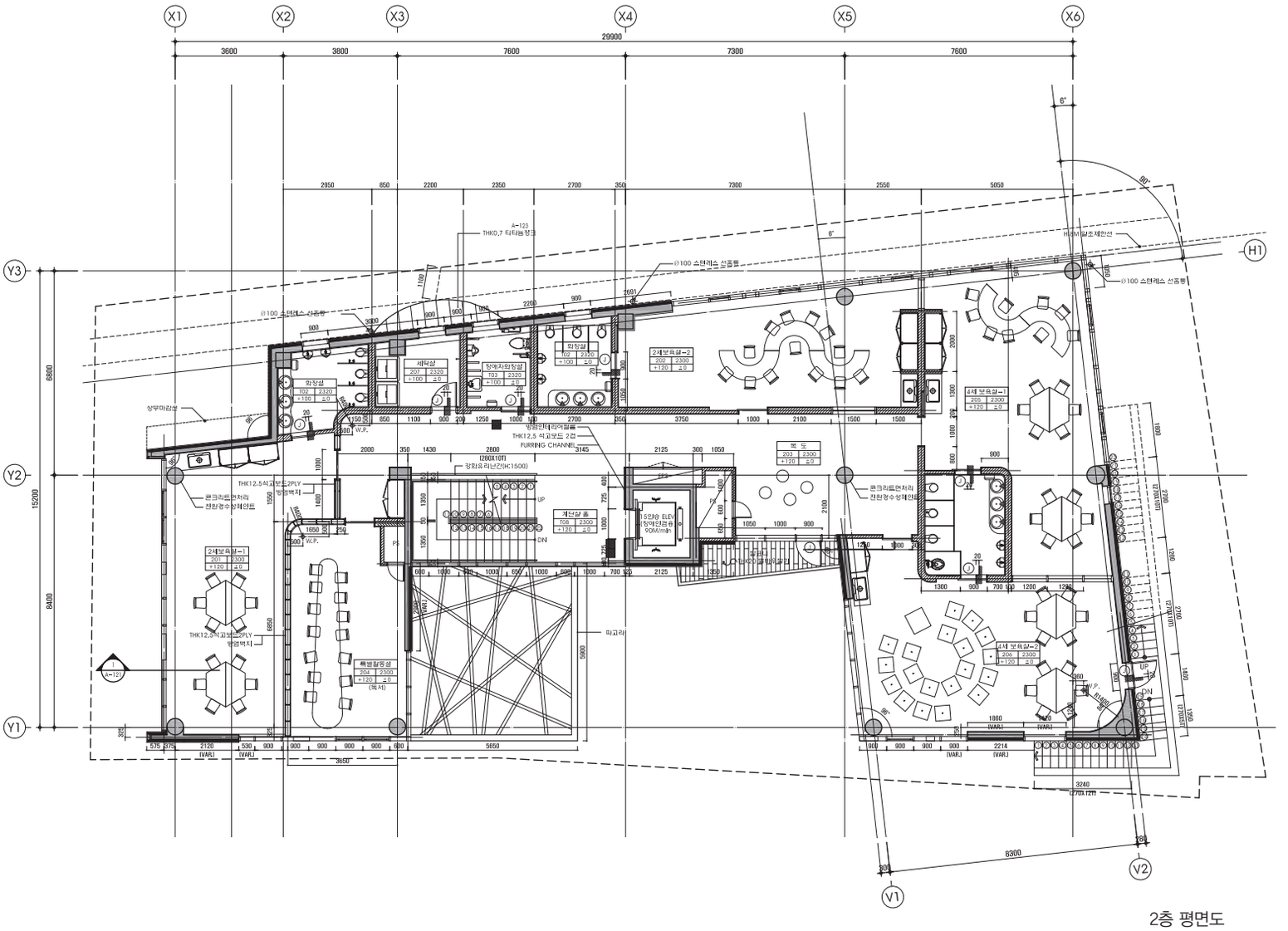
중정



유아 놀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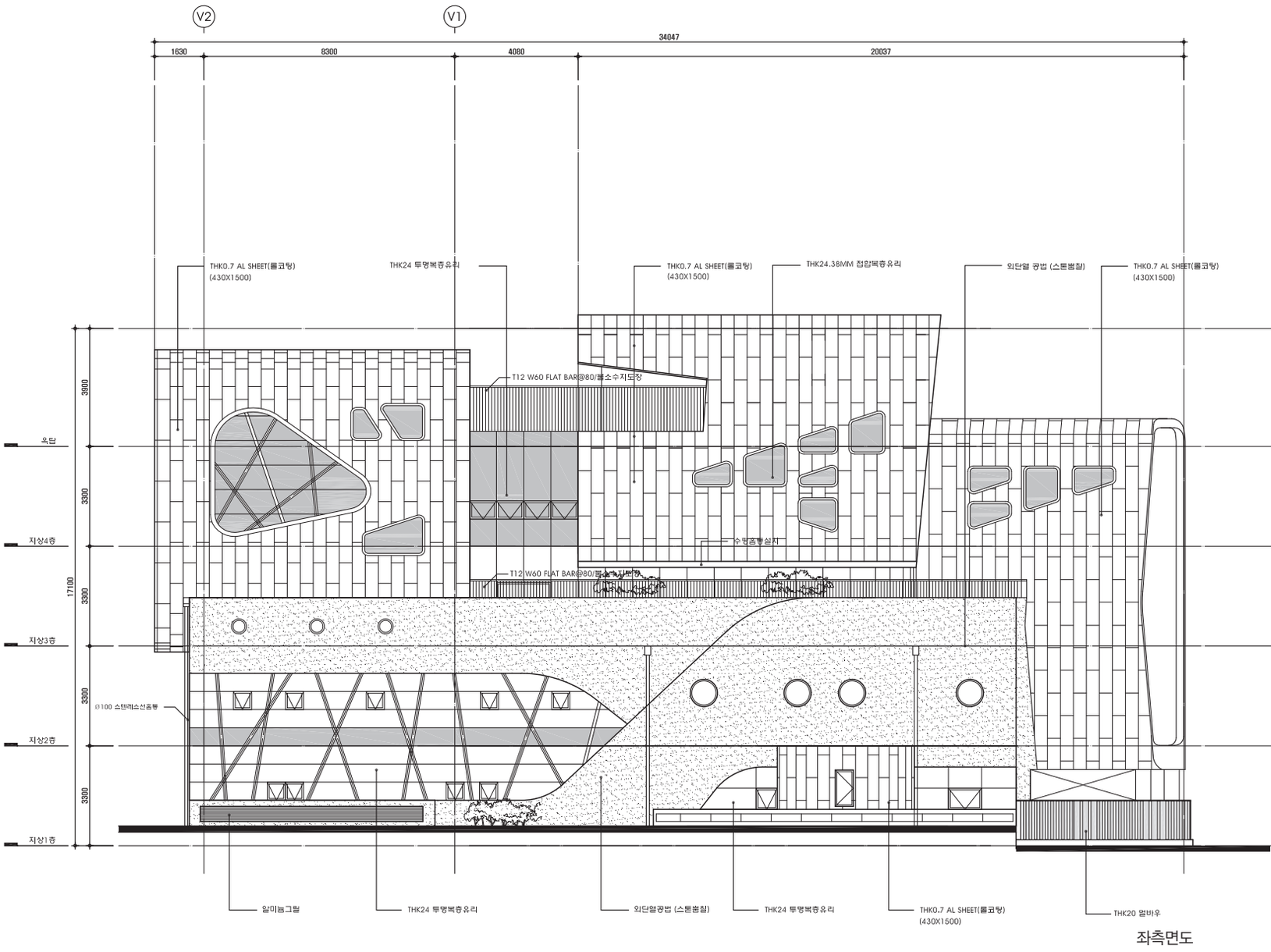


발코니에서 본 중정


X1
X2
X3
X4
X5
X6
Y1
Y2
Y3
H1
V1
V2
29900
3600
3800
7600
7300
7600
15200
8400
6800
2세보육실-2
202 2300
+120 ±0
4세 보육실-1
205 2300
+120 ±0
4세 보육실-2
206 2300
+120 ±0
2세보육실-1
201 2300
+120 ±0
특별활동실
204 2300
+120 ±0
(목사)
세탁실
207 2320
+100 ±0
장애자화장실
703 2320
+100 ±0
화장실
702 2320
+100 ±0
화장실
702 2320
+100 ±0
복 도
203 2300
+120 ±0
계단실 홀
705 2300
+120 ±0
상부마감선
콘크리트면처리
전량방수상체안트
THK12.5석고보드2PLY
방염벽지
THK12.5석고보드 2겹
FURRING CHANNEL
장화유리난간(HC1500)
마고라
15인승 ELEV
장애인전용
90M/min
UP
DN
PS
W.P.
THK0.7 티타늄청크
Ø100 스텐레스 산홈통
H.S.W.I설조체안선
8300
3240
(270x12H)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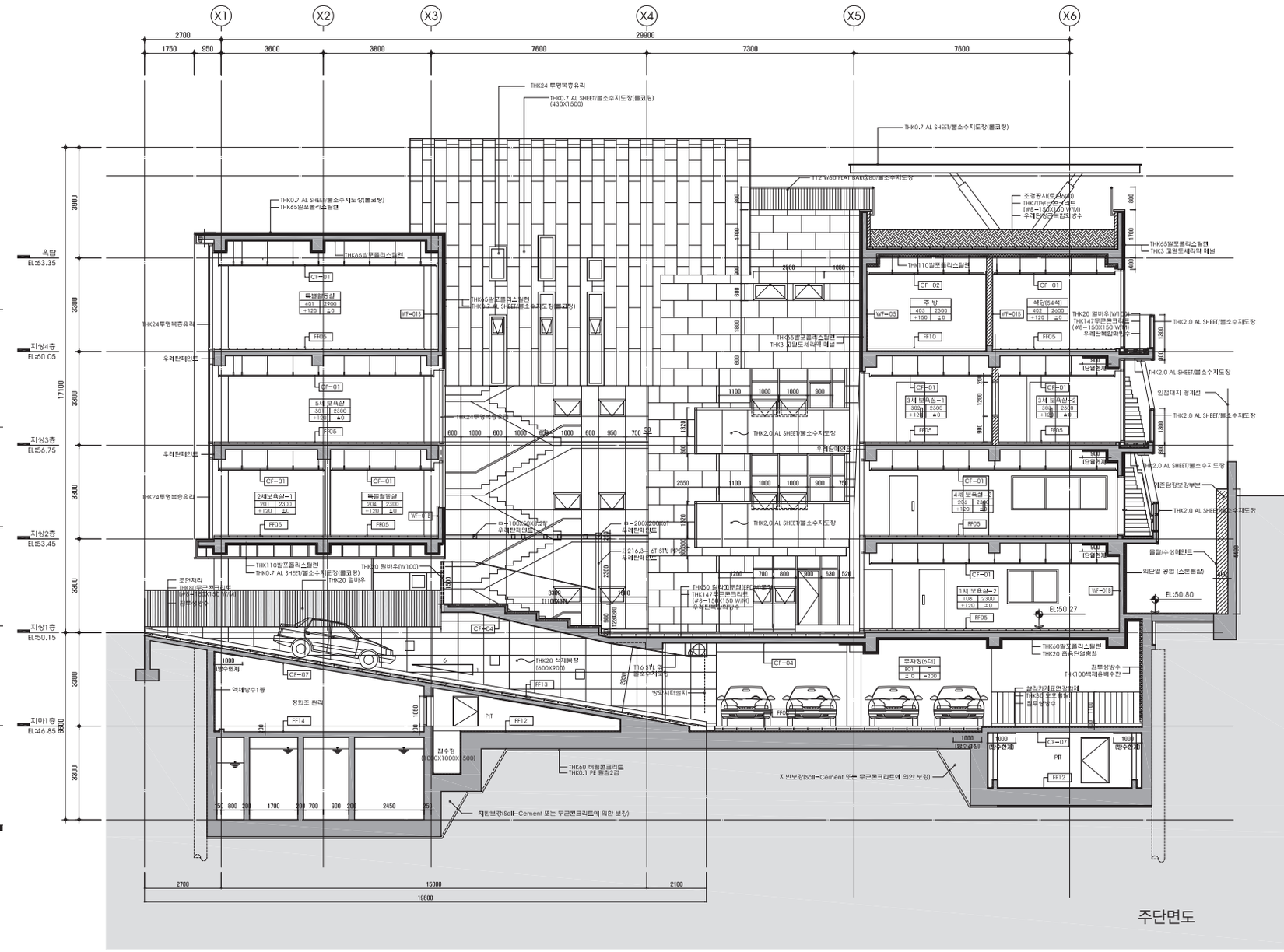
1층 복도



좌측면도

3층 유희실

4층 계단실홀


X1
X2
X3
X4
X5
X6
옥탑
EL:63.35
지상4층
EL:60.05
지상3층
EL:56.75
지상2층
EL:53.45
지상1층
EL:50.15
지하1층
EL:46.85
EL:50.80
EL:50.27
THK0.7 AL SHEET/볼소수지도장(롤코팅)
THK65발포폴리스틸렌
THK24 투명복층유리
THK2.0 AL SHEET/볼소수지도장
THK20 멀바우
THK60 화강고분질타일
THK60발포폴리스틸렌
THK20 접착몰탈
THK0.1 PE 필름2겹
지반보강(Soil-Cement 또는 무근콘크리트에 의한 보강)
주단면도

특별활동실

루프층

국립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종합교육관

GYEONGNAM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EDUCATIONAL INSTITUTION

건축주 | 국립 경남과학기술대학교(구, 진주산업대학교)

설계자 | 성진용, 박기성_KIRA | (주)원양 건축사사무소
김춘구_KIRA | 건축사사무소 토담

- 설계팀 : 박근우, 정주찬, 지은권, 송흥준, 최창남, 조재웅, 정태훈, 윤서진 홍영기, 양동현, 주빈희
- 전문기술협력
  - 구조분야 : ㈜아이맥
  - 전기 · 통신설비분야(소방포함) : ㈜일신E&C
  - 기계설비분야(소방포함) : ㈜삼신설계
  - 토목분야 : ㈜다산이엔지

감리자 | 국립경남과학기술대학교 시설과

시공사 | ㈜태영건설

대지위치 | 경상남도 진주시 칠암동 150번지 국립경남과학기술대학교 내

주요용도 | 교육 연구시설

대지면적(Site Area) | 14,423.75㎡

건축면적(Building Area) | 3,229.75㎡

연면적(Gross Floor Area) | 16,413.73㎡

건폐율(Building to Land Ratio) | 22.39%

용적률(Floor Area Ratio) | 106.08%

규모(Building Scope) | B1 – 15F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주요마감재 | 외부마감_알루미늄 쉬트, 아연도강판, 칼라복층유리, 화강석
내부마감_대리석, 화강석, 카펫타일

설계기간 | 2010. 01 ~ 2010. 10

공사기간 | 2010. 10 ~ 2012. 06

Client | Gyeongnam National University

Architect | Seong, Jin-yong + Park, Ki-seong (Wonyang Architecture)
Kim, Chun-gu (Todam Architecture)

Location | Jinju National Univ., Chiram-dong, Jinju-si, Gyeongsangnam-do, Korea

Structure | R.C, S.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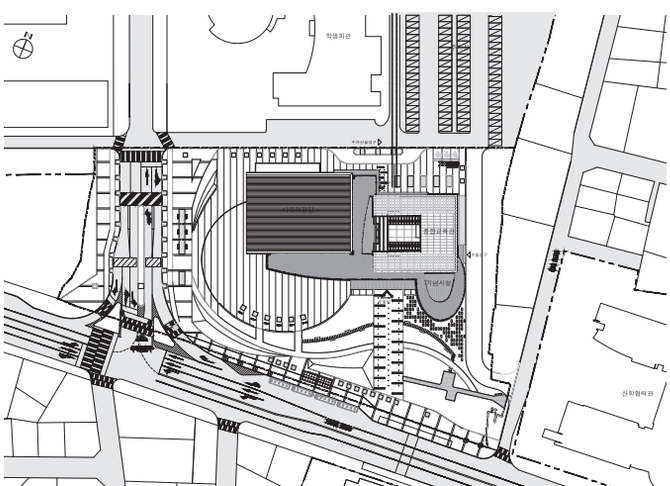
Structural Engineer | AIMAC Structure

HVAC Engineer | ILSHIN Engineer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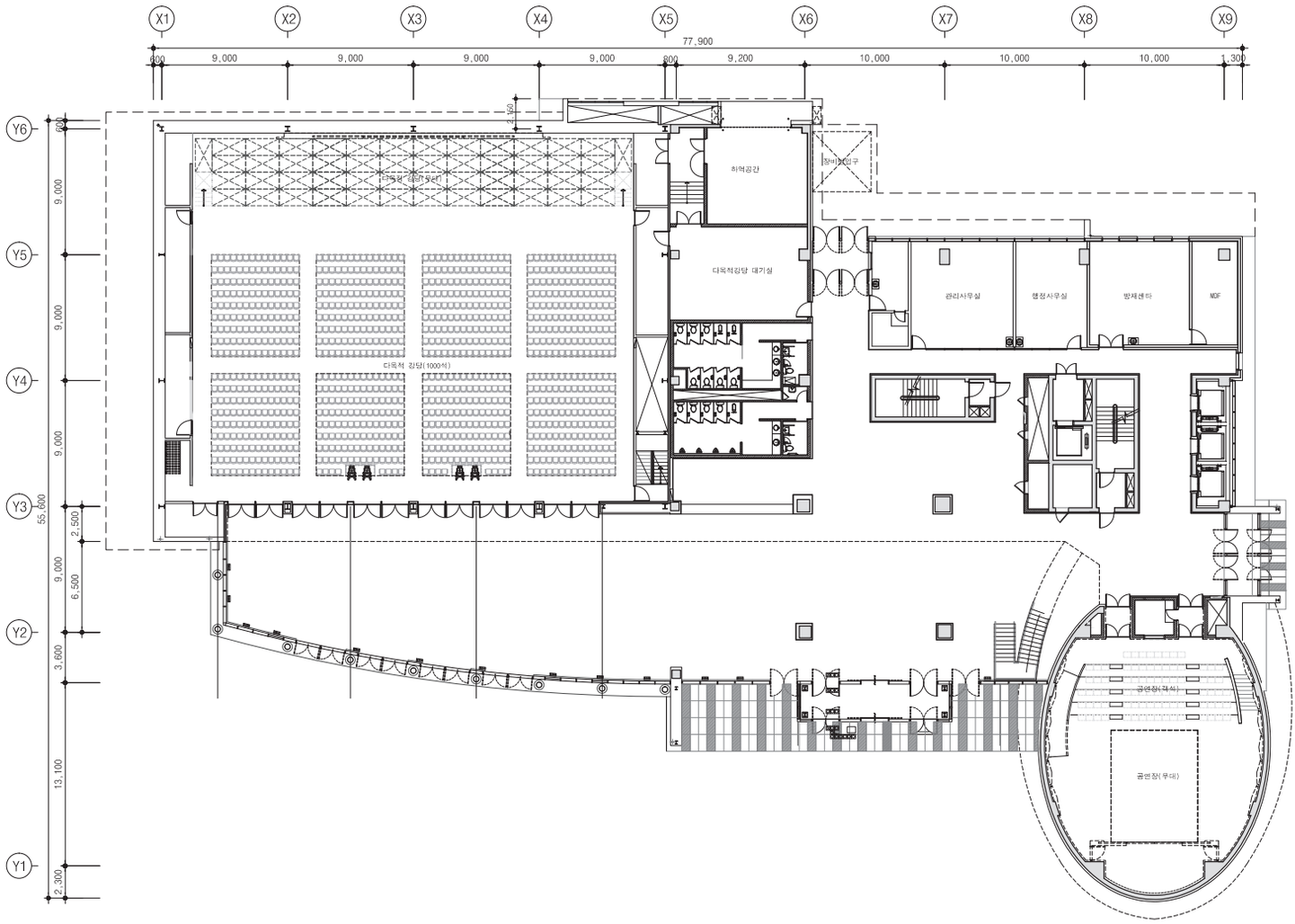
Electrical Engineer | SAHMSHIN Engineering

Design period | 2010. 01 ~ 2010. 10

Construction period | 2010. 10 ~ 2012.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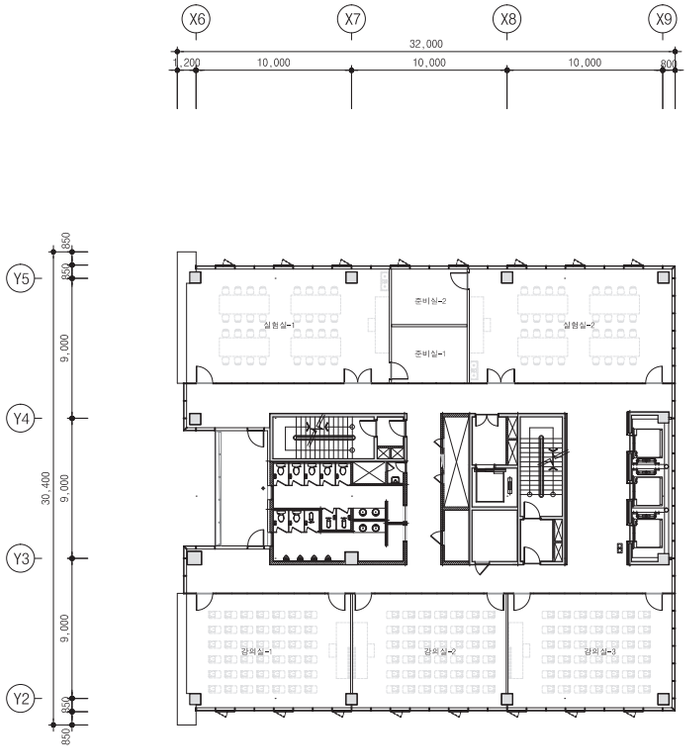
남측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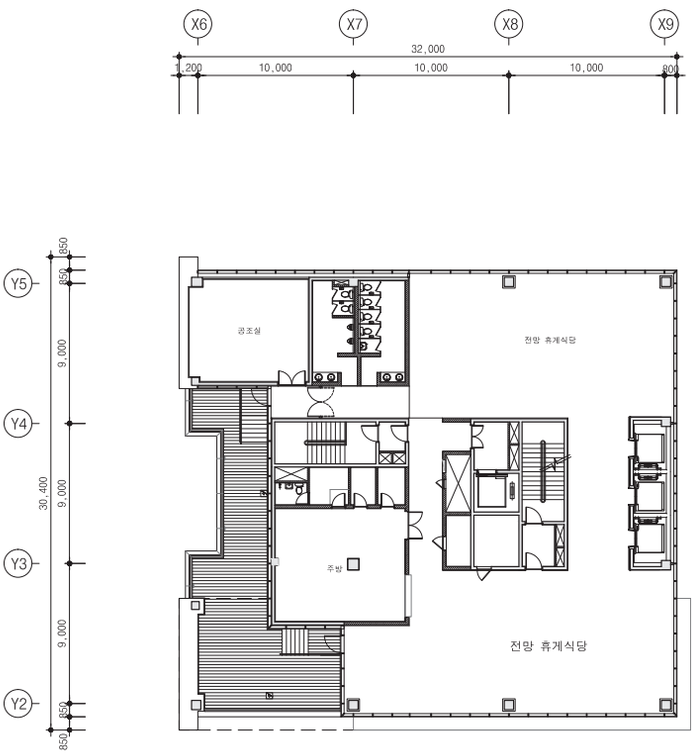
1층 평면도

2010년, 개교 100주년을 맞이한 국립경남과학기술대학교(舊, 진주산업대학교)는 과거 100년의 역사성과 새로운 100년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학교 초입부에 상징적인 종합교육관을 짓고자 총사업비 300억의 턴키공사를 발주하였다.
이에 2010년 4월, 태영건설 컨소시엄의 일원으로서 100년의 전통과 100년의 미래를 상징하는 2개의 게이트 조형미를 강조한 원양건축의 설계안이 당선되어 실시설계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선 후 학교 교수진으로 구성된 코디네이터팀과의 8차례 협의를 거쳐 턴키 당선안의 입면과 평면, 내/외부 공간 등 다양한 부분이 변경되고 조정되는 험난한 4개월간의 계획설계를 거치게 되었다.
그러나 이 기간 또한 최상의 건축물을 만들어 내고자 하는 학교측과 컨소시엄 측의 공통된 의기투합을 통해 최상의 재료 선정과 디자인 구성의 합리성을 도출해 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로 인해 촉박한 실시설계 일정을 무리 없이 소화해낼 수 있었다.
1,000석 규모의 다목적 강당과 150석 규모의 소극장, 100주년 역사관 등의 저층부 문화시설과 강의실과 교수연구실, 회의실, 실험실 등의 고층부 교육연구시설, 그리고 진주 남강의 새로운 랜드마크로서 자리매김한 15층 스카이라운지까지 최첨단 복합시설의 "100주년 종합교육관"은 그렇게 10개월의 설계기간과 20개월의 공사기간을 거쳐 2012년 8월31일 준공식을 갖게 되었다.
이로서 다가오는 100년을 위한 국립경남과학기술대학교의 새로운 비상은 남강의 등대처럼 지키고 선 "100주년 종합교육관"을 통해 비로소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8층 평면도



15층 평면도

후면전경

1층 로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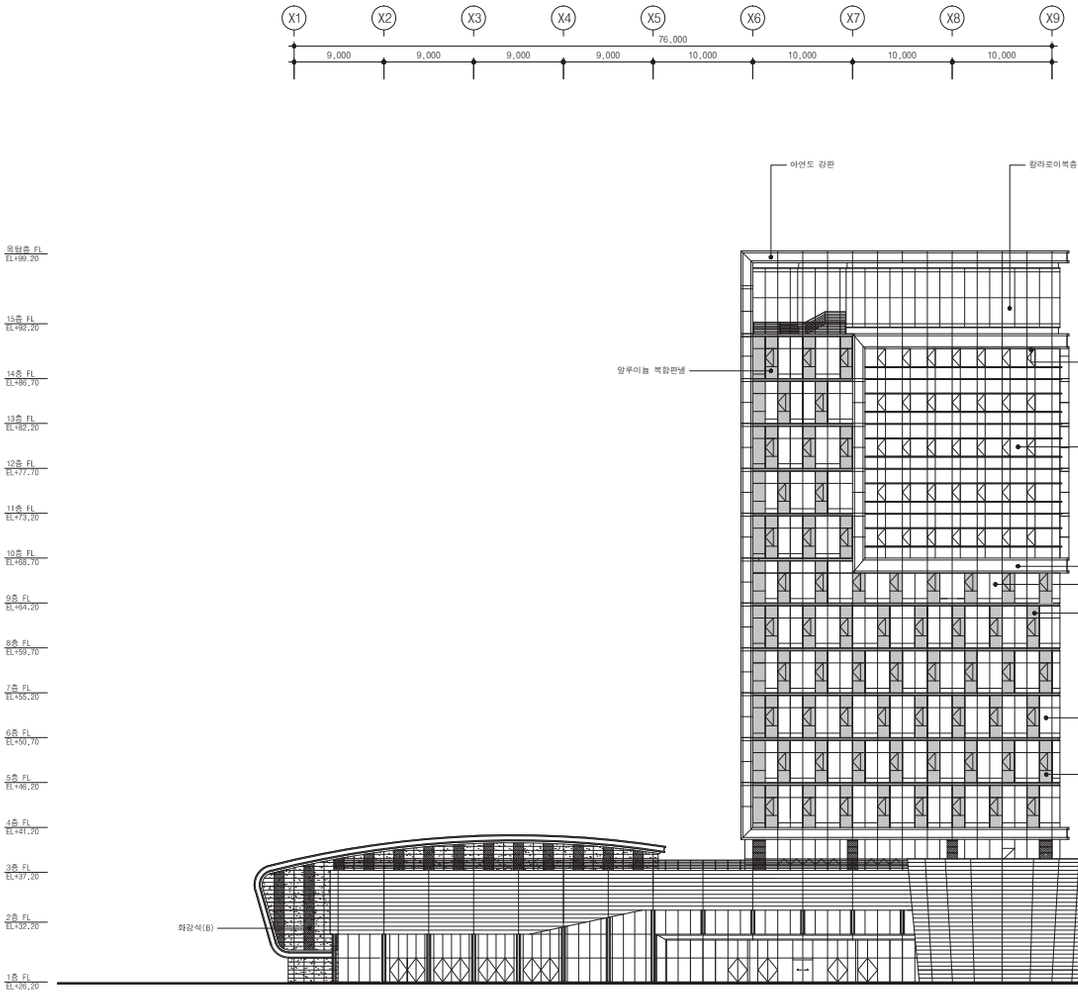
대회의실

스카이라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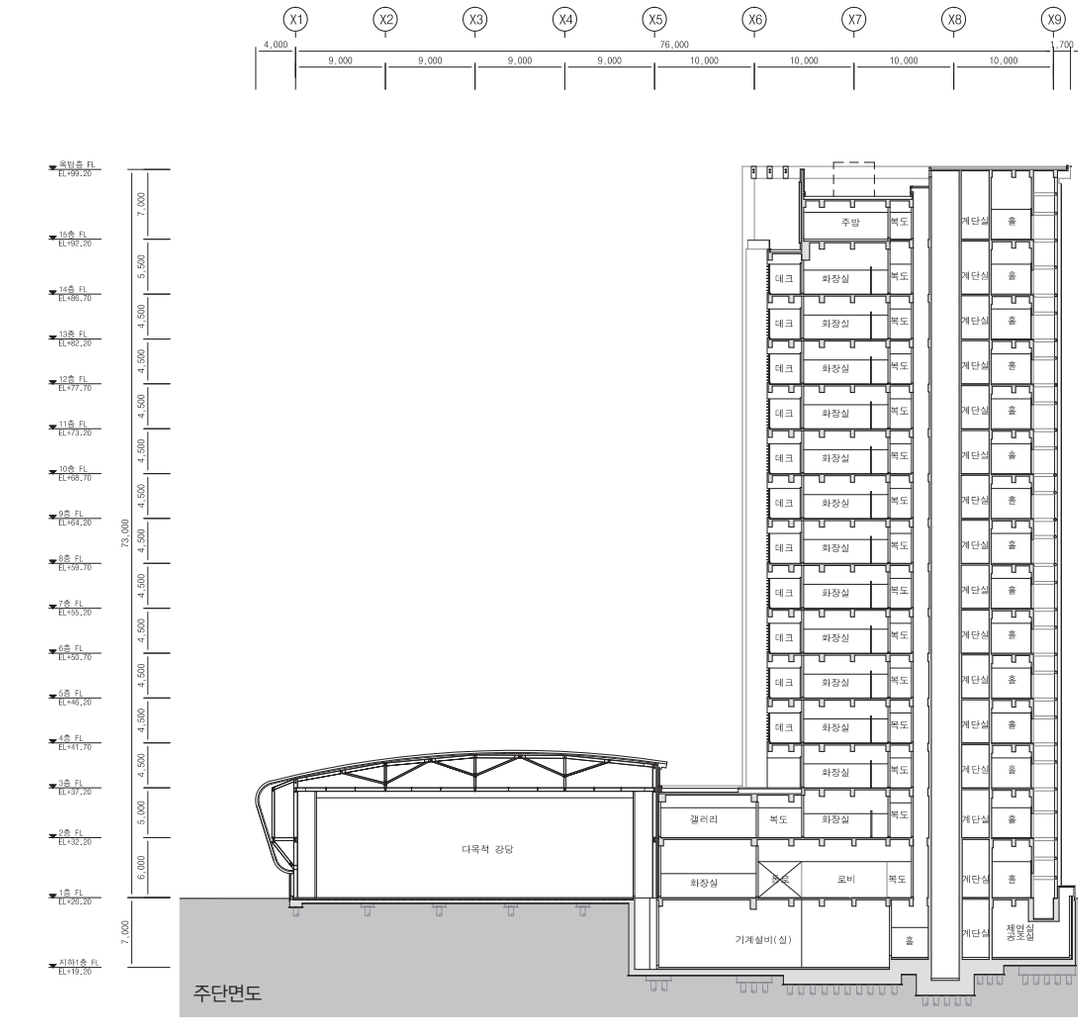
다목적 강당

소공연장

15층 휴게정원



정면도



주단면도

대한건축학회 건축센터
AIK ARCHITECTURE CENTER

건축주 | 대한건축학회

설계자 | 이인호_KIRA | (주)건축사사무소 이래건축

- 설계팀 : 임채진(홍익대학교 교수), 정민희, 조남규 박창수, 김형일, 김정기, 최민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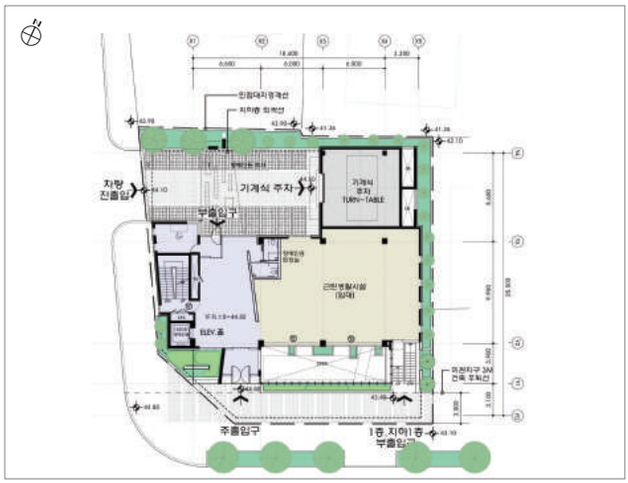
- 전문기술협력
  - 구조분야 : 김성기(SQ엔지니어링.주)
  - 전기 · 통신설비분야(소방포함) : (주)조은기술단
  - 기계설비분야(소방포함) : (주)노스타엔지니어링

시공사 | 태영건설

대지위치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917-9
주요용도 | 업무시설
대지면적(Site Area) | 749.50㎡
건축면적(Building Area) | 427.17㎡
연면적(Gross Floor Area) | 2,543.79㎡
건폐율(Building to Land Ratio) | 56.99%
용적률(Floor Area Ratio) | 198.77%
규모(Building Scope) | B2-6F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주요마감재 |외부마감_T4 티타늄, 아연판 복합판넬
설계기간(기획/계획/실시) | 2010. 11 ~ 2011. 06
공사기간 | 2011. 05 ~ 2012. 09
사진(Photographer) | Yu, Dae-sun

Architect | Lee, In-ho

Project team | Lim, Chae-jin / Jeong, Min-hui / Jo, Nam-gyu / Park, Chang-su
Kim, Hyeong-il / Kim, Jung-ki / Choi, Min-young
Location | 917-9, Bangbae-dong, Seocho-gu, Seoul, Korea
Structure | R.C
Structural Engineer | SQ Engineering
Electrical Engineer | Jo Eun Electrical Eng.
Design period | 2010. 11 ~ 2011. 06
Construction period | 2011. 05 ~ 2012. 09



대한건축학회의 건축센터 건립은 회원들의 오랜 숙원으로 건축계의 이목을 받아왔다. 신축 건축센터는 회원들에게 글로벌한 환경 속에서 자신들을 뒤돌아보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며, 건축인과 일반인들을 연결시켜주는 네트워크 역할을 함으로써 건축학회의 정체성 구축에 기여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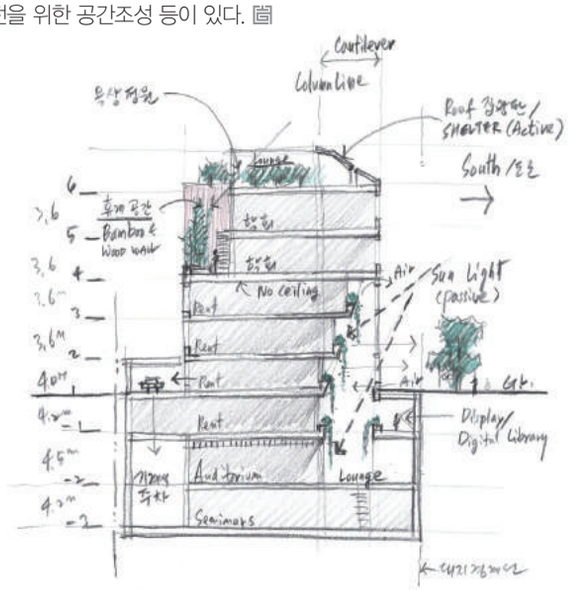
대지가 30m 도로와 13m 도로의 모퉁이에 위치하고 있어 건물의 개방성과 주변과의 관계성은 설계의 주요 Program이 되었다. 특히 동일 선상에 줄지어 있는 유사규모의 무표정한 건물들과의 공존과 차별성을 위하여 주변 건물들의 scale이 고려되었고 학회의 정서를 반영하고자 조형과 공간의 단순성, 투명성이 강조 되었으며, 순수하고 지성적인 형태를 암묵적으로 표현하는 무채색의 건물재료를 사용하였다.

도시와 사적공간이 만나는 경계에 있는 Atrium, 온실, 발코니, 테라스정원, 옥상정원은 도시와 접속하는 완충공간이며 도시 풍경의 연장공간이다. 저층 3개 층의 Atrium과 고층 3개 층의 정원은 도시로의 개방성을 갖으며 실내 공간의 확장을 느끼게 해준다. Atrium 내로 유입된 투명한 빛은 창문, planter, 노출콘크리트 벽체에 의해 굴절, 반사, 여과 되어 부드러운 색조의 빛으로 바뀌고 극적인 효과로 이어진다. 이 전환된 빛은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공간적 깊이와 연속성을 강조해주며 특히 전시, 공연, 강연을 위한 지하 1층 다목적실에 쾌적한 환경과 즐거움을 제공한다.

Atrium과 온실은 passive한 방식으로 에너지를 절감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입체적인 플랜터의 화초를 성장시키는 Green 공간이다. 또한 빛의 정원인 Atrium은 표피의 투명성으로 태양의 위치에 따라 빛과 그림자를 변화시키고 밤이 되면 불빛이 밖으로 비추어 도시의 커뮤니티와 교감한다. 이 여백의 공간은 실용적으로 모호할 수 있는 공간이지만 건물 사용이 정착되어 감에 따라 그 역할과 상징성이 특징지어질 것이다. 일반 사무용 건물에서 볼 수 있는 단조로운 평면의 반복성을 프로그램 재해석을 통하여 1층 임대 공간 접근을 이원화 했으며 4층의 소회의실을 재배치하고, 6층에는 대형 세미나실을 추가하여 각 실의 실내 공간에 변화를 주었다. 외장재인 티타늄 아연판은 open joint 공법으로 시공되어 시간성을 갖고 자연스럽게 색채가 변해갈 것이며 내부의 노출콘크리트 사용은 외장재와의 조화와 재료의 순수성을 고려하여 선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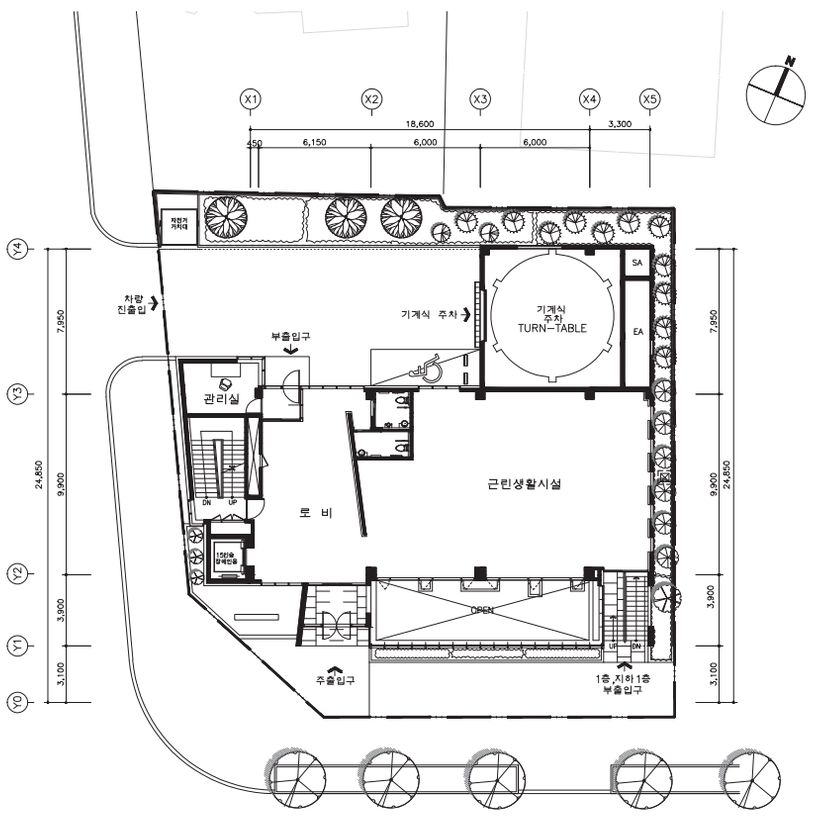
공사비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친환경 건축에 대한 학회의 관심과 배려는 학회의 진취성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환경적 상황들에 대한 연구와 실천의 본보기이다.

건축센터의 건축물 에너지 효율 1등급을 받은 공법들 중 주요 적용사항은 온실에 의한 passive solar control과 태양광 발전, 태양열 설비, LED 조명기구 사용, 재활용 자재 사용, 우수 집수 후 조경용수로 사용, 냉난방기 친환경 냉매 사용, 실별 자동 온도장치, 탄소성적 우수자재 사용, 절수형 위생기구 사용과 휴식 및 재충전을 위한 공간조성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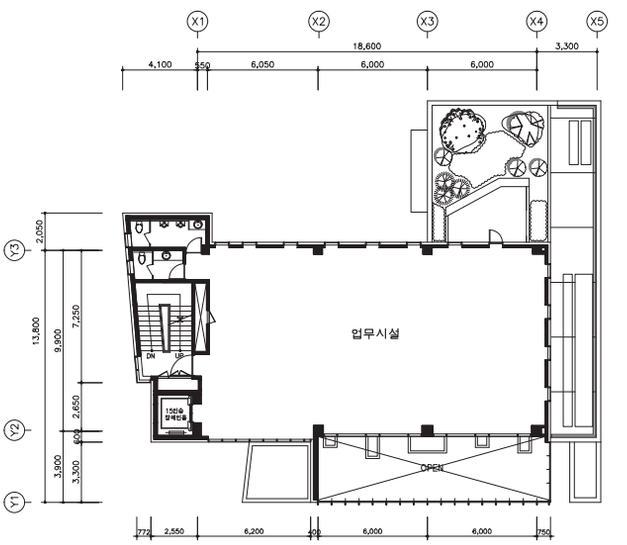


서울대입구역
서희스타힐스
SHARHILLS

간설
초형아파트
남부터미널
방배역


X1
X2
X3
X4
X5
18,600
3,300
450
6,150
6,000
6,000
Y4
Y3
Y2
Y1
Y0
7,950
24,850
9,900
3,900
3,100
차량 진출입
부출입구
기계식 주차
기계식 주차 TURN-TABLE
SA
EA
관리실
로 비
근린생활시설
OPEN
주출입구
1층,지하1층 부출입구

1층 평면도


X1
X2
X3
X4
X5
18,600
3,300
4,100
550
6,050
6,000
6,000
Y3
Y2
Y1
2,050
13,800
9,800
7,250
3,800
2,650
600
3,300
업무시설
OPEN
772
2,550
6,200
400
6,000
6,000
7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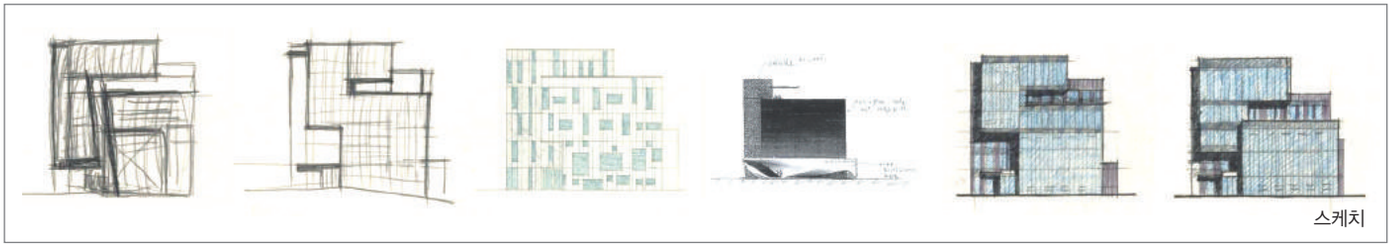
2층 평면도

주출입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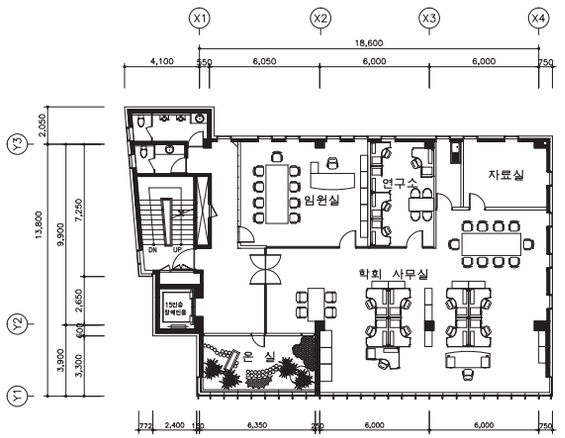
1층 로비

4층 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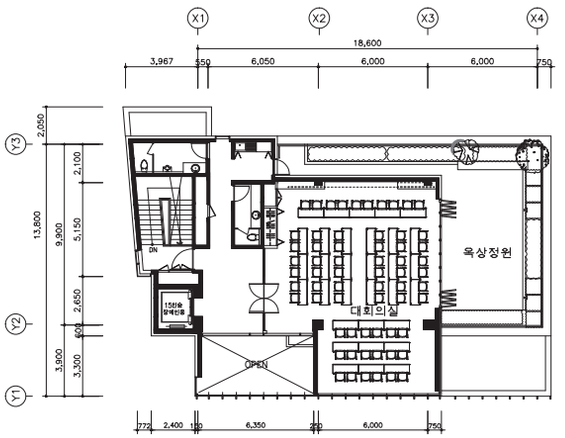
4층 사무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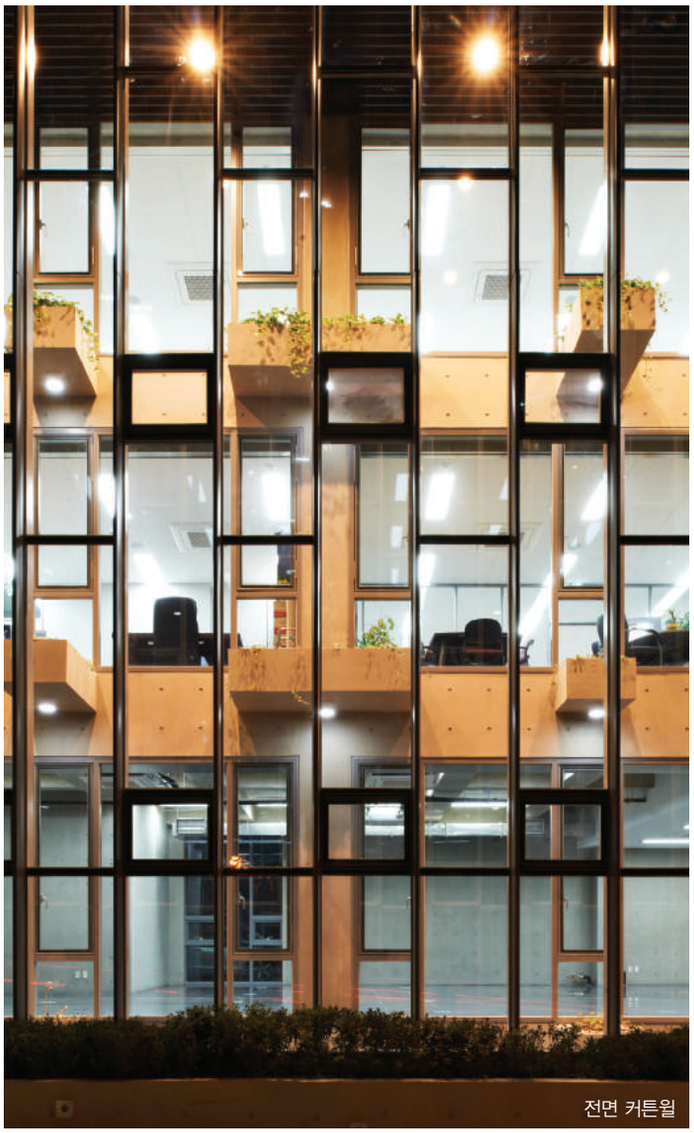
스케치



4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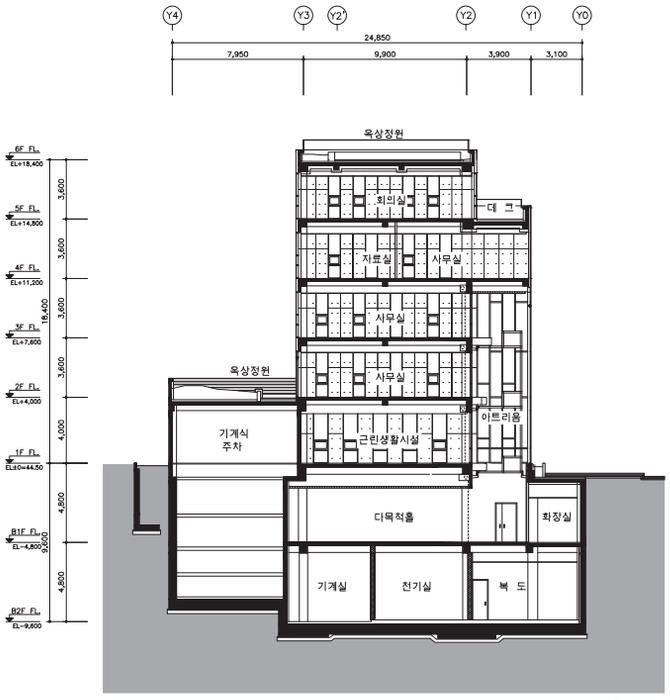


6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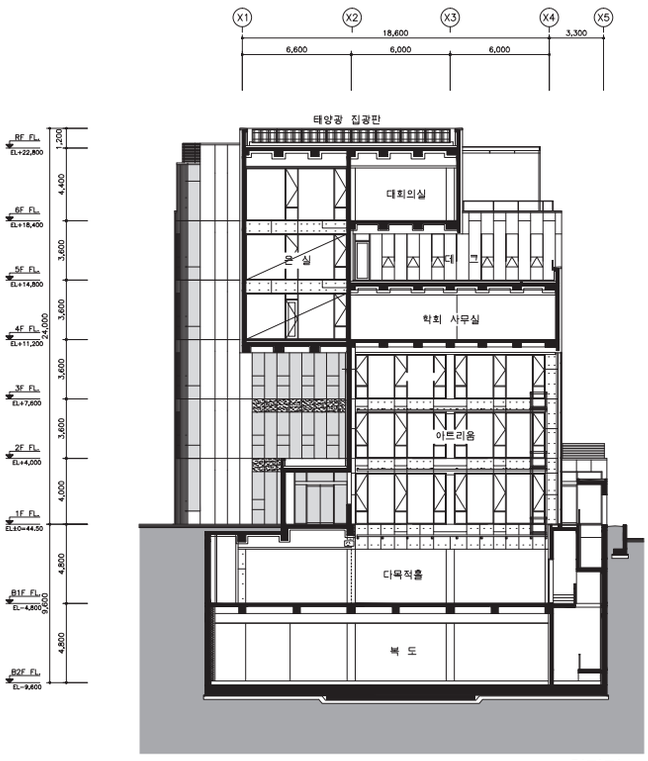


전면 커튼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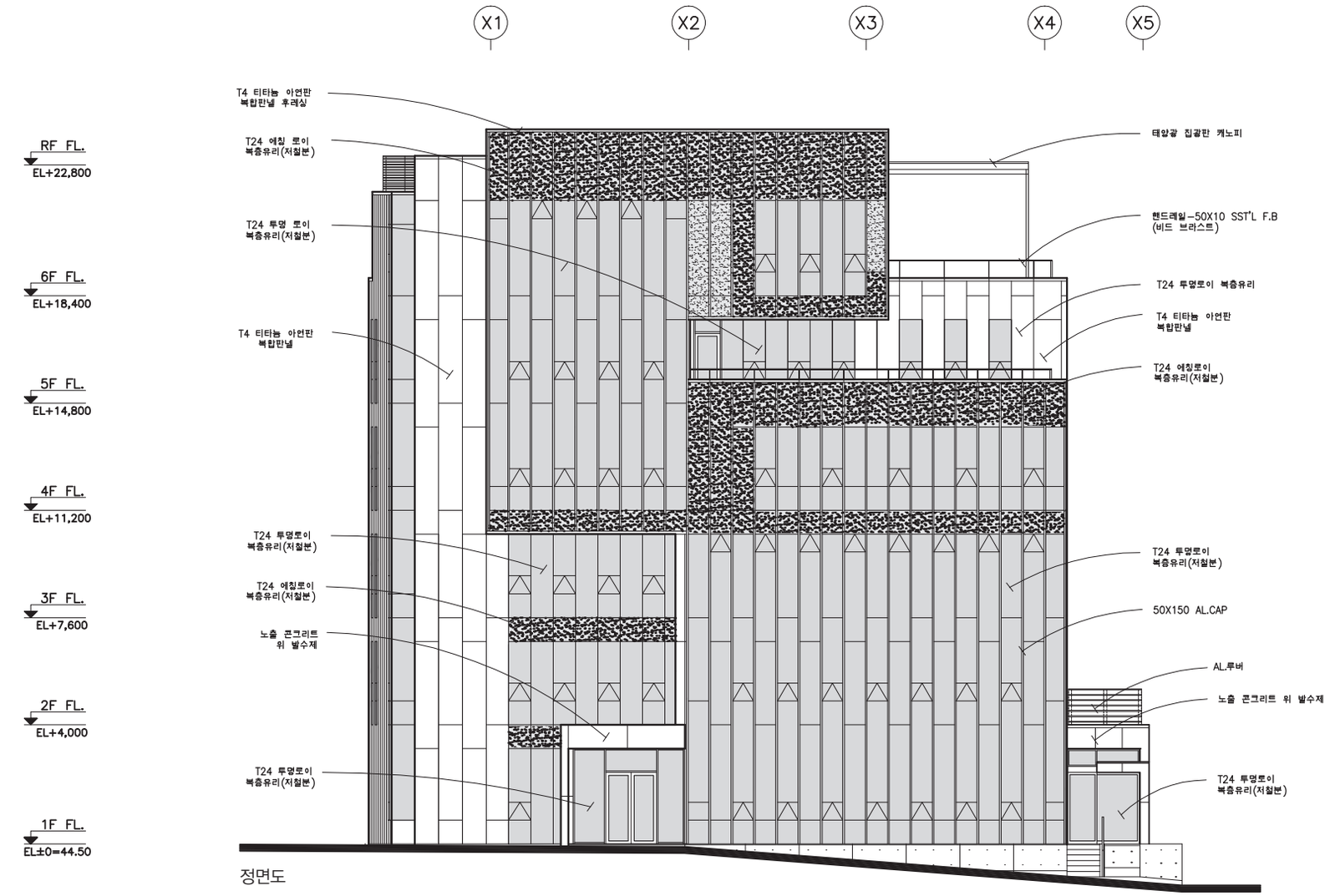
아트리움



종단면도



횡단면도


X1
X2
X3
X4
X5
RF FL.
EL+22,800
6F FL.
EL+18,400
5F FL.
EL+14,800
4F FL.
EL+11,200
3F FL.
EL+7,600
2F FL.
EL+4,000
1F FL.
EL±0=44.50
T4 티타늄 아연판 복합판넬 후레싱
T24 에칭 로이 복층유리(저철분)
T24 투명 로이 복층유리(저철분)
T4 티타늄 아연판 복합판넬
T24 투명로이 복층유리(저철분)
T24 에칭로이 복층유리(저철분)
노출 콘크리트 위 발수제
T24 투명로이 복층유리(저철분)
태양광 집광판 캐노피
핸드레일-50X10 SST'L F.B (비드 브라스트)
T24 투명로이 복층유리
T4 티타늄 아연판 복합판넬
T24 에칭로이 복층유리(저철분)
T24 투명로이 복층유리(저철분)
50X150 AL.CAP
AL.루버
노출 콘크리트 위 발수제
T24 투명로이 복층유리(저철분)

정면도

6층 세미나실

아트리움

소금강 HILLS-5 Pension Site

HILLS-5 PENSION SITE

건축주 | 앤탑스(주)

설계자 | 홍영배_KIRA | ㈜한미기술단 건축사사무소

- 설계팀 : 이건희, 홍현래
- 전문기술협력
  - 구조분야 : 한미엔지니어링(주)
  - 토목분야 : 강일토목.측량공사

감리자 | 최성두(건축사사무소 아키라인) / 전태휴(솔 건축사사무소)

시공사 | 삼흥씨엔씨

대지위치 |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 95번지

주요용도 | 숙박시설

대지면적(Site Area) | 6,932 ㎡

건축면적(Building Area) | 2,087.22㎡

연면적(Gross Floor Area) | 3,280.75㎡

건폐율(Building to Land Ratio) | 30.11%

용적률(Floor Area Ratio) | 44.75%

규모(Building Scope) | 1F ~ 3F(13동)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주요마감재 | 외부마감_석재판, 벽돌, 타일, 스코타
내부마감_대리석, 석고판, 미장판, 벽지

설계기간 | 2010. 02 ~ 2010. 05

공사기간 | 2010. 06 ~ 2011. 02

Client | Kwon, Yun-taek

Architect | Hong, Yeong-bae

Project team | Lee, Keon-hui / Hong, Hyeon-rae

General Constractor | Sam-heung C&C co.Ltd

Location | 96, Samsan-ri, Yeongok-myeon, Gangneung-si, Gangwon-do, Korea

Structure | R.C

Structural Engineer | Jeson Lee, ph.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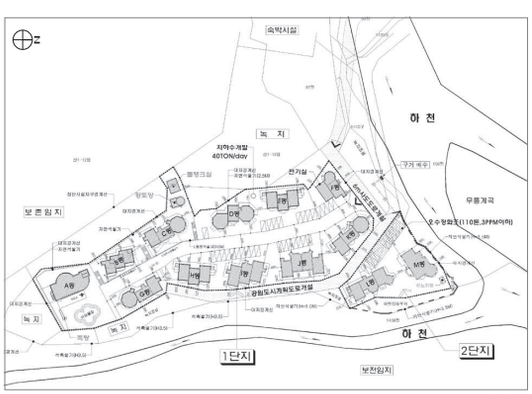
HVAC Engineer | Park, Dong-hoon

Electrical Engineer | Park, Dong-hoon

Finishing Materials | stone, scota, tile, gy.-board, wall paper ect.

Design period | 2010. 02 ~ 2010. 05

Construction period | 2010. 06 ~ 2011. 02



배치도

이 지역은 오대산국립공원 동남측 동해안줄기에 자리 잡은 소금강산입구의 계곡수의 합수지역이다. 80년대의 국립공원의 숙박지구지정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개발되지 못한 것은 〈절터〉이였기 때문이라고 토박이어르신들이 말하지만 산자락을 등지고 부지양측에 계곡수가 흐르는 것만으로도 주변경관이 돋보인다.

평면규모와 배치계획

건물 동별의 규모를 결정하고 보다 선결하여야 하는 것은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진입통로를 고려한 건축물배치와 건축물 동수의 결정이었으며 사업성도 동시에 검토하여야 했다.

평면결정과 공간계획

고객의 편의상 동선은 주통로 양측의 후면으로 진입토록 고려하되 산자락과 개울의 각 후면을 각 동의 옥외공간으로 활용토록 배려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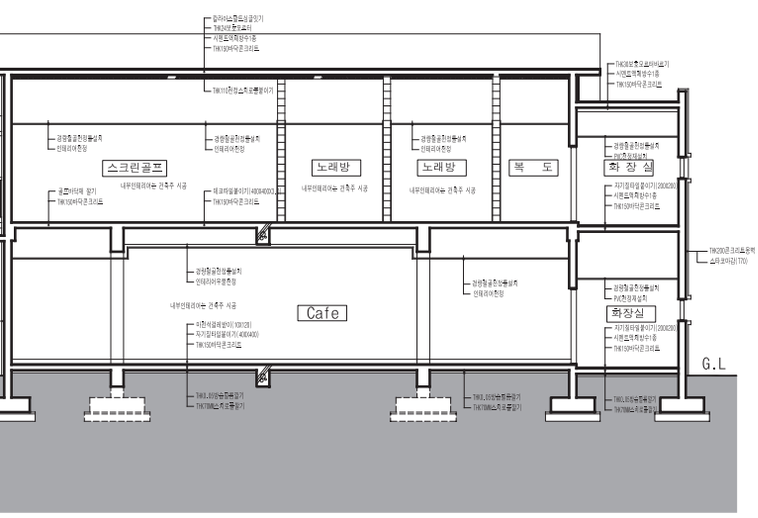
입면계획과 경관계획

고객이 주통로로 진입할 때 건물 13동에서 시각적으로 변화를 인식할 수 있도록 각 건물의 외관을 다양하게 디자인하고자 노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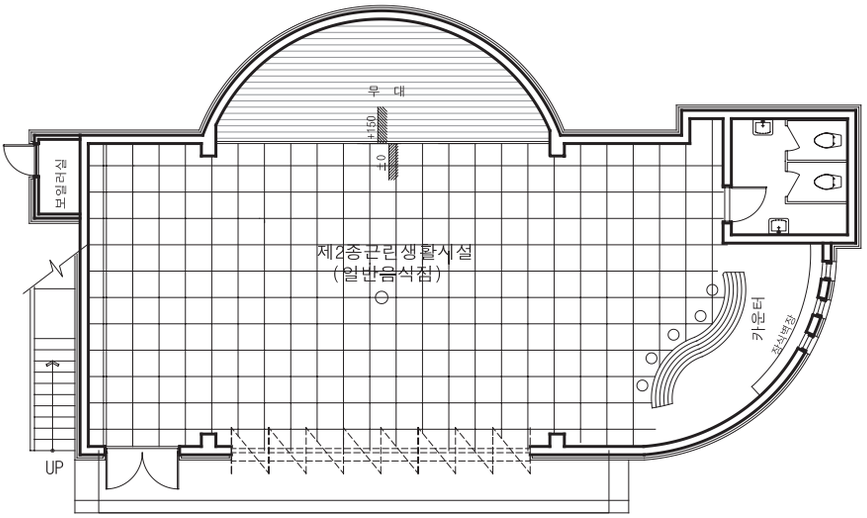
당초의 계획대로 9동으로 배치되었으면 주변경관과 보다 더 여유로운 환경을 만들 수 있었음에 아쉬움이 있었으나 의뢰인의 사업성을 고려하여 13동으로 계획하였다.

완공 후 몇 번을 방문한 적이 있으나 주변경관은 4계절의 봄향기, 여름의 계곡수, 가을 단풍과 겨울의 깊은 설경에서 또 다른 변화하는 휴식의 공간임을 느낄 수 있어서 좋다. 그러나 설계를 마친 후 완공된 결과물에 대해서는 항상 여러 가지 불만스러움을 느끼며 새로운 아쉬움에 빠져들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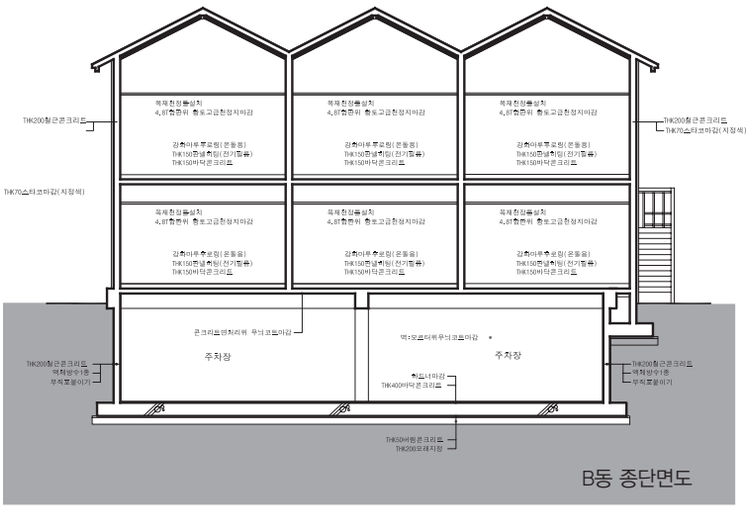
남측에서 본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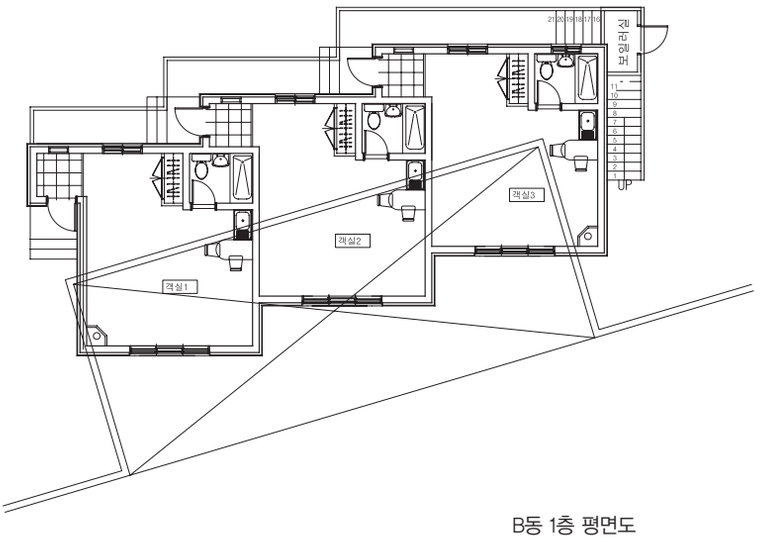
A동 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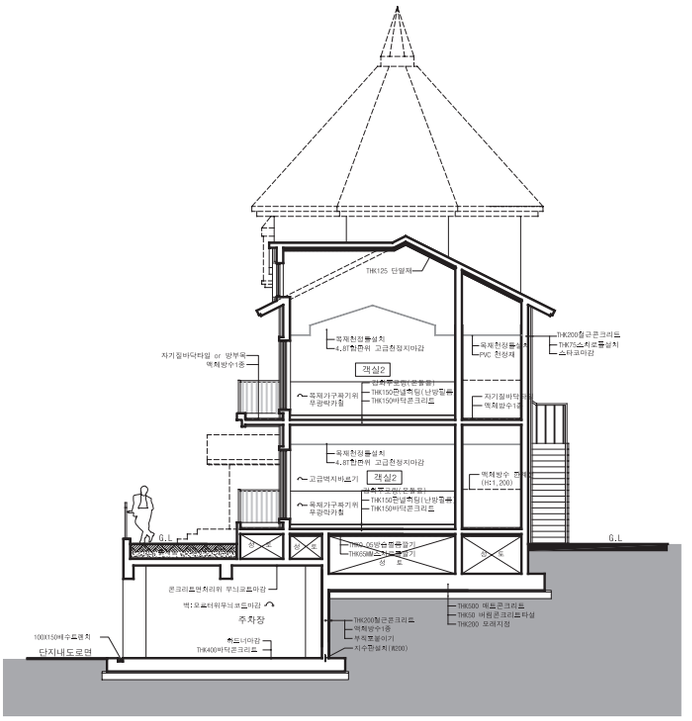
A동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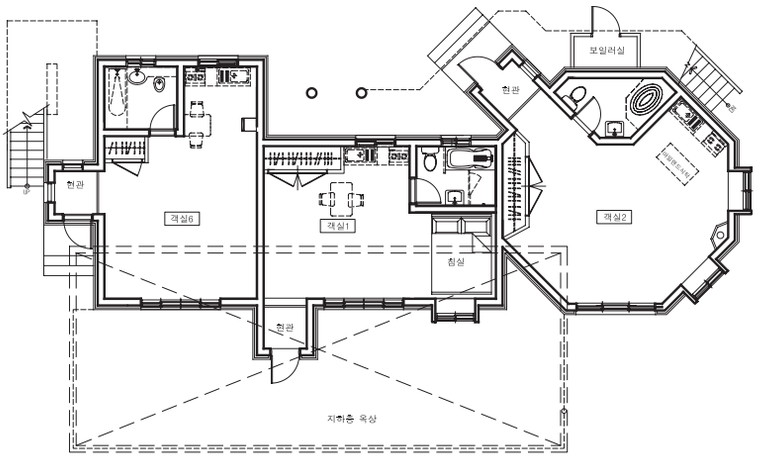
B동 종단면도



B동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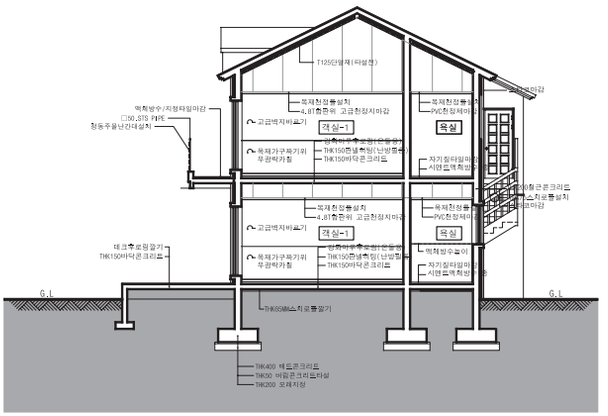
C동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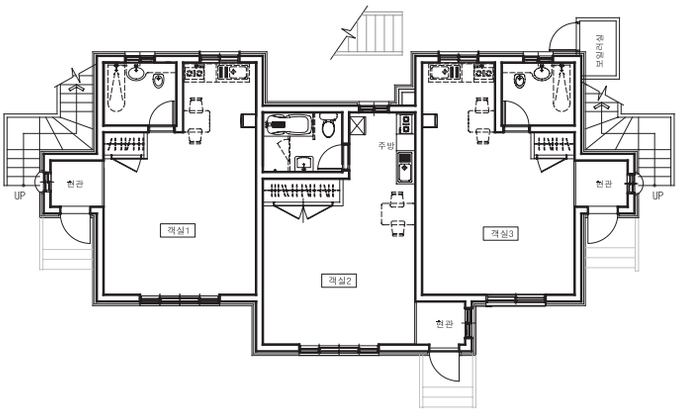
C동 1층 평면도

A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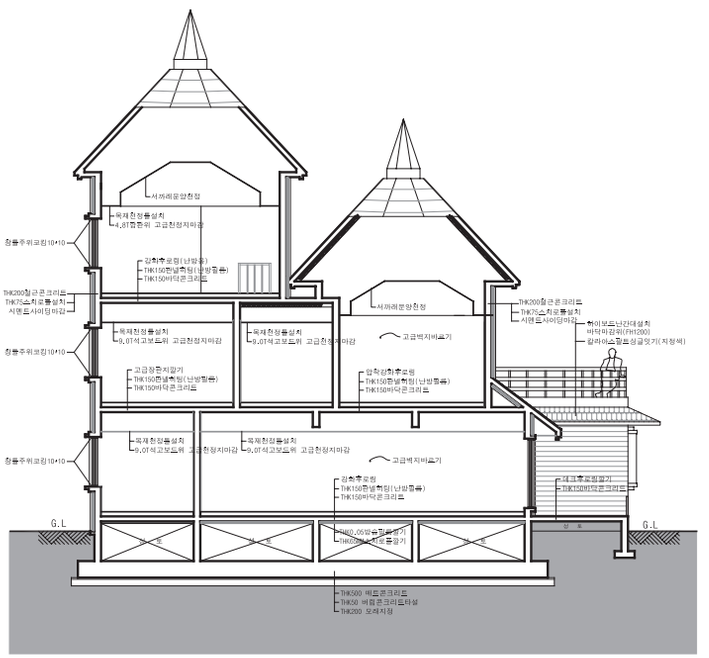
B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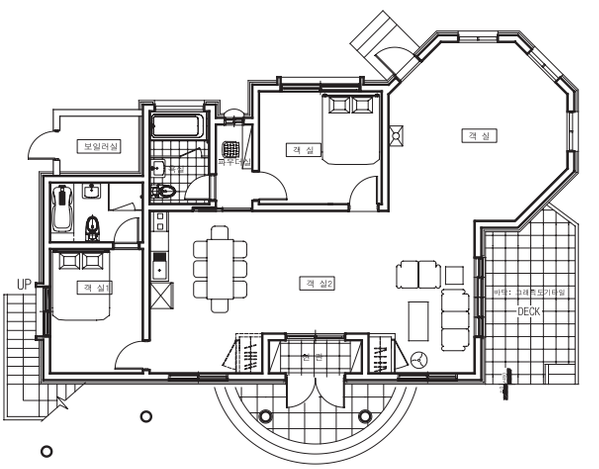
E동 종단면도



E동 1층 평면도



M동 종단면도



M동 1층 평면도

E동

M동 원경

무안고등학교 _당선작

MUAN HIGH-SCHOOL

발주자 : 전라남도 교육청

설계자 : 박동준, KIRA | (주)그룹포에이 건축사사무소
정명철, KIRA | (주)에이엠지그룹 건축사사무소
설계팀 : 김용준, 정재원, 정하연, 강은이, 정용두
박은정, 장유진, 주미정(그룹포에이)
양승희, 황권, 오금지, 이상진
김현민(에이엠지그룹)

대지위치	전남 무안군 무안읍 성남 1길 53번지 일원 외 37필지 내
지역/지구	도시지역, 생산녹지지역, 도시계획구역
주요용도	교육연구시설
대지면적	29,352㎡ (29,634㎡ 중 도로확보면적 282㎡ 제외)
건축면적	5,827.55㎡
연 면 적	20,541.41㎡
건 폐 율	19.85%
용 적 률	67.66%
구 조	철근콘크리트, 철골조
규 모	교사동 (지하1층, 지상5층), 기숙사 (지하1층, 지상6층) 사택 (지상2층)
주요마감	금속패널, 고밀도 목재패널, 화강석 버너구이 점토벽돌, 압출성형시멘트판넬

새로운 도약을 향한 날갯짓_무안지역 세 개 학교의 통폐합으로 신설되는 무안고등학교는 첨단 학습공간과 창의예술센터를 바탕으로 무안의 교육 및 문화의 중심이 되어 지역민과 학생, 학교가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반응하는 다양한 행위가 연출되어질 것이다. 여기에서 학생들이 먼 미래를 향한 힘찬 꿈의 날갯짓을 시작하길 기대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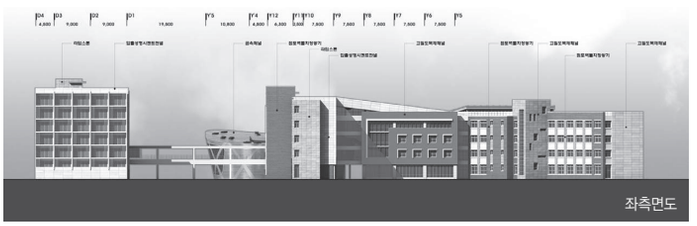
배치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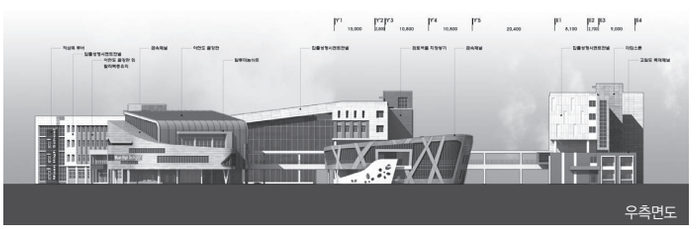
대지와 순응하며 전체적인 스카이라인을 감안하여 배치하였다. 채광, 조망을 고려하여 교과교실동을 남향으로 배치하였고, 소음, 접근성, 개방을 고려한 운동장 및 강당은 전면에 배치하였다. 교육영역, 매개영역, 생활 영역 공간의 성격에 따른 조닝과 그린 커뮤니티 플라자를 중심으로 창의예술센터 및 강당동의 개방영역을 집약화 하여 조닝 하였으며, 대지 전체를 관통하는 녹지 흐름을 열어줌으로써 친환경 교육공간을 구현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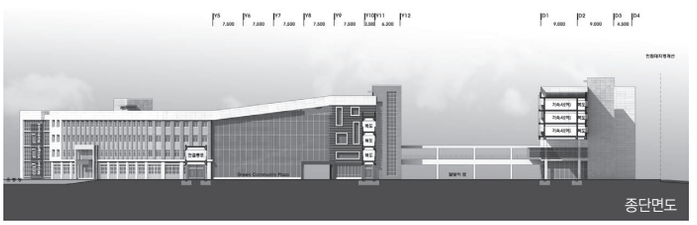
평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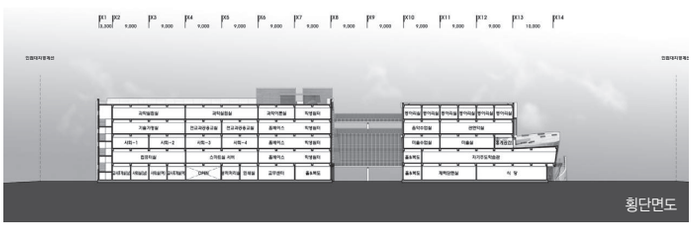
수업 형태의 다양화에 대한 대응 : 교과교실형 수업 혹은 층별로 학년별 수업이 가능한 모듈계획으로 다양한 수업 형태에 대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였다.
기능별 그루핑 및 시간대별 조닝 : 학습영역과 개방영역의 구별을 위해 강당, 창의예술센터, 운동장을 도로와 면하여 배치하였고 기숙사는 조망 및 프라이버시를 고려하여 북측 배치하고, 학년별에 따른 학생 개개인의 능력과 개성을 살리는 교육을 위해 층별 조닝 및 홈베이스를 구성하며 분산 배치와 주요 실들의 남향 배치로 기능적 활용 가치를 높이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조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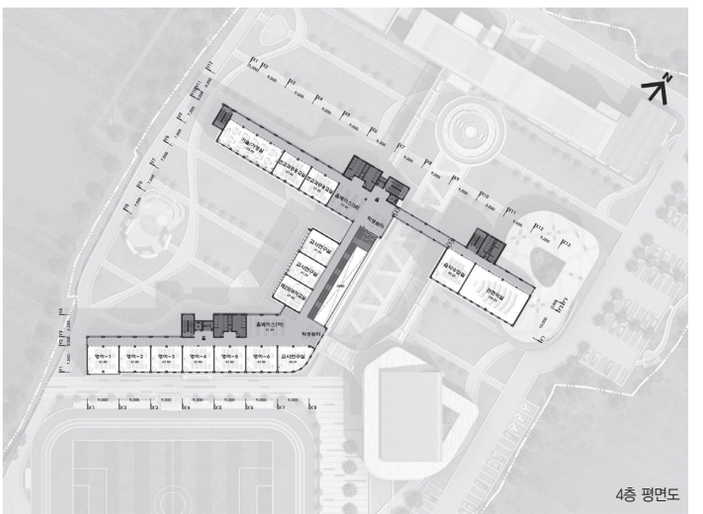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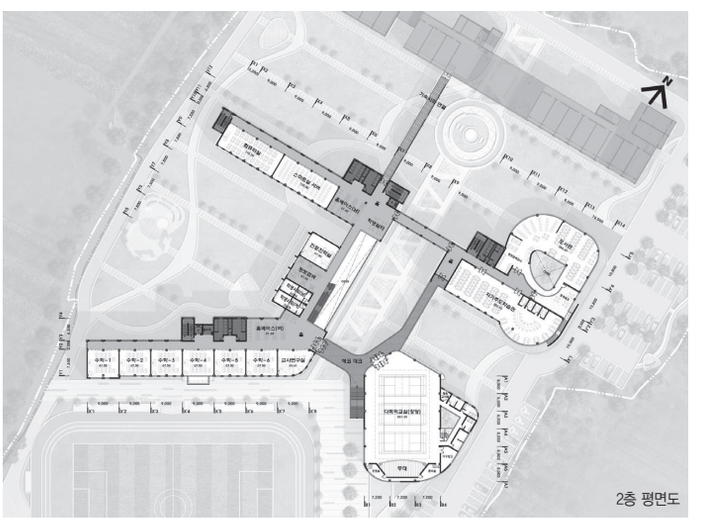

좌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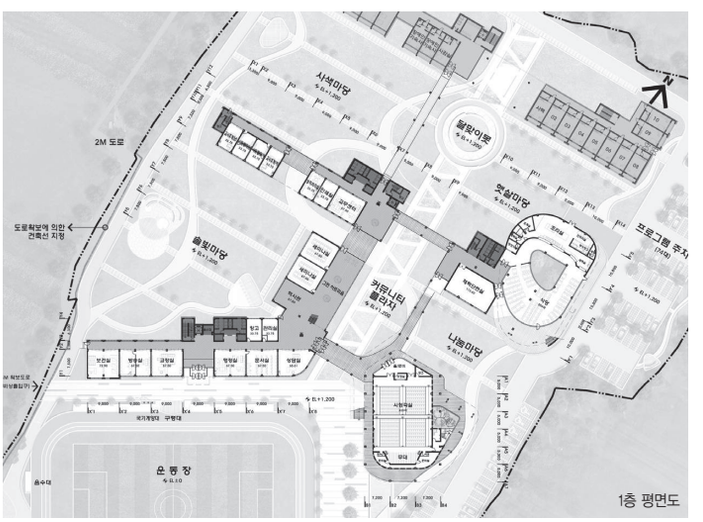

우측면도


종단면도


횡단면도


4층 평면도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무안고등학교 _우수작

MUAN HIGH-SCHOOL

발주자 : 전라남도 교육청

설계자 : 양병범, KIRA | (주)유탑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설계팀 : 최재영(총괄), 채승훈, 임용훈, 전준홍
임지혜, 권태왕, 양영균, 유재영

대지위치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 성남1길 53번지 일원 외 37필지내
지역/지구	도시지역, 생산녹지지역, 도시계획구역
주요용도	교육연구시설
대지면적	29,634㎡
건축면적	5,900.41㎡
연 면 적	20,301.79㎡
건 폐 율	19.91%
용 적 률	65.43%
구 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일부 철골조(강당지붕)
규 모	교사동(지하 1층, 지상4층), 기숙사(자하1층, 지상7층) 연립사택(지상5층)
주요마감	알루미늄시트, 친환경합성목재, 로이복층유리, 점토벽돌

계획개념

마을숲 배운터 / 넓은 들판의 나무그늘… 늘 아래서 휴식과 담소를 즐기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며 아낌없이 주는 나무를 닮은 학교를 꿈꾼다.

넓게 펼쳐진 들판의 바람결을 느끼며 자연과 소통하고, 학생과 교사가 함께하는 학습공간에서는 즐거운 교류가 있으며,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다양한 문화적 연결은 미래 백년의 주인공들에게 교육과 창의활동, 휴식과 만남이 있는 자연속의 배움터가 된다.

배치계획

교사동, 기숙사, 창의예술센터, 다목적강당을 크게 스쿨존과 커뮤니티존으로 구분하여 유스가든(중정)을 중심으로 각 시설이 독립적이면서 긴밀히 연계되도록 계획 했으며 교사동과 기숙사는 자연축과 도시축을 기준으로 남향배치 자연채광이 유리하게 계획 하였다. 또한 체육, 산책, 교육, 휴식 등의 다양한 기능의 외부공간을 건물에 인접 배치하여 학습 및 교류와 체험의 장이 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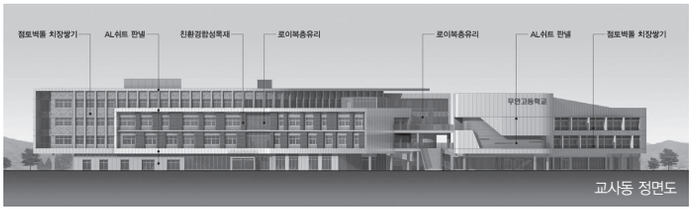
평면계획

지상 1층에는 교무행정, 상담, 커뮤니티, 편의시설을 기능별로 구분하여 시설의 운영 및 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각 진입방향에 따라 통경축을 설정하여 이동시 공간의 개방감을 부여 하였다.

또한 지상 2층부터 4층까지는 교사영역으로, 홈베이스를 중심으로 이론교실군과 실습형 교과교실군을 분리 계획하여 최단거리의 이동거리 및 명확한 교과블록의 형성토록 계획 하였다. 특히 교과교실의 동선을 따라 커뮤니티 데크와 러닝카운터 등을 계획하여 자연을 조망하는 사색과 교류공간을 제공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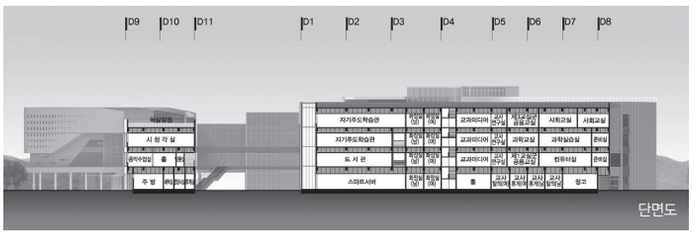
기숙사동과 사택은 대지 후면에 배치하여 독립성을 확보하고 기숙사와 교사동, 식당, 창의예술센타등을 잇는 오픈데크를 계획하여 이동동선을 확보 하였으며 기숙사의 중심에 공동 시설을 배치하여 남녀 기숙사를 분리 계획하고, 이곳에 공간의 가변성을 부여하여 향후 남,여 학생비율의 변화에 대처가능토록 계획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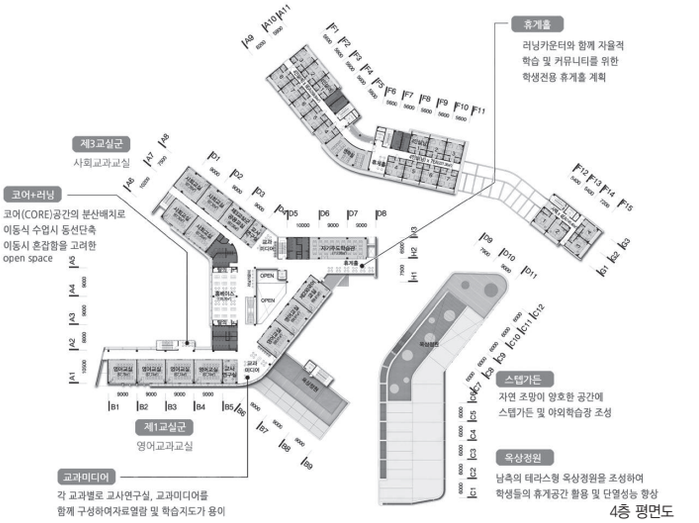
메인터
(야외공연장)
기숙사
체육공원
(놀이공원)
야외극장
놀이터
시계탑
교사동
운동장 정면
YOUTH하우스
교사동
창의인성센터
영어학습장
3M 도로
운 동 장
대형버스
주차
주차장
주차장~81대 (장애인주차 2대 포함)
6M 도로
N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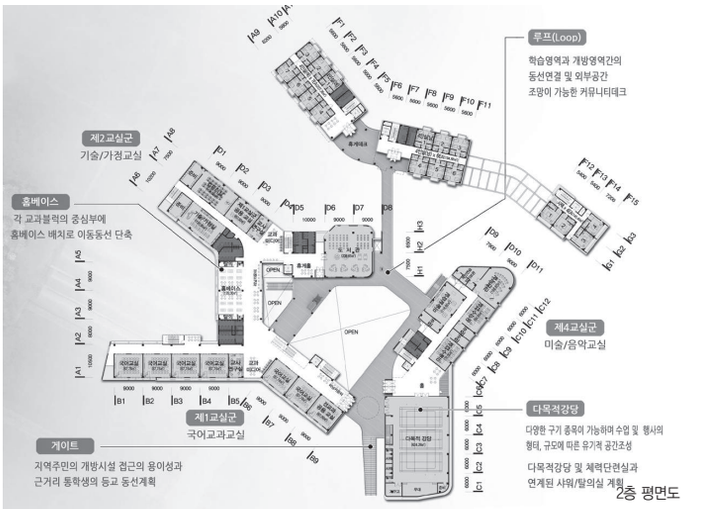

점토벽돌 치장쌓기
AL쉬트 판넬
친환경합성목재
로이복층유리
로이복층유리
AL쉬트 판넬
점토벽돌 치장쌓기
무연고등학교
교사동 정면도

AL쉬트 판넬
점토벽돌 치장쌓기
친환경합성목재
점토벽돌 치장쌓기
AL쉬트 판넬
점토벽돌 치장쌓기
AL쉬트 판넬
교사동 좌측면도

칼라스판드럴 유리
AL쉬트 판넬
AL BAR
로이복층유리
점토벽돌 치장쌓기
친환경합성목재
AL쉬트 판넬
점토벽돌 치장쌓기
기숙사 정면도


D9
D10
D11
P1
P2
P3
P4
P5
P6
P7
P8
단면도


휴게홀
러닝카운터와 함께 자율적
학습 및 커뮤니티를 위한
학생전용 휴게홀 계획
제3교실군
사회교과교실
코어+러닝
코아(CORE)공간의 분산배치로
이동식 수업시 동선단축
이동시 혼잡함을 고려한
open space
스텝가든
자연 조망이 양호한 공간에
스텝가든 및 야외학습장 조성
옥상정원
남측의 테라스형 옥상정원을 조성하여
학생들의 휴게공간 활용 및 단열성능 향상
제1교실군
영어교과교실
교과미디어
각 교과별로 교사연구실, 교과미디어를
함께 구성하여자료열람 및 학습지도가 용이
4층 평면도


루프(Loop)
학습영역과 개방영역간의
동선연결 및 외부공간
조망이 가능한 커뮤니티데크
제2교실군
기술/가정교실
홈베이스
각 교과블럭의 중심부에
홈베이스 배치로 이동동선 단축
제4교실군
미술/음악교실
다목적강당
다양한 구기 종목의 가능하며 수업 및 행사의
형태, 규모에 따른 유기적 공간조성
다목적강당 및 체력단련실과
연계된 샤워/탈의실 계획
제1교실군
국어교과교실
게이트
지역주민의 개방시설 접근의 용이성과
근거리 통학생의 등교 동선계획
2층 평면도

상담영역
학생들의 신체적/정신적
상담영역 조성
커뮤니티연계
동아리방을 중정과 연계배치하여
지역주민과의 커뮤니티영역 형성
편의영역
교사동과 기숙사동에서의
접근을 고려한 식당 배치
교무행정분리
교무영역과 행정영역을
분리 배치하여
관리운영의 효율성 증대
커뮤니티영역
지역주민을 위한
체육시설인 다목적 강당과
체력단련실의 동선 연결
1층 평면도

청주시 목련공원 봉안당 _당선작

THE CHEONGJU MUNICIPAL CINERARIUM

발주자 : 청주시

설계자 : 이재삼, KIRA | (주)팀텐 건축사사무소
설계팀 : 홍찬기, 박광성, 김준호

전문기술협력
- 전기 · 통신 설비분야 : (주)미래이엔지
- 기계설비분야 : (주)미래이엔지
- 토목분야 : (주)정민지오테크
- C.G : C2K solu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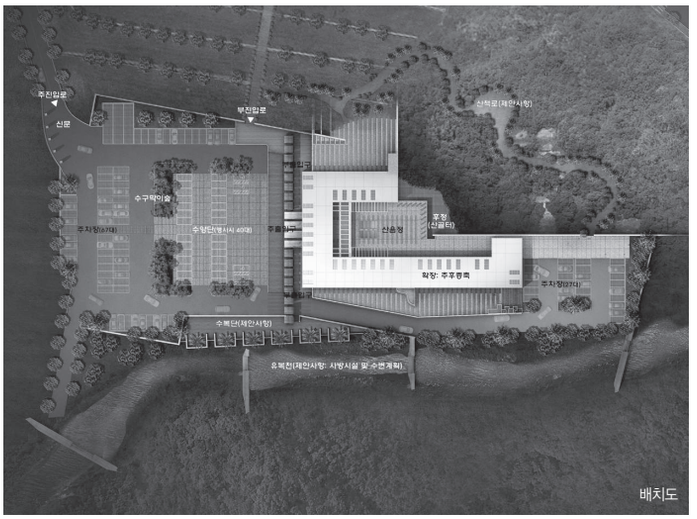
대지위치	청주시 상당구 월오동 4번지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공원시설 및 기타공원시설)
주요용도	묘지관련시설
대지면적	37,400.00㎡
건축면적	1,722.75㎡
연 면 적	3,672.74㎡
건 폐 율	4.61%
용 적 률	9.82%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규 모	3층
주요마감	세라믹루버+화강석, 화강석혼드+화강석물갈기

건물은 세우기보다 혼이 영면할 수 있는 터를 잡는 일(The Foundation of Fengshu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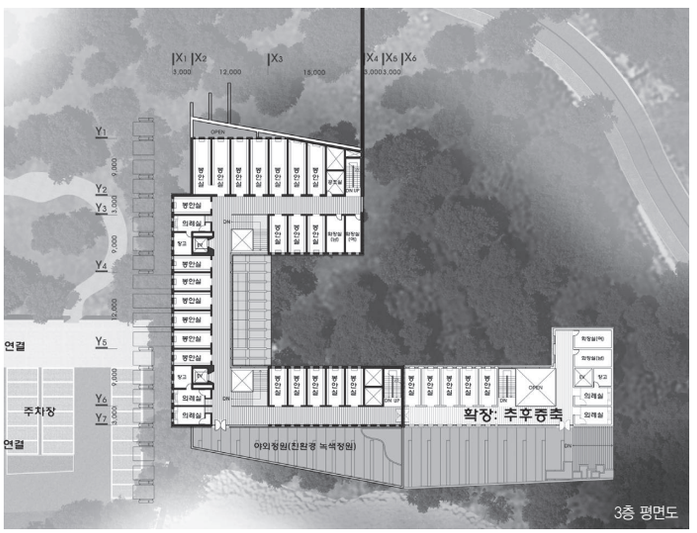
종묘, 조선 역대 왕의 신주를 모신 곳이다.
외대문을 지나 망묘루와 같은 작은 전각들을 보면서 계절에 맞추어 옷을 갈아입은 숲길을 걷다보면 신문과 칠사당으로 둘러싸인 종묘 정전에 이른다. 걸어오는 내내 마음은 평화롭고 엄숙하다.

터의 기운으로 생성된 하나의 공간에서 자연스레 삶과 죽음의 공간이 다름을 무의식적으로 느낀 것이다. 죽은 자를 기억하므로 산 자의 삶이 충만해 지는 정신적 작용이 종묘의 과정적 공간에는 녹아있다. 정전이나 영녕전을 조우할 때 느끼는 완벽한 엄숙함은 외대문 이후 여러 단계의 공간 질서에 따라 중화되고 고조된다.
종묘에서 각각의 마당과 건물들은 하나로 연결되어 죽은 자를 기억하기 위한 상징적 건축 공간을 완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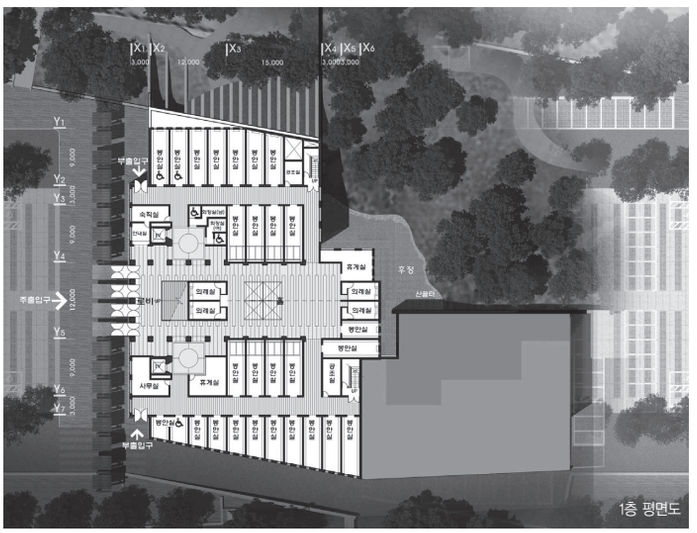
청주 시립 봉안당 또한 이와 다르지 않다.
따라서 건축 계획은 건물 뿐 아니라 물과 바람, 빛, 뜰(마당), 길(접근로)을 포함한 여러 공간요소를 조화롭게 배치하여 삶과 죽음의 경계를 초월한 정신적 교감이 구현되어야 한다. 유골을 보관하는 물리적 기능뿐 아니라 사자를 추모하고 영혼이 영면할 수 있는 터를 잡는 일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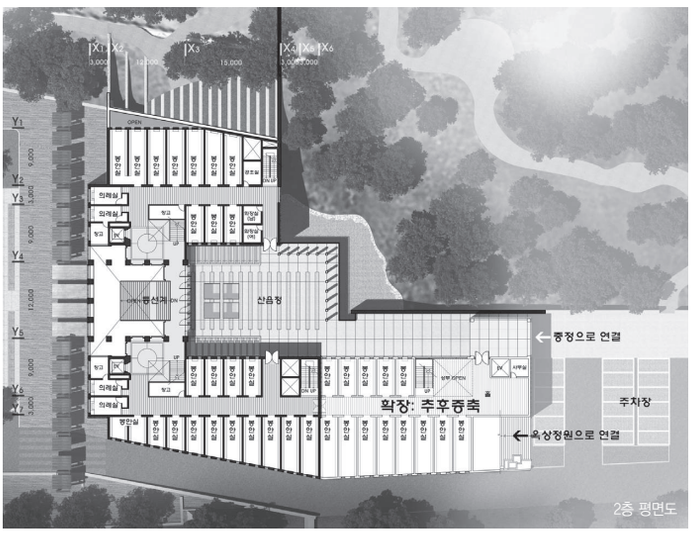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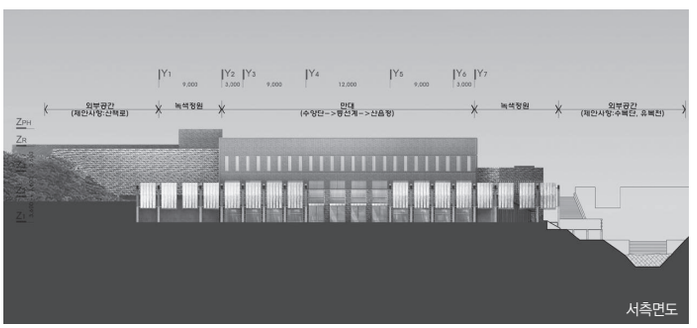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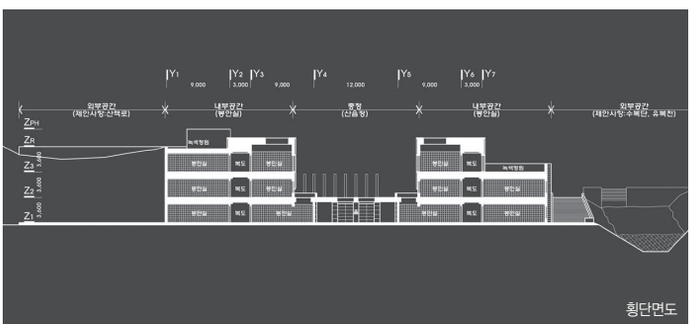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서측면도



횡단면도

청주시 목련공원 봉안당 _우수작

THE CHEONGJU MUNICIPAL CINERARIUM

발주자 : 청주시

설계자 : 신창식 | 건축사사무소 신예건축
설계팀 : 허한, 최수정

전문기술협력

– 구조분야 : YN 파트너
– 전기 · 기계분야 : 한일엠이씨
– 토목분야 : 미림엔지니어링
– 조경분야 : ONL Design

대지위치	청주시 상당구 목련로 752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공원시설 및 기타공원시설)
주요용도	묘지관련시설
대지면적	37,400㎡
건축면적	1,215.45㎡
연 면 적	3,544.58㎡
건 폐 율	3.25%
용 적 률	9.48%
구 조	철근콘크리트 구조
규 모	3층
주요마감	T30화강석, T24칼라복층유리, 목재루버

종묘에서 신주를 보관하는데 이용되거나, 중요한 물건을 넣어두었다는 한국전통의 요소인 궤(櫃)를 고인을 소중히 모시는 봉안당으로 형상화하였다. 이승과 저승, 방문객과 고인이 만나는 봉안당은 감정과 공간이 점진적으로 연결되는 '과정의 공간'으로 연계하였다.

첫번째 공간 – 정화의 언덕

- 정면 주진입 공간으로 정화의 의미인 수반 (수공간)과 낮은 경사로를 이용해 마음을 정화하며 봉안당으로 접근
- 수반의 물소리와 밝은 빛이 떨어지는 중정공간은 외부와 봉안공간을 자연스럽게 경계 짓고, 방문객은 깊이 있는 공간을 통해 마음을 정화

두번째 공간 – 리움길

- 각 층에서 봉안실로 이어주는 리움길은 정면 Facade에 한국전통창살문양(숫대살)을 형상화 하여 은은한 빛이 만들어내는 편안함속에 그리운 사람에 대한 추억을 떠올리며 고인을 만나는 공간으로 연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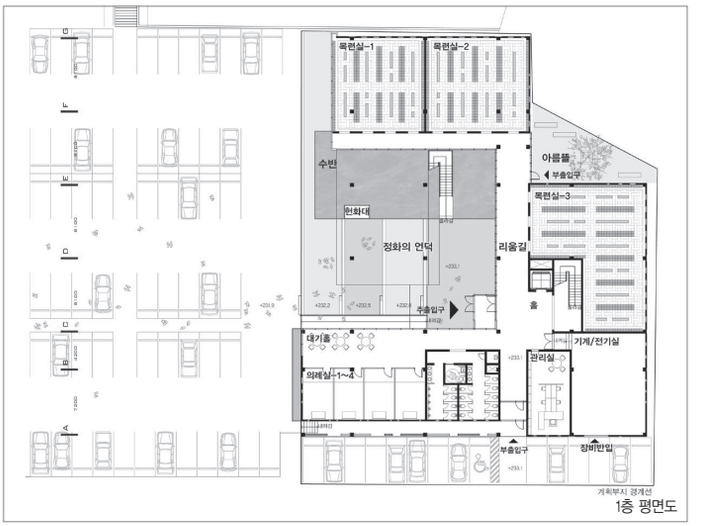
세번째 공간 – 목련실

- '과정의 공간'을 거쳐 고인을 대면하는 장소
- 목련을 형상화한 창으로 은은한 빛의 공간을 형성하고, 8단의 봉안위와 2.1m 폭의 참배공간에 벤치를 배치해 차분한 참배환경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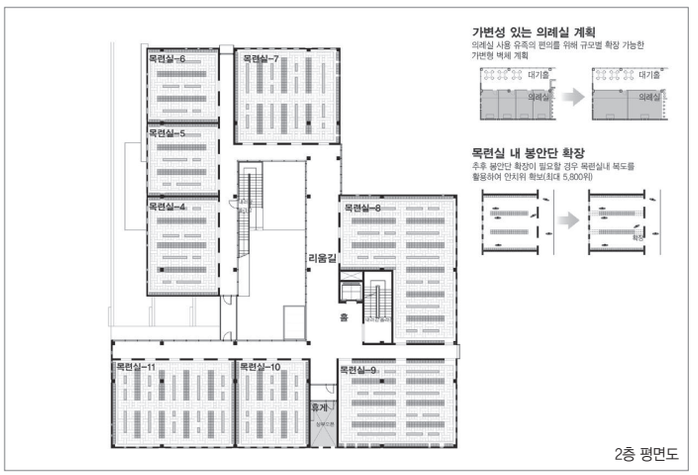
네 번째 공간 – 하늘정원

- 고인을 만난 참배객의 마지막 여정의 휴식공간으로 3층의 독립된 계단으로 연결
- 남쪽의 선도산 골짜기가 보이는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에 고인에 대한 기원의 공간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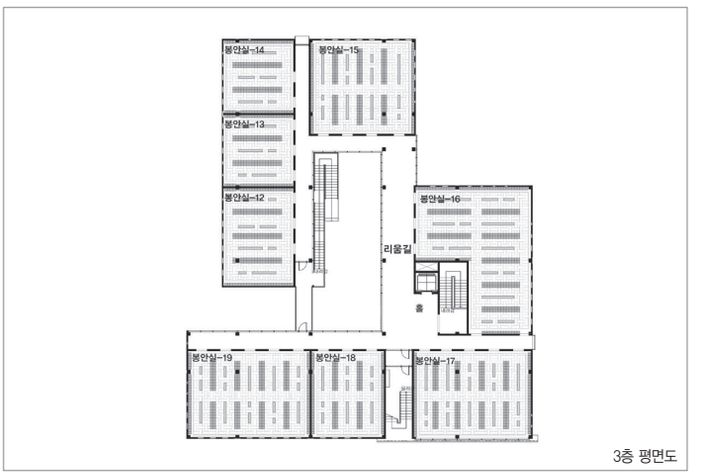
배치도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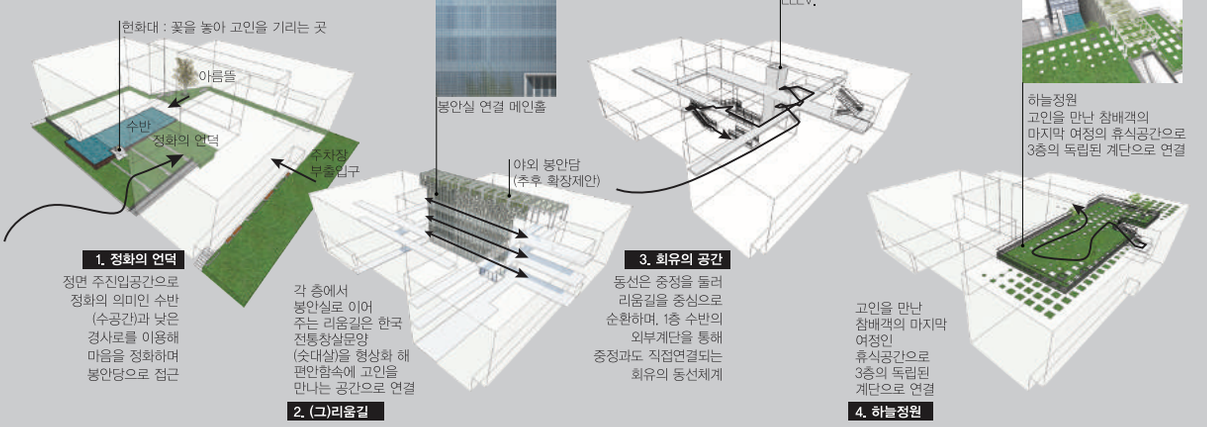


2층 평면도



3층 평면도

주요공간구성



1. 정화의 언덕

정면 주진입공간으로
정화의 의미인 수반
(수공간)과 낮은
경사로를 이용해
마음을 정화하며
봉안당으로 접근

2. (그)리움길

각 층에서
봉안실로 이어
주는 리움길은 한국
전통창살문양
(숫대살)을 형상화 해
편안함속에 고인을
만나는 공간으로 연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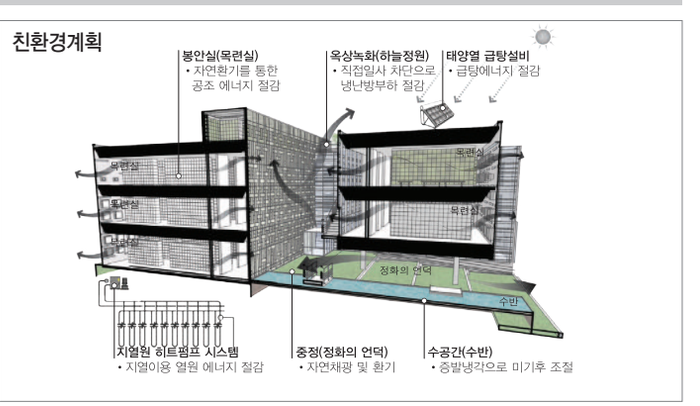
3. 회유의 공간

동선은 중정을 둘러
리움길을 중심으로
순환하며, 1층 수반의
외부계단을 통해
중정과도 직접연결되는
회유의 동선체계

4. 하늘정원

고인을 만난
참배객의 마지막
여정인
휴식공간으로
3층의 독립된
계단으로 연결

친환경계획



단지 내 공원, 공급안내서 명시는 고지의무이행이다

Posting park layout in a housing complex on its marketing booklet is obligated by law.

성승환 | 정부법무공단 변호사

1. 사안의 개요

(1) E기업은 2008년 아파트 단지를 건축하면서 고양시로부터 단지 내의 공공 보행통로와 공원 등을 주변지역 주민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았다.

(2) 분양을 맡은 ㈜한국자산신탁은 아파트 단지 내의 공원 등이 개방된다는 사실을 입주자 모집공고와 공급안내서에 명시했으나 분양계약서에는 이를 따로 기재하지 않았다.

(3) 김모씨 등 입주자들 180여명은 분양사인 ㈜한국자산신탁, 시공사 E기업 등을 상대로 "한국자산신탁 등이 아파트 단지 내의 공원 등을 24시간 개방하는 것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1인당 1,000만원씩 지급하라는 분양대금반환 청구소송(인지대 등 부담을 피하기 위해 우선 일부 액수만을 청구하였음)을 제기하였다.

2. 대법원 2012다41304 판결의 요지

(1) 원심은 "분양계약서상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합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분양자의 목적물 인도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분양계약자의 분양대금 납부의무 등 계약 당사자들 사이의 권리의무에 관해 불명확한 사항을 합의로 결정할 수 있다는 취지이지 이를 들어 목적물인 아파트의 성질이나 상태에 대한 합의를 할 것을 예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면서 "분양계약서상 대지를 입주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한다고 규정한 것은 아파트 내 공공 보행통로와 공원 등을 24시간 개방하는 것과 양립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2) 원심은 "아파트를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통상 공급안내서를 통해 아파트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는 점에 비추어볼 때 김씨 등이 분양계약 체결에 이를 때까지 (공원개방 등이 개방된다는 사실이 고지된) 공급안내서를 전혀 교부받지 못하였다는 것은 거래의 관행상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공급안내서뿐만 아니라 E기업과 고양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에도 공원을 개방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 E기업 등의 고지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3) 아파트 단지 내 공공 보행통로나 공원 등의 24시간 개방은 분양사 등이 입주자들에게 고지하여야 할 의무의 대상이 되는바, 한국자산신탁 등이 그 고지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본 원심은 타당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다.

3. 판례 평석

(1) 위 대법원 판결은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공원 등을 외부인에게 개방한다는 내용이 분양계약서에는 없더라도 입주자 모집공고와 공급안내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아파트 분양회사 등은 고지의무를 이행한 것이므로 입주자는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

(2) 위 판결은 공급안내서 등에 기재된 내용이 분양계약서와 양립할 수 있는 상황에서 고지의무를 다하였기 때문에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만약 분양사가 분양계약을 위반한 경우라면 입주자가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분양사를 상대로 계약취소를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다.

(3) 위 판결에 비추어 앞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하려는 사람은 분양계약서뿐만 아니라 공급안내서, 분양 모집공고의 내용도 꼼꼼하게 확인하고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협회소식

제10회 이사회

2012년도 제10회 이사회가 지난 10월 10일 오후 2시에 우리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협의사항으로 APEC등록건축사제도 운영의 건, 2012 일본건축가협회(JIA) 전국대회 참가의 건, 건단련 체육대회 상해직원 위로금 지급의 건, 한옥관련 책자 발간에 관한 건이 논의됐으며, 부의안건으로 건축사교육원 운영규정 제정의 건, 2014 대한민국건축사대회 주관건축사회 선정의 건, '건축설계시장의 현황 진단을 통한 개선방안 연구' 용역 승인의 건이 논의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APEC등록건축사제도 운영의 건
  - 현행대로 협회에서 운영하되, 내년부터는 건축사등록원에서 관리토록 업무를 이관하기로 함.
- 제2호 : 2012 일본건축가협회(JIA) 전국대회 참가의 건
  - 회장에게 위임함.
- 제3호 : 건단련 체육대회 상해직원 위로금 지급의 건
  - 해당 직원에게 위로금 2백만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건설단체총연합회에도 지원금을 요청하기로 함.
  - 임직원이 참여하는 공식행사에 대해서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하기로 함.
- 제4호 : 한옥관련 책자 발간에 관한 건
  - 책자 발간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수요예측과 예산 확보가 문제이므로 내년도에 사업예산을 확보한 후 추진하기로 함.

▲부의안건

- 제1호의안 : 건축사교육원 운영규정 제정의 건
  - 운영규정 제정(안) 중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보완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승인함.
    - ▷ 제4조(업무) 제4항 '기타 필요한 교육' ⇒ '기타 교육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 ▷ 부칙제2조(업무의 관리) 교육원장은 교육원의 사무처장을 별도로 두지 않고 협회의 사무처장에게 사무를 총괄시킬 수 있다. (신설)
- 제2호의안 : 2014 대한민국건축사대회 주관건축사회 선정의 건
  - 2014 대한민국건축사대회 주관건축사회 선정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구성키로 하고, 선정권한을 위임함.
    - ▷ 소위원회 구성 : 회장, 이각표, 강석후, 서용주, 최남수 (5인)
    - ▷ 소위원회 개최 : 이사회 회의 종료 후 10일 이내
  - 행사예산 절감 및 행사 내실화 방안 등에 대하여 유치 신청 건축사회(인천 · 경북)에 보완을 요청하기로 함.
- 제3호의안 : '건축설계시장의 현황 진단을 통한 개선방안 연구' 용역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하되, 과업내용을 일부 보완하여 시행하기로 함.

▲기타사항

-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공건축가 제도가 우수 사례로 벤치마킹되어 다른 시도로 확산되고 있으나, 건축사가 배제되고 교수나 다른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건축사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강구해 주도록 요청함.
- 협회 재입회에 따른 입회비 감액과 입회비 분할 납부방안 등에 대하여검토해 줄 것을 요청함.
- 준회원에 대한 자격 관리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함.

위원회 개최 현황

■ 제4회 건축사등록원 운영위원회

제4회 건축사등록원 운영위원회 회의가 지난 9월25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건축사 실무교육 인정 및 인정절차의 건
  - 협회행사의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이 아닌 등록원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인정하기로 함.
  - 비회원의 행사 참석 시 실무교육으로 인정하고 교육원에서 정하는 교육비를 부담하게 하기로 함.

– 자기계발과 전문교육의 인정시간은 교육원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논의하지 않기로 함.

• 제2호 : 건축사 실무교육 인정신청 관련 설명회 개최의 건

– 건축사 실무교육 인정신청 관련 설명회는 2012년 10월 15일 10시에 개최하기로 함.

▲기타사항

가. 건축의 날 행사참여 자기계발 인정의 건

– 건축학회에서 요청한 대로 걷기한마당, 건축의 날 기념행사 참여는 건축사 실무교육 중 자기계발과정으로 각각 1시간씩을 인정함.

나.협회 전산시스템 관련 검토 및 점검의 건

– 협회 내 전반적인 전산시스템에 대한 검토 및 점검을 위한 용역을 시행하기로 하고 그 비용은 등록원에서 부담하기로 함.

다.시험팀 예산 등 점검의 건

– 시험팀 예산 등 점검에 대한 사항은 추후 예산심의시 이사회에서 거론하기로 함.

라.운영위원회 간사 지정의 건

–「건축사 실무교육 업무처리기준」제13조의2 제5항에 따라 간사는 최동일 실장직대를 지명함.

마.APEC 등록건축사위원회에 관한 건

– 먼저 APEC 등록건축사 위원회의 논의과정을 거쳐 이사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논의하기로 함.

■ 제4회 건축위원회

제4회 건축위원회 회의가 지난 8월29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공공기관 건축설계 및 감리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건의의 건

–「공공기관 건축설계 및 감리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건의」에「학교시설사업 촉진법령」을 검토한후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정리키로 함.

▷「학교시설사업 촉진법령」에서 설계 · 감리 관련 내용을 발췌하여 삽입

▷「학교시설사업 촉진법령」의 2007.12.21 제4조 전문개정과 2008.3.21 제5조의2 개정취지를 조사 · 정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령」에서 건축사 고용 시 건축사의 업무를 할 수 있다는 근거를 찾아 정리

–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면제기관 삭제와 관련하여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의원입법 등을 통한 법 개정을 모색하는 방안이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하여 건축사법을 개정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이메일을 활용하여 위원들의 의견을 교류하고 보완하여 회장에게 제출키로 함.

• 제2호 : 용역발주제도 개선의 건

– 용역발주제도와 관련하여 건축위원회 위원이 수행했던 용역 등 용역발주 과정에서 부당공고 · 계약 등의 사례를 수집하여 사무처에 자료를 송부하기로 함.

▲기타사항

• 건축사 민간업무의 대가산정방법 마련을 위한 연구계획(안) 자문의 건

■ 제5회 건축위원회

제5회 건축위원회 회의가 지난 9월19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공공기관 건축설계 및 감리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건의의 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 · 도교육청은 지방자치단체에 속함으로「건축사법」제23조제8항제3호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면제기관에 속함. 그러므로 교육청 소속 건축사의 교육청발주사업의 감리 업무 수행과 관련한 건의는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고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면제기관 삭제 건의를 진행하기로 함.

–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면제기관 삭제와 관련하여 다양한 관계부처와 연계되어 있고, 법 개정이 쉬운 일이 아니므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님. 또한 관련 증빙자료 수집에도 한계가 있음

–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면제기관 삭제 건의는 공공기관의 공공성 확보와 건축설계산업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함.

– 건축사법 개정을 위해서는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면제에 따른 문제점 및 실 사례를 수집하는 등 많은 준비를 해야 하며, 법 개정과 관련하여 진행시기의 조율이 필요함.

– 현재까지 건축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내용과 국가건축정책위원회 회의 내용 등 관련 사항을 건축위원회에서 회장에게 건의키로 함.

• 제2호 : 설계업무 대가기준 개선방안 연구의 건

– 이사회에서의 지적사항과 제4회 건축위원회에서 자문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음

– 설계업무 대가기준 연구의 목적과 이유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함

▷ 연구의 목적과 연구결과에 대한 활용방법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방안

모색이 필요
– 공공과 민간을 구분하지 않기 위해서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건축사업무대가기준'에 관한 연구로 진행 할 필요가 있음
– 인월수에 따른 대가, 요율 등 수치적인 결과물도 중요하지만 건축사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 · 방안에 대한 연구도 필요함.
– 건축사의 교육 및 계몽을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함.
– 설계비 산정방법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한 문제 분석
– 비교분석을 통해 적정한 방식은 무엇인가? 에 대한 방향제시 필요
☞ 건축사 민간업무의 대가산정방법 마련을 위한 조사연구용역 과업지시서를 건축위원회 위원들에게 이메일을 발송하고 이메일을 통한 의견수렴 후 이사회에 상정키로 함.

▲기타사항
• 건축설계 표준계약서 선진화방안 연구계획서(안) 검토의 건
– 표준계약서의 선진화는 당연히 필요한 연구이나, 대가기준과 연동되지 않고서는 효용성이 떨어질 수 있음.
– '12년 9월 26일 건축위원회에서 "건축설계 표준계약서 선진화방안 연구계획서(안)"을 검토하여 10회 이사회('12.10.10.)에 의견을 제출키로 함.

■ 제6회 건축위원회

제6회 건축위원회 회의가 지난 9월26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건축설계 표준계약서 선진화방안 연구계획서(안) 검토의 건
– AIA설계계약서처럼 설계유형별 다양한 계약서가 필요함
– 반드시 필요한 과제 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민간대가기준과 연계성이 필수적인바 민간대가기준이 없으므로 대가정립 없이 연구가 이루어지는 것은 맞지 않음
• 제2호 : 설계업무 대가기준 개선방안 연구에 관한 건
– 연구 목적에 대한 정확하고 뚜렷한 설명이 필요함
– 이사회, 건축위원회에서의 제안을 근간으로 연구계획서 보완이 필요함
▷ 제4회 건축위원회의 내용과 제9회 이사회 부의 안건 논의 내용을 반영하여 보완하고, 계획서에 반영여부 및 향후 연구에 반영계획 등을 수립해야 함.
▷ 보완된 연구계획서를 건축위원회 위원들에게 e-mail로 회람하고 위원들은 수정 및 보완사항을 기록하여 연구계획서를 정리하기로 함.
– 건축사사무소의 설계용역비를 결정하는 등 직접적인 대가기준 제시와 같은 방식의 연구로 진행될 경우 법률적 문제에 대비한 방안이 제시되어야 함.

• 제3호 : 기타사항
– 용역발주 제도개선의 건
▷ 입찰공고, 현상설계, 저작권 등 용역발주제도의 문제 사례자료를 문석준위원, 김광일위원, 임정영위원이 준비하여 협회로 송부하기로 함.
▷ 또한 협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존 문제의 사례는 협회에서 발췌하고 준비된 자료를 정리하여 다음 회의 시 회의자료로 활용하기로 함.
• 다음 회의는 10월 17일(수요일) 오후 15시에 개최키로 함.

■ 제9회 법제위원회

제9회 법제위원회 회의가 지난 9월 5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대지안의 공지 관련 건축법 개정 건의의 건
– 국토부는 관련 건축법령의 조속한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협회는 국토부에 적극 협조하기로 함.
• 제2호 :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의 건
– 운영지침(안)을 각 위원이 검토하고 사무처가 정리하여 위원장 확인을 받아 국토부 담당부서와 협의 및 건의하는 것이 필요함.
• 제3호 : 공공기관 대가기준 적용요청 관련 공문 검토의 건
– 사무처에서 수정하고 위원장이 확인 및 보완하여 담당부서에 전달하기로 함.
• 제4호 :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의 건
– 기존 협회의견을 사무처에서 검토 및 보완하여 위원장 확인을 받아 국토부에 제출하는 것이 필요함.

▲기타사항
① 유지관리점검 세부기준 및 매뉴얼에 관하여
② 건축법령 개정안 재입법예고 추진현황에 대하여

■ 제3회 전통건축 TF

제3회 전통건축 TF 회의가 지난 9월11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한옥관련 책자 발간의 건
– 한옥관련 책자 발간 취지, 한옥책자의 구성, 책자 발간 계획,

작품선정, 수록내용, 좌담회, 예산, 한옥 D/B 등의 내용을 논의함

• 제2호 : 세미나 또는 학술토론회 개최의 건

– 2012 대한민국 건축사대회

▷ 광주사무국과 연락하여 장진영 건축사가 Tour프로그램을 수립.

– 제7회 한국건축산업대전(KAFF 2012)

▷ 이봉수위원이 세미나와 관련하여 정리한다. 정리가 완료되면 사업위원회와 협의하여 정리.

▲기타사항

• 다음회의는 10월 9일(화요일) 14시에 개최하기로 함.

■ 제10회 리모델링 TF

제10회 리모델링 TF 회의가 지난 9월19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주택법 리모델링 관련 내용 검토의 건

– 리모델링 감리

▷ 리모델링의 특성상 설계자가 시공과정 끝까지 감리를 하여야 함.

리모델링 공사의 설계자 감리 지정 방안
– 사후설계 보장 : 리모델링에서는 사후설계가 없을 수 없음으로 사후설계 업무 및 업무의 대가 보장 – 감리자 선정 입찰과정에서 전차 용역자 가점 방식

▷ 건축산업대전 주제발표에서 감리지정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

▷ 리모델링 공사의 설계자의 감리에 참여 방안에 대하여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함.

• 제2호 : 제7회 한국건축산업대전 주제발표 중간 점검의 건

– 2012 한국건축산업대전 연계 건축사 리모델링 주제발표 계획

▷ 사회 : 김승욱 위원

▷ 일반건축 리모델링 : 서태근 위원(주제발표), 라상학 위원, 이정용 위원

▷ 공동주택 리모델링 : 박세희 위원(주제발표), 최재윤 위원, 김승욱 위원

– 2012 한국건축산업대전 연계 건축사 리모델링 주제발표 일정

▷ 일반건축물과 공동주택을 약 20분씩 발표하고, 20여분간 질의 응답시간을 진행.

▷ 10. 25.(목) 13시 발표는 대한민국건축사대회로의 이동 일정을 고려하여 취소하고, 10. 24.(수) 11시 발표만 진행함.

▷ 리모델링 교육자료는 교육팀 일정을 확인하여 교육자료 제작 일정에 맞추어 제공함.

※ 실무교육팀에서는 교육자료의 편집, 인쇄 등의 기간을 고려하여 10. 5.까지 자료제출을 요청 함.

– 2012 한국건축산업대전 연계 건축사 리모델링 주제발표 주요내용

▷ 리모델링의 정의, 법조문, 사례, 사례별 문제점 분석, 리모델링 제도 및 법 추진 방향에 대한 제안 등의 주제로 발표 준비

▲기타사항

• 다음 회의는 10월 24일(수요일) 오전 11시에 개최키로 함.

■ 제7회 친환경 TF

제7회 친환경 TF 회의가 지난 9월19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하위법령의 건

– 국토부에서 주최하는 공청회(9.27)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

① 동법령 제정의 취지에 공감, 건축법의 용어와 내용 일치 검토

② 에너지평가사 자격기준에 건축사 포함, 또는 시험과목에서 건축사는 건축분야 과목 면제

③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에 연면적을 냉 · 난방시설을 설치한 바닥면적의 합계로 수정 필요

④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에 일부증축인 경우 제외

• 제2호 : 친환경 심포지엄의 건

– 사회자는 조병섭 위원, 토론자는 이기완 위원으로 하기로 하며 '녹색건축과 건축사의 역할' 발표는 전영철 전이사에게 요청하기로 함

■ 제4회 회원권익보호위원회

제4회 회원권익보호위원회 회의가 지난 8월29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공공기관발주 설계 용역비의 정상화 방안에 대한 이사회 회의결과에 따른 대처 방안의 건

– 공공발주사업의 설계 및 감리 대가에 관한 문서를 이사회 협의 내용에 따라 협회 법제위원회 검토를 거친 후 9월 15일까지 공공기관(지자체 및 교육청)에 발송하기로 함.

– 이와 관련한 내용을 건축문화신문과 각 시 · 도건축사회에

공지하고, 협회 홈페이지에 송기선 위원이 작성하여 게재하기로 함.

• 제2호 : 저작권 침해에 대한 위원회 결의 방안의 건
– 건축사의 의견을 각각 들어본 바, 정경수 건축사가 실제 설계를 했으며, 이기수 건축사도 정경수 건축사가 실제 설계자임을 인정하였으므로 건축물대장 등 관련서류에 정경수 건축사를 설계자로 정정 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므로, 이기수 건축사에게 설계자 성명 변경에 대하여 최대한 협조하고 기한 내에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건축사회 윤리위원회에 우리위원회 명의로 회부할 것임을 신상일 위원이 초안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통지하기로 함.

• 제3호 : 인테리어 업무 범위 및 대가 기준 처리 방안의 건
– 인테리어 업무 범위가 건축사의 업무 범위를 침범하는 것에 대한 문서를 김지한 위원이 초안을 작성하여 실내건축가협회(소속 지부 포함)에 문서로 발송하기로 함.

• 제4호 : 건축신고 및 업무대행 수수료의 건
– 건축신고의 경우 유사명칭 사용 등 사건별로 검토 후 적극 대응키로 함.
– 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건은 차기 회의 시 논의하기로 함.

• 제5호 : 면허 대여 문제에 대한 대응의 건
– 추후 논의하기로 함.

• 제6호 : 면허대여사건(원주)에 대한 논의의 건
– 추후 논의하기로 함.

• 제7호 : 사건의 인지를 위한 신문매체 활용의 건
– 추후 논의하기로 함.

■ 제5회 회원권익보호위원회

제5회 회원권익보호위원회 회의가 지난 9월24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공공기관 발주 설계 용역비의 정상화 방안의 변경 정리의 건
– 공공기관에 공문이 발송될 수 있도록 ①위원장이 회장님과 면담하기로 하고, ②시 · 도 회장단의 의결이 필요하다면, 공문으로 시 · 도회장단의 서명을 받아 처리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하기로 함.

• 제2호 : 건축 신고 및 업무 대행 수수료의 건
– 각 지역마다 수수료가 다르므로 우리위원회에서 수수료에 대한 절충안을 세워 권장하는 문서를 초안 작성하여 다음 회의 시 협의하고, 각 시 · 도건축사회에 통보하기로 함.

• 제3호 : 인테리어 업무 관련 대응의 건
– 인테리어 업무와 관련하여 김지한 위원이 초안을 작성하여 차기 회의 시 논의하기로 함.

• 제4호 : 공공기관 발주 설계 용역비의 정상화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 논의의 건
– 제1호 안건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공문이 시행된 후 관련내용(송기선 위원이 작성)을 건축문화신문 등에 게재하여 회원들에게 홍보하기로 함.

• 제5호 : 저작권 침해에 대한 윤리 위원회 회부 관련의 건
– 제4회 회의결과에 따라 신상일 위원이 작성해 온 내용을 해당 건축사(정경수, 이기수 건축사)에게 회장명으로 공문 발송하기로 하고, 기한 내에 조치되지 않을 시 공문 내용에 따라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함.

• 제6호 : 면허 대여 문제 (원주)에 대한 대응의 건
– 면허 대여에 관한 정식 내용이 접수되면 고발장 초안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서 논의한 후 회장 승인을 받아 고발하기로 함.

▲기타사항

• 정책위원회의 요청사항은 우리위원회에서 공공기관에 발송하는 공문내용의 세부사항으로 이번 문서에는 포함시키지 못하고, 추후 논의하기로 함.

• 차기 회의는 2012. 10. 15(월) 오후 4시에 개최키로 함.

■ 제6회 정책위원회

제6회 정책위원회 회의가 지난 9월19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정책토론회 개최계획의 건
– 오늘 논의한 사항을 토대로 소위원회에서 세부적인 계획안을 마련하기로 함.
▷ 이사회에서 논의된 대로 토론회는 1회로 하고 참석범위는 확대 (국건위, 국회, 국토부, 학회 등 초청장 발송)
▷ 유관단체와의 공동개최보다는 협회 독자적으로 주관하여 진행
▷ 주제는 건축설계경쟁력 향상, 건축문화진흥, 국가건축정책 방향으로 논의
▷ 발표자, 토론자는 주제에 맞게 조정
▷ 개최일자는 대선등록일(11월 26일) 이전에 개최(11월 중순 정도)
▷ 장소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관가능 여부에 따라 조정

▲기타사항

• 10월 15일 회의안건(3가지)
– 정책토론회 개최계획의 건, 대한건축사협회 협의회 구성 · 운영방향의 건, 건축사공제조합 운영개선의 건

• 차기 회의 이전까지 위원들이 각 지역의 건축사공제조합 운영에 관한 문제점을 조사해 오기로 함.

■ 제5회 정책소위원회

제5회 정책소위원회 회의가 지난 9월26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정책토론회 개최계획의 건

– 정책토론회 개최계획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협의함.

▷ 토론회 기본 방향

: 토론회는 정책제안을 하는 방향으로 하고 범건축계를 대변하고 대외적인(정치권) 설득력을 위해서는 주최를 대한건축사협회로 하고 FIKA를 주관단체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협의가 필요할 것임.

▷ 토론회 준비는 정책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주도적으로 진행하되 가협회 및 건축학회 인사 각 1명을 더 충원하기로 함.

: 최남수 이사가 건축학회 이재훈 교수, 가협회측 인사 1명을 차기 회의에 참여토록 요청

▷ 토론회 주제는 각 단체에서 한 가지 주제를 선정하여 발표하는 것으로 함.

▷ 개최일시 및 장소는 정치권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국회헌정기념관으로 하고 11월중 대관가능일자를 파악하여 일정을 결정하기로 함.

▷ 다음 회의는 10월 첫째 주에 개최하기로 함.

• 제2호 : 2012 대한민국건축사대회 건축사비전 선포문 작성의 건

– 다음 회의까지 위원장 및 위원들이 초안을 작성하여 협의하기로 함.

■ 제3회 회관관리위원회

제3회 회관관리위원회 회의가 지난 9월6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대강당 환경개선공사 건

– 조명개선은 150WHQI(투광기) 92개만 교체하는 것으로 하되 조명의 품질에 역점을 두어 추진함.

– 스크린과 프로젝터 개선건은 좌우측스크린은 교체하고, 중간부는 프로젝터만 교체하기로 함.

• 제2호 : 회관 외부간판 시안 협의 건

– 1안은 기존간판위치의 상부의 공간에 흰색의 글씨만 고딕체로 설치하되 영문은 우측하단부에 설치하는 것으로,

– 2안은 기존의 설치위치, 기존형태(모양, 글씨체 등)에 따르며, 회색벽체에 로고 및 글씨만 시공하는 것으로 하되 영문은 1안과 같이 우측하단에 별도로 표기하는 것으로 함.

■ 제2회 건축영화제TF 소위원회

제2회 건축영화제TF 소위원회 회의가 지난 9월6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제4회 서울국제건축영화제 상영작 선정의 건

– 제4회 서울국제건축영화제 상영작을 다음과 같이 선정함

▷ 개막작을 Ekumenopolis로, 폐막작을 Kochuu로 정함

1. 〈상계동 올림픽(27분)〉+〈5Cities 5Places 1Day(14분)〉를 공동상영하기로 프로그램중 이었으나, 상영시간이 너무 짧은 관계로 단편 다큐멘터리 〈모래(49분)〉를 넣어 프로그램을 편성하기로 결정함.

2. 상영 후보 작에 오른, 〈persepolis〉와 〈urbanisation in china〉 중 유영식 감독님이 스크리너 시청 후 택1 하기로 함.

3. 진진 배급사의 〈위대한 침묵〉을 이번 상영작에 넣는 조건으로, 진진 배급사 김난숙 대표님께 전화하여, 〈blade runner〉,〈brazil〉에 구체적인 수급협상 방법을 문의 드리고 도움 요청할 것. 또한 〈위대한 침묵〉의 러닝타임이 168분 이므로, 영화 시간표 배치 시 첫 번째와 마지막 상영작에 배치 할 것.

4. GV로 모시기로 했던 〈바람불어좋은날〉의 이장호 감독님의 스캐줄에 맞추어금요일 2회타임에 이장호 감독님 GV를 잡고, 시간표 재편성할 것.

5. 관객들에게 상영작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모든 상영작 시작 전에 PPT로 혹 은 영상으로 '왜 건축영화제에서 이 작품을 상영했는지, 관점 포인트는 무엇인지' 등 간략한 정보를 전달 한 후 영화를 상영하기로 함.

■ 제11회 건축영화제TF

제2회 건축영화제TF 회의가 지난 9월14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제4회 서울국제건축영화제' 시행의 건

– 제4회 서울국제건축영화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의 함.

▷ 스폰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므로 2차 예산안을 제작.

▷ 단상 및 리셉션 비용을 최소화, GV/HAF를 4꼭지로 줄여 금, 토, 일 에만 운영, 가로배너 개수를 줄이고, 영화제 기

간 동안 모더레이터는 봉사로 함.

▷ 초대권 낭비를 줄이기 위해 초대권은 나눠주지 않고 현장에 오면 배부하는 것으로 함.

▷ 한국건축가협회가 주최하는 대한민국건축문화제 포스터 형식에 맞춰 건축계가 함께하는 행사의 의미로 서울국제건축영화제 주최란에 'FIKA한국건축단체연합' 로고를 추가하기로 함.

▷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 표창수여 승인통보 공문회신이 왔으니, 엄태웅 소속사에 초청 공문을 보내기로 함. 엄태웅이 섭외가 안 될시 혜민스님, 김수로 순으로 섭외를 진행.

▷ 배급사와의 연락문제로 수급이 늦어지고 있는 SF영화 수급을 9/25일 까지 완료하며, 수급이 되지 않을 시에 수급 가능한 다른 영화로 대체하기로 함.

▷ HAF는 문화대상 수상자 4명 섭외 예정에 있으나, 수상결과가 발표되는 10월 25일 이후에 홍보 기사를 내는 것으로 결정.

■ 제9회 국제위원회

제9회 국제위원회 회의가 지난 9월7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2012년도 해외단체장 초청의 건

– ALACE 대표단 초청에 관해서는 예산 한도 내에서 ALACE 대표단 방문에 관해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로 협의함.

▷ 2011년도 본협회 대표단(회장 포함 10인) 라오스 방문

– 해외단체장 포럼 대신, KIRA-ASA, KIRA-ALACE 및 KIRA-ASC 회의를 각각 개최하여 효율적인 회의가 되도록 협의함.

– 2012년도 해외단체장 초청에 관해서는 자문위원 2인(김지덕, 이근창 자문위원)이 업무를 분담하여 지원하기로 하며, 참가 가능한 국제위원을 확인하기로 협의함.

• 제2호 : 제15차 아시아건축사대회 참가의 건

– 잼버리 참가학생 선발 방법을 포함한 일체를 담당 이사 및 위원에게 위임하도록 함(잼버리 참가 학생대표 선발에 관해서는 교육위원회 담당위원인 이윤석, 주범 위원과 국제담당 이사에게 일임하기로 협의, 제8회 국제위원회(8.3))

– 한국건축문화대상 계획부문 수상 학생 중, 한국건축문화대상 대상-우수상 수상자 순, 언어구사 능력, 연령순으로 선정하는 방안을 제안함

– 아시아건축사대회 잼버리 참가는 한국건축문화대상 수상자에게 주는 혜택 이므로 대상 수상자 선발을 우선하는 방안을 제안함

– 학생잼버리 논문발표에 선정된 1인에 대해 항공료, 등록비 등을 본협회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회장님께 건의하기로 협의함

– 건축물유지관리 관련 법령 내용과 경관계획에 관하여 국토해양부 건축문화경관팀 관계자가 아시아건축사대회에 참가하여 발표하는 방안을 제안함

– 친환경위원회 발표는 우리나라 Green Building에 관한 내용 발표를 제안함

– 아시아건축사대회 참가위원은 담당 발표자료를 사무국으로 속히 제출하도록 독려함.

□ 대표단 업무 분장(안)

회 의 참 가 (회의참석 담당 위원은 회의 전 보고서 / 회의 후 회의록도 작성)	
이 사 회 (Council)	공식대표(회장, 국제위원회 1인), 대표단
교육위원회 (ACAE) (학생잼버리 관련 업무 포함)	조인숙 위원장, 이윤석 위원
건축실무위원회 (ACPP)	신춘규 이사, 이승석 위원
친환경위원회 (ACGSA)	이근창 자문위원, 전성호 위원
사회책임위원회 (ACSR)	김성민 직전위원장, 임희선 위원
Fellowship 미팅	김지덕 자문위원
임원회의(OB Meeting)	–
보고서 작성	
KIRA Country Report	이사회 담당자
ARCASIA Center 건립	(위원장이 관계자와 확인 예정)
ARCASIA 홈페이지 운영	신춘규 이사
문화행사	
우정의 밤	임희선 위원
영상/사진	전성호 위원

• 제3호 : 제16차 한중일건축사협의회 참가의 건

– 2013년도 한중일건축사협의회를 '13.11월경에 개최되는 인천건축문화제와 연계하여 개최하는 방안 또는 문화제 방문일정을 협의회에 추가하는 방안을 제안함.

– 금일 논의사항을 바탕으로 2013년도 개최장소, 개최일시, 주제 및 회의 개최 시 본협회-인천건축사회 협력에 관한 사항을 금년 협의회 참가 전까지 논의하기로 협의함.

– 인천건축사회 건축사가 참여하는 방안을 제안함.

– 지금까지의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협의회에 참가하는 연사 또는 발표자가 담당 발표주제에 관한 자료를 준비하여 차기 회의에서 보고하기로 협의함.

□ 연사 및 발표자 논의결과

일자	시간	회의(세션) 주제	담당자/발표자
11.15 (목)	전일	한중일건축사협의회	
	08:20~08:50	1. 한중일건축사협의회 실무핸드북 발간 발표식 (주관 : JFABEA)	담당: 이승석 위원
	08:50~09:35	2. APEC건축사 제도 추진현황 ☞KIRA : 09:20~09:35 (15분)	김지덕 대한민국 PEC등록 건축사위원회 위원장, 조인숙
	10:00~11:00	3. 건설시장 감리, 건축실무행정, 건축사의 책임과 신뢰에 관한 논의 및 3국의 건축사 윤리 ☞KIRA : 10:30~10:45 (15분)	국토해양부 관계자(예정)
	11:10~11:30	4. JFABEA 제안에 관한 논의 · Young Architects를 위한 국제화 지원 프로젝트	조인숙 국제위원장
	13:30~16:50 (동시개최) 13:30~16:50 (동시개최) 13:30~16:50 (동시개최) 13:30~16:50 (동시개최) 13:30~16:50 (동시개최)	○ 회장단 회의 (Summit Meeting) 3국 공통 이슈 및 차후 협력방안 (Common interests and concerns of three organizations and future cooperation among three organizations) ☞KIRA : 14:00~14:15 (15분)	회장, 신춘규 국제이사, 전성호 위원
		○ 기술교류회의 (Technical Exchange Meeting)	조인숙 국제위원장
		주제 1. 국제적인 관광 섬 건설에 관한 아이디어 ☞KIRA : 14:00~14:30 (30분)	심형섭 위원
		주제 2. 건설에서의 자연재해 방지와 완화 ☞KIRA : 15:40~16:10 (30분)	서울시 관계자(예정)
		○ Community Architect 포럼 ☞KIRA : 14:00~14:30 (30분)	김지덕 자문위원, 오동희 위원
	18:20~18:50	차기회의 개최지 소개 (대한민국 인천)	인천건축사회 관계자, 인천광역시 관계자(예정)

▲기타사항

가. 2012년도 일본건축가협회(JIA) 전국대회 참가

– 회장 참가 시, 회장이 국제위원 중 적임자를 선정하여 참가하는 방안을 제안

나. 한국 에너지 전문가들을 위한 독일 산업 시찰 프로그램

– 관련 내용 홍보를 독려함 (본협회 홈페이지에 게재함)

다. 건축사지 원고 제목번역 담당위원 선정

– 이승석 위원 (국제위원 임기 기간 중 담당)

라. 베니스건축비엔날레

– 2014년도 참가예산 반영 및 본협회 참여방안을 모색하기로 협의 (금년에 한국건축가협회 대표단 참여)

■ 제1회 FTA 대책 T/F

1회 FTA 대책 T/F 회의가 지난 9월10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FTA 대책 TF 위원장 선임의 건

– FTA 대책 TF 위원장은 심재호 위원으로 결정 함.

• 제2호 : FTA 대책 TF의 향후 추진방향 설정의 건

– FTA 대책 TF의 기능과 역할은 계속해서 연구해 나가며 적립해 나가는 것으로 함.

▷ 워킹그룹 결성, MRA 범위 및 수준 검토, 국토해양부와의 조율 등의 역할을 함.

▷ 건축사자격상호인정을 대비하기 위한 정기적인 모임(월1회)을 갖으며, 각종 방안을 연구하여 TF의 기능을 자체적으로 정립해 나가기로 함.

• 제3호 : 국토해양부 건축사 MRA 작업반 대비 T/F 참석자 추천의 건

– 국토해양부 건축사 MRA 작업반 대비 T/F 참석자는 심재호 위원장, 조충기 위원, 조인숙 위원, 김지엽 위원 이상 4명을 추천하기로 함.

▷ FTA 및 국제업무에 많은 경험이 있는 심재호 위원장을 추천함.

▷ 현직 협회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조충기 위원을 추천함.

▷ 국제위원회 위원장으로 많은 국제활동을 하고 있는 조인숙 위원을 추천함.

▷ 건축 및 도시계획을 전공한 후 로스쿨을 통해 미국 변호사를 취득하고 한-미 FTA에 대해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김지엽 위원을 추천함.

▲기타사항

• 한-미, 한-EU FTA의 건축사 MRA 구성 및 협상대표는 '대한건축사협회' 인 것을 국토해양부에 알리기로 함.

– 각국은 민간협상기구가 단일화 되어 있는데 (미국: AIA, EU: ACE) 우리나라는 4단체가 나와 각자의 의견을 제시하면 유리한 협상을 진행 할 수 없음.

– 건축사자격상호인정 사항이므로 건축사 자격단체인 '대한건축사협회'가 협상의 주체가 되어야 함.

■ **제8회 교육원설립준비위원회**

제8회 교육원설립준비위원회 회의가 지난 9월11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건축사 실무교육 계획의 건
  - 운영위원회에 한국건축산업대전은 전문교육 1시간, 자기계발 1시간을 대한민국건축사대회는 윤리교육 1시간, 자기계발 1시간을 실무교육으로 인정요청하기로 함.
  - 최초의 전문교육이니 출석 체크를 엄격히 하기로 함
- 제2호 : 건축사 실무교육과정개발 연구용역 실시에 관한 건
  - 연구용역의 주목적이 커리큘럼 개발에 있음을 강조하기로 함
  - 책임연구원에게 연구인원 및 비용지불에 대해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로 함
- 제3호 : 교육관리 프로그램 발주에 관한 건
  - 제안서 검토시 위원장 및 위원 1인이 참여하기로 하고 위원 1인 선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함.
  - 등록원에서 개발된 동영상관련 프로그램을 교육관리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여 가능하면 사용하기로 함

▲기타사항

- 친환경 관련 동영상 목록에 대하여 친환경아카데미 운영진의 추천을 받아 전영철 위원이 검토하여 5~10개를 선정하고, 선정된 동영상목록을 대상으로 강사의 승인을 받기로 함

■ **제1회 건축사교육원 운영위원회**

제1회 건축사교육원 운영위원회 회의가 지난 9월27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건축사교육원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건
  - 건축사교육원 영문명은 KIRA Education Board(KIRA EB)로 하기로 하고, 교육원홈페이지 및 영문명 디자인은 인의식위원이 검토하기로 함.
  - 건축사교육원운영위원회 회의는 매월 첫 번째 월요일에 개최하기로 하고, 2012년 11월 초에 각 시 · 도건축사회 교육위원장 합동 회의를 개최하기로 함.
- 제2호 : 건축사 실무교육 계획에 관한 건
  - 2012 한국건축산업대전 연계 건축사교육이 건축사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첫 교육이므로 출석check(입실 · 퇴실 등) 및 교육운영에 문제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기로 함. (ex:등록부스 추가 및 진행 아르바이트 확보 등)
  - 건축사대회 광주 · 전남 건축물 답사 및 투어, 산업대전 연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교육 및 세미나 인정은 강의계획 및 구체적인 계획(안)을 다음 회의에서 검토한 후 인정하기로 함.
  - 실무교육관련 동영상촬영은 외부업체를 통해서 촬영하기로 하고, 동영상촬영 과목은 김윤 위원장과 사무국에서 추후 협의하기로 함.
  - 각 지역 건축사회에서 자체 개발한 교육 콘텐츠 공유 및 비용 정산등에 대한 협의를 다음 회의 안건에 반영하기로 함.
- 제3호 : 건축사교육원운영위원회 운영규정 제정에 관한 건
  - 기획위원회에서 검토한 건축사교육원 운영규정(안)외 다른 의견은 사무국에 통보하기로 하고, 다음 이사회에 상정하기로 함.

▲기타사항

- 건축사교육원 현판식 행사일정은 회장님과 상의 후 결정하기로 함.
- 건축사실무교육 비용문제, 교육장확보에 관한 사항은 다음회의 때 논의하기로 함.
- 각 시 · 도건축사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일정도 강의계획 및 구체적인 계획안을 올리면 교육시간 인정 여부를 검토 후 통보하기로 함.
- 건축사교육원운영위원회 간사는 왕한성 위원이 하기로 함.

■ **제5회 기획위원회**

제5회 기획위원회 회의가 지난 9월20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전문회원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건
  - 현 전문회원들을 구조, 건축계획, 도시계획, 조경, 조명, 건축시공, 토목구조, 지질, 음향, 색채, 소방, 수질, 석면 등의 전문분야별로 구분한 전문회원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 후 이사회의 의견을 구하기로 함.
- 제2호 : 협회 중요기록물 관리에 관한 건
  - 협회 중요기록물 관리에 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후 재논의하기로 함.
- 제3호 : 건축사교육원 운영규정 검토의 건
  - 협회 건축사교육원 운영규정(안)을 아래와 같이 수정 · 보완하고 이사회 부의안건으로 상정키로 함.

원 안	제 정 (안)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교육원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적용하며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협회의 제규정을 따른다. 〈신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교육원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적용하며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협회의 제규정을 따른다. ② 협회가 교육시행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경우 별도의 세부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5조(사무기구) 교육원 원장은 협회의 회장이 겸임하고 다음의 사무기구를 둔다. 1.~2. 생략 가. 생략 나. 위탁교육팀 : 한옥전문인력 양성과정 등 정부에서 위탁받은 교육 시행 다. 생략	제5조(사무기구) 교육원 원장은 협회의 회장이 겸임하고 다음의 사무기구를 둔다. 1.~2. 가. 생략 나. 위탁교육팀 : 정부 및 외부기관에서 위탁받은 교육 시행 다. 생략

▲기타사항

• 내년 총회에 회장 직선제등을 포함한 개정안을 이사회 협의사항으로 건의하기로 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작년 정관개정(안) 자료를 사용하도록 함.

■ 제7회 주거복지위원회

제7회 주거복지위원회 회의가 지난 9월21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우리도시 되살리기' 토론회 및 현장답사 협의의 건

– 기상문제로 연기된 인천 송도 커넬워크 현장답사는 위원장과 강정연 위원이 22일 실시하기로 하고 제5차 현장답사와 간담회는 아래와 같이 진행키로 함.

ㅇ 일시 : 2012년 9월 24일(월) 14:00~18:00

ㅇ 장소 : 현장답사(대전시 정동일대), 토론회(대전시청 세미나실)

ㅇ 현장답사 안내 : 강정연 위원, 대전건축사회 위원

ㅇ 세미나 준비 : 임혜숙, 한상미 위원

ㅇ 세미나 사회 : 장미경 위원

ㅇ 자료발표 : 정영태 위원

• 제2호 : "우리도시 되살리기" 세미나 개최의 건

– "우리도시 되살리기" 세미나를 2012년 11월 30일(금)에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대전시 해당부서와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세미나를 준비하고 지금까지 지출한 경비를 정산하여 세미나 소요예산(안)을 재검토하기로 함.

■ 제7회 사업위원회

제7회 사업 위원회 회의가 지난 9월21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참관객 마케팅 및 전시장 구성의 건

– 유료부스[무료부스 포함 총부스]현황

2012.09.20 기준

※유료부스(200부스) 목표달성율 : 68.5%

참가업체	기본부스	독립부스	부스 합계
57 [62]	74 [82]	63 [111]	137 [193]

ㅇ 우수건축자재 추천심사 접수현황 :총 21개 품목[신규 20개/ 갱신 1개]

• 제1–1호 : 참관객 마케팅 방안

– 시 · 도건축사회 지원금은 '한국건축산업대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예산이므로 건축사대회 행사참여와 별개이며, 참여인원에 따른 비용지급은 '차별'이 아니므로 기존 원안대로 유지키로 함.

– 관람요청 공문 및 초대장, 보도자료 배포 등은 사무처에서 진행키로 함.

• 제2호 : 한국건축산업대상 후보자 추천의 건

– 제9회 이사회('12.09.12)에서 회장단에게 위임되어 원안과 같이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상(오씨아이, 일신산업), 대한건축사협회장상(동방보노펌, 세이크)을 추천함.

▲기타사항

• 미술동호회의 전시회 부스 및 장치비 지원에 관하여 정식으로 서면요청받기로 하며, 장치비는 전액이 아닌 일부를 지원받아 진행토록 협의키로 함.

•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과 협회간 MOU체결에 따른 교류증진 및 전시활성화 목적으로 실무회의('12.09.21)를 한 바, 전시회 부스 및 세미나 장소 지원을 협의하였음.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교육원' 현판식 가져

대한건축사협회는 지난 10월 17일 오전 11시30분 건축사회관 3층 로비에서 강성익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과 건축사교육원운영위회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건축사교육원' 현판식을 가졌다.

강성익 회장은 인사말에서 "건축사실무교육을 맞게 될 교육원의 출범은 건축사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본다."며, "교육원 출범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은 분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고 밝혔다.

2012 대구 · 경북 건축문화 심포지엄 및 건축과 영화의 만남 행사 개최

대구광역시건축사회(회장 이택붕)는 2012년 10월 11일 오후1시 대구문학관 예정지(이벤트홀)에서 시민 및 지역 건축인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 · 경북 건축문화 심포지엄 및 건축과 영화의 만남행사'를 개최했다.

2012 대구건축문화비엔날레 행사의 일환으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대구건축사회와 오랫동안 교류해 온 일본 교토부건축사회의 에토 테루오 회장을 초청해 '일본의 최고 고령자 개호시설(노인복지시설) 설계'에 대해 심도 깊은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어 제4회 서울국제건축영화제 출품작인 'Great Expectation'를 상영했다. 제4회 서울국제건축영화제는 출품작을 지역 순회상영 행사의 일환으로 상영하고 있다.

광주건축사회, 광주시복싱선수단 격려

광주광역시건축사회(회장 심상봉)는 지난 9월 21일 광주 무등경기장 복싱체육관을 방문해 광주시복싱선수단을 격려했다.

행사에는 광주광역시건축사회 심상봉 회장과 강필서 부회장 등 임직원이, 선수단은 선수 및 코치진 등 총 30여명이 참석했다.

심상봉 회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의 모습에 이번 전국체전에서 반드시 좋을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광주건축사회원 모두 한마음으로 응원하고 있다"고 응원했다.

한편 광주건축사회는 지난 1995년부터 광주시복싱선수단과 자매결연을 맺고 매년 격려를 위해 방문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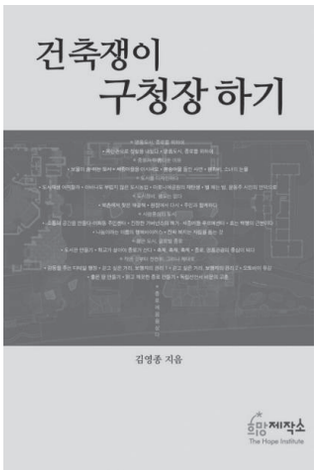
인천건축사회, 건축행정 추진 업무협약

인천광역시건축사회(회장 조동욱) 인천시 남구 건축사 어울림회는 지난 10월 11일 인천구청에서 '인천 동구와 건축행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건축사들과 협력을 통해 재능기부 문화를 확산하고 건축행정의 발전과 전문성을 제고해 주민들에게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됐다.

이날 협약식은 동구청 관계자들과 건축사 어울림 회장 및 회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으며, 협약 체결을 통해 구와 건축사 어울림회는 △건축민원상담실 운영 △소규모 건축물 돌봄 서비스 △재난 위험 시설문의 진단 및 보수 지도 △건축행정 분야 멘토링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건축사 김영종 종로구청장 출판기념회 열어



김영종 구청장 책설명

강성익 회장 출사

건축사이자 현 종로구청장인 김영종 구청장이 쓴 책 '건축쟁이 구청장하기'의 출판기념회가 지난 10월 17일 오후 6시 30분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렸다.

'건축쟁이 구청장하기'는 김 구청장이 민선 5기의 반환점을 넘어 초심을 돌아보는 시점에서 새로운 각오를 다지며, '작은 것부터 천천히, 그러나 제대로'라는 나름대로의 소신을 가지고 발로 뛴 2년을 정리한 책이다.

이날 행사에는 약 천여 명의 내외 빈이 참석했으며, 박원순 시장과 안희정 충청남도지사의 영상 축하 동영상을 필두로 이종찬 전 국정원장, 손학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정세균 국회의원, 승효상 건축사와 강성익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등이 참석해 인사말과 축하를 전했다. 아울러 국회의원 및 자치단체장, 예술단체장 등 인사도 약 100여명이 넘게 참석해 김 구청장의 넓고 두터운 인맥을 보여줬다.

김 구청장의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책 소개에서는 종로구를 사람중심 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던 흔적들이 고스란히 보여졌다. 특히 김 구청장이 중점 추진했던 도서관 사업과 국내최초 민관거버넌스 사업인 종로종합장애인복지관 세종마을 푸르메센터 개관, 보행불편 개선사례 등이 사진과 함께 실려 있다.

그는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종로는 우리나라 문화유산의 보고이자 21세기 잠재된 문화역량의 원천이기에 이런 종로의 문화를 되살리는데 진정으로 기여하는 문화기획자이자 문화구청장이 되는 것이 꿈이다."라며 "이 책에 담은 내용들이 더 나은 종로를 만드는데 미약하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건축의 날' 및 '건축인걷기 한마당' 행사 개최

건축의 날 행사전경

걷기 한마당 행사 전경

한국건축단체연합(FIKA/대한건축사협회 · 대한건축학회 · 한국건축가협회)이 주최하고 대한건축학회(회장 서치호)가 주관한 '2012 건축의날' 기념식이 지난 10월 8일 오후 2시 국립중앙박물관 야외행사장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국토해양부 권도엽 장관과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이상정 위원장을 비롯해 건축3단체인 강성익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서치호 대한건축학회 회장, 이광만 한국건축가협회 회장 등 건축인 500여명이 참석했다. 건축의 날은 원래 경복궁 창건일 9월 25일이지만 기념식은 매년 10월 초에 개최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최재천 이화여자대학교 에코화학부 석좌교수의 특별강연으로 시작해 기념식으로 이어졌다.

기념식에서 권도엽 국토해양부장관은 "정부는 2007년 건축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건축에 대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성과는 이 자리에 계신 건축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이 있기에 가능했다"며, "오늘같이 맑은 하늘처럼 건축의 미래를 위해 다짐하는 날이 되길 바란다"고 치사했다.

이날 영예의 훈장은 이문보 동국대학교 교수가 수훈했으며, 정부포상자는 43명으로, 건축사를 비롯한 대학교수와 건설회사 임원 등이 대통령표창과 국가건축정책위원장표창, 국토해양부장관표창, 문화체육관광부장관표창을 수상했다. 정부포상 후 참석한 내외 귀빈들은 전시회장으로 이동해 테이프 커팅식을 가졌다. 이날 전시된 건축 작품들은 각 지역의 우수 건축물들을 전시했다.

대한건축사협회에서 추천하여 수상한 건축사 중 대통령표창은 권연하(주.건축사사무소 우림에이앤씨), 국무총리표창은 김의중(건축사사무소 서보건축), 국가건축정책위원회장표창은 이운희(성광 건축사사무소), 정종태(쿠파이엔지종합건축사사무소), 구창서(대건 종합건축사사무소), 국토해양부장관표창은 안택영(에이알 건축사사무소), 노경윤(토마 건축사사무소), 박대융(예가 종합건축사사무소), 이동춘(이동춘 건축사사무소), 전찬흥(아트피아 전찬흥 건축사사무소), 김성민(한섬 건축사사무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은 마춘영(세인 종합건축사사무소), 김강수(연우 건축사사무소), 백민석(건축사사무소 더블유) 건축사가 수상했다.

공식적인 기념식이 끝난 후 이어진 리셉션에선 다양한 축하공연이 채워졌다. 강성익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은 환영사에서 "건축의 날이 2005년 제정되어 벌써 8회째를 맞았다. 2007년 대통령상, 국무총리상이 신설 확대됐고, 이제는 훈장도 시상하는 등 국가의 지원이 차츰 확대되어 건축계를 대표하는 행사로 자리 잡아 가고 있음을 실감한다."며, "앞으로도 건축계의 미래를 밝힐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겨날 것이고, 우리 건축문화 역량과 건축인들의 위상도 나날이 달라질 것이라 확신한다. 건축계가 힘을 모아 더욱 분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건축의 날 기념식에 앞서 지난 10월 6일 남산 국립극장 문화광장에는 2,500여명의 건축인이 모인 가운데 '2012 건축인 걷기 한마당'이 개최됐다.

건축의 날을 기념해 열린 이날 행사에는 건축사 및 건축사 가족을 비롯한 건축사사무소 임직원, 건축과 대학생 그리고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이상정위원장과 건축3단체장을 비롯한 여러 단체의 임직원 등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오전 9시부터 문화광장을 출발한 참가자들은 남산의 가을 정취를 만끽하며 총 6km의 산책로를 걸었다. 이날 참석자 대부분은 6km 코스를 완주한 가운데, 걷기대회 후 펼쳐진 '비보이 공연'을 관람하며 상품추천행사를 마지막으로 대한건축사협회가 주관하는 내년 대회를 기약했다.

2012 건축의 날 포스터 공모전 수상작 발표

'제8회 건축의 날(10.8)'을 맞아 '건축인이 화합하고 건축이 대중에게 다가가기'의 일환으로 건축의 날 포스터를 공모전을 개최한 결과 "하나의 큰 지붕아래 모여 화합과 단결, 더 나아가 창의적 건축문화창달과 공공성 확보를 추구한다"는 디자인 콘셉트의 이상윤(주.정림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씨의 작품이 최우수상으로 선정됐다.

이밖에도 우수상에는 최미진(가천대학교 건축학과) 씨와 이양석(전북대학교 건축학과) 씨의 작품이 선정됐다.

2013 청암사진아카데미 디지털 건축사진 교육생 모집

청암사진연구소(대표 임정의)에서는 2013년 1월10일 부터 12주간 디지털 건축사진아카데미를 새롭게 개최한다.

이번 디지털 건축사진아카데미는 기존 수업과는 다르게 모든 작업방식을 디지털로 진행해 디지털 시대에 맞춰 촬영에서 프린트까지 100% 디지털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강의는 2013년 1월 10일부터 3월 28일까지 12주간 매주 목요일 저녁 7시부터 90분간 이론 및 실습을 진행한다. 참가인원은 12명 내외로 자세한 문의 사항은 청암사진연구소(chungam11@naver.com, 02-444-7088 혹은 02-517-3351)로 하면 된다.

[교육내용 및 일정] 제1주차 : 오리엔테이션, 코스 소개 및 강사진 소개 및 건축사진의 기본적인 이해와 흐름 / 제2주차 : 디지털 카메라의 구조 및 종류와 특성 / 제3주차 : 카메라 렌즈의 종류와 활용법 그리고 촬영 노출 보정의 이해(실습) / 제4주차 : 개개인의 과제 발표 및 크리틱 / 제5주차 : 건축사진의 다양한 구도와 컨셉 그리고 빛과 노출 / 제6주차 : 디지털 카메라를 위한 포토샵 활용(실습) / 제7주차 : 중간평가와 카메라 사용에 대한 추가설명 / 제8주차 : 전통건축 바라보기 / 제9주차 : 현대건축 바라보기 / 제10주차 : 개인의 작품 평가와 포트폴리오 준비하기 / 제11주차 : 잉크젯 프린트의 활용과 포트폴리오 직접 만들기 / 제12주차 : 프리젠테이션과 총평

'아이콘 파티 Vol.2' 개최

'아이콘 파티 Vol.2'가 '공유+(플러스)'라는 주제로 11월 6일(화) 오후 6시 인천아트플랫폼 C동 공연장에서 개최된다.

인천건축재단), 2012 인천건축문화제 조직위원회, 건축잡지 〈와이드AR〉이 공동 주최하고, 인천광역시건축사회가 후원하는 이 행사는 인천 및 타 지역에서 활동하는 건축사와 교수를 포함한 디자인 · 미술 · 도시 제 분야 전문가 중 이슈메이커를 강연자로 초대하여 주제 토크와 더불어 일반 참석자와 함께 생각을 나누는 컨퍼런스 형식으로 진행된다. 강연자 1인당 20분의 발표 시간이 주어지며, 전 강연자의 발표가 끝나면 사회자에 의한 공동 대화의 장으로 펼쳐진다.

아이콘 파티(ICON PARTY)는 인천의 건축 · 미술 · 디자인 · 도시의 잠재성과 역동성을 보여줄 수 있는 연속 프로그램으로 개최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지역에서 활동하는 건축인들과 타 장르 작가 및 일반인들과의 만남의 장은 물론 건축 · 미술 · 디자인 · 도시 관련 대학(원)생들과의 만남을 주선함으로써 건축 문화의 지평을

넓히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또한 건축사들의 전문영역에 대한 공론의 장을 만들고, 인천광역시건축사회, 인천건축재단의 구성원들과 함께 인천의 도시 공간 환경이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된다. 강연자는 김태만 건축사(해안건축 디자인부문 사장), 박유진 건축사(시간건축 대표), 박진택(AA Dipl(hons) RIBA), 손정민 건축사(XECT건축 대표), 신호섭+신경미 신아키텍츠 공동대표, 오장연 GoodHaus 대표이다.

컨퍼런스 파티 공동 사회자는 권형표 건축사(바우건축 대표)와 전진삼 와이드AR 발행인이다. 문의는 070-7715-1960로 하면 된다.

KCC '뽀로로 아동용 바닥재' 출시

KCC(대표 정몽익)가 바닥재 업계 최초로 '뽀롱뽀롱 뽀로로' 측과 손 잡고 뽀로로 캐릭터가 적용된 바닥재를 출시하며 아동용 친환경 바닥재 시장 공략에 나섰다.

이번에 출시된 뽀로로 바닥재는 어린이 안전과 건강에 초점을 맞춘 아동용 전문 제품으로4.5mm의 경보행 바닥재이다. 또한 고탄력 쿠션층이 적용되어 보행감이 좋고 우수한 충격흡수 기능을 갖추고 있어 특히 왕성하게 활동하는 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 아동들이 마음껏 뛰어 놀기 좋은 제품이다.

특히, 이 제품은 내년부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함유량을 규제하는 지식경제부 산하 기술표준원의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의 안전기준' 고시에 따라 프탈레이트계를 함유하지 않은 친환경 가소제를 적용한 건강한 바닥재로 어린이 피부에 직접 닿아도 무해한 장점을 갖추고 있다.

KCC 디자인부 허성훈 차장은 "'아이들의 건강을 위한 바닥재라는 모토로 이번 제품을 기획, 출시했으며 제품 디자인에 있어서도 최고 인기 캐릭터인 '뽀롱뽀롱 뽀로로' 캐릭터를 패턴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하고, "어린이들이 집안에서 맘껏 뛰어 놀 수 있도록 쿠션감을 강화시켰으며, 친환경 가소제를 적용하여 어린이 건강에 신경 쓴 친환경 바닥재이다."라고 말했다.

신간안내

가슴으로 쓴 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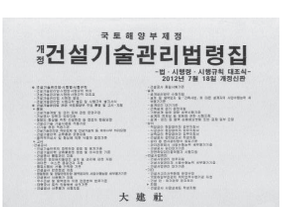
김종일 외 저 | 411쪽 | 맑은샘

신간 '가슴으로 쓴 편지'는 현재 경남에서 시원 건축사사무소를 운영 중인 건축사인 필자가 개인 가족간의 프라이버시를 공개하면서까지 가족 구성원 간에 서로 관심을 가져주고, 대화하고, 함께하는 많은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발간한 책이다.

책에는 딸이, 아들이, 아내가 필자에게 주고받은 편지가 애틋하게, 때론 서로에게 따끔한 충고, 가슴 뭉클한 격려의 내용이 담겨 있다. 아들, 딸과 혹은 아내와 더 가깝게 지내고 싶어 방법을 찾는 건축사에게 동료의 경험담은 좋은 말벗과 같다.

개정 건설기술관리법령집

대건사 편집부 저 | 1006쪽 | 대건사



『건설기술관리법령집』은 2012년 7월 18일 개정신판으로 법 시행령 시행규칙 대조식을 제공하는 건설 기술관리 법령집이다.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등을 살펴보고, 책임감리현장 참여자 업무지침서, 시공감리업무 수행지침서 등을 제공한다.

궁궐, 조선을 말하다 : 궁궐로 읽는 조선의 제도와 이념

조재모 저 | 264쪽 | 아트북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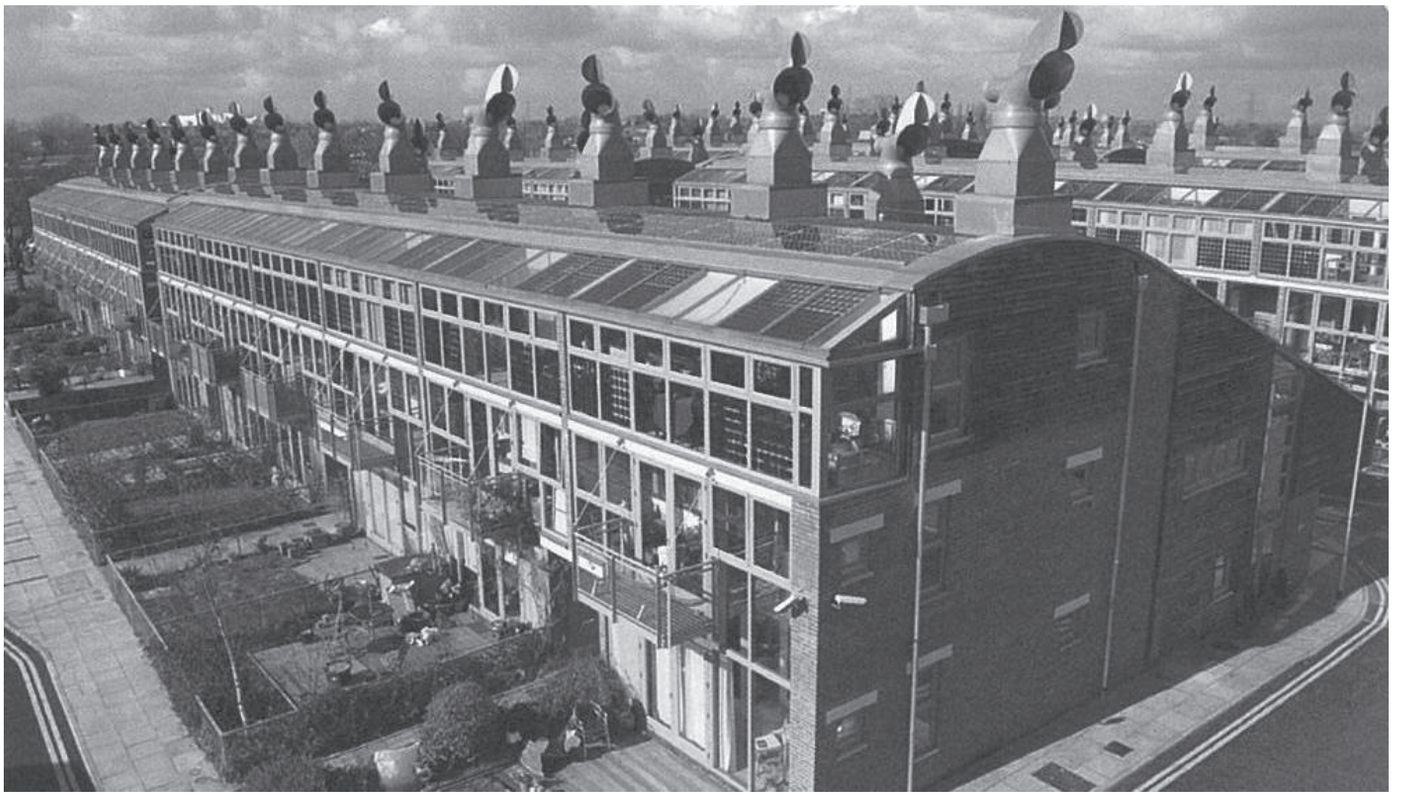
신간 '궁궐, 조선을 말하다'는 '공간과 행위의 관계'를 통해 궁궐을 읽는 작업을 지속해온 필자 조재모 경북대 건축학부 교수가 '체제'의 관점에서 궁궐을 탐독한 책으로 궁궐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보여준다. '체제'란 건축 행위에 전제된 계획 같은 '건축적 요소'와 궁궐의 실제 운영 방식 · 역사적 변화 같은 '건축 외적인 요소' 모두를 일컫는다. 필자는 '어떻게 사용하려고 만들었는가'와 '실제로 어떻게 사용했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조선의 제도와 이념이 궁궐에서 어떻게 구현되었는지를 입체적으로 살핀다.

또 북경의 자금성이나 교토 어소 자신전의 기타비사시, 베트남의 후에 궁궐 등 동시대 동아시아 궁궐의 고찰을 통해 조선 궁궐의 특징을 규명하고 있다.

전성호_Chun, Seong-ho | (주)세가 건축사사무소, 대한건축사협회 국제위원회 위원

아직도 실험중인 친환경주거단지 BEDZED

Sustainable housing BEDZ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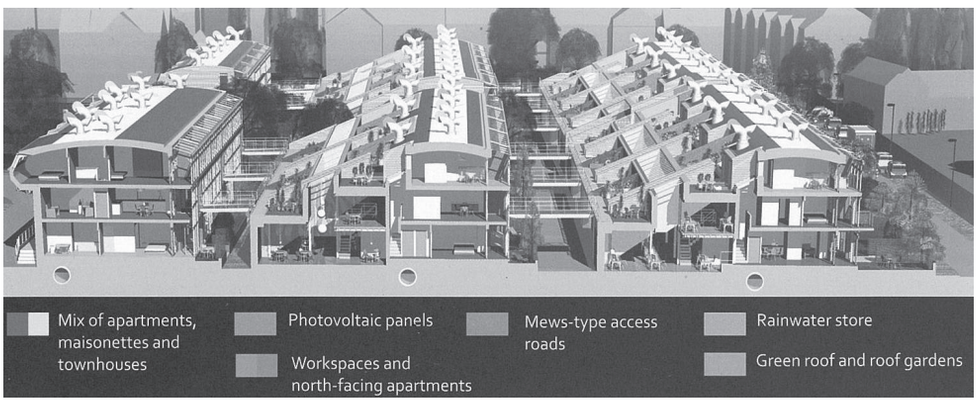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연구나 사례를 언급할 때 거론되는 사례를 살펴보면 반드시 영국 런던 근교에 위치 한 'BEDZED'를 언급하게 된다.

사실상 그 이유를 면밀히 보면 단순히 건축적 해결뿐만 아니라 사회적관심사 문제와 더불어 경제적인 해결책까지 접근하여 실제 현실화된 주거 단지 계획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몇 가지 주목해야 할 부분을 언급해보고자 한다. 흔히들 친환경 건축물을 이야기할 때 기술적인 부분에 관점을 두고 살펴보지만 이럴 경우 지속가능한 친환경 건축물은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친환경 기술을 하드웨어 부분이라면 사회적, 경제적 관점을 배려한 소프트웨어 부분을 하드웨어 부분과 접목하여 잘 융화된 디자인에서 지속가능한 친환경 건축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BEDZED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보도록 한다.

왜? 지속가능한 커뮤너티가 필요한가 : 인류가 평균적인 유럽국가 수준으로 생활하려면 지구 3개정도가 필요하다고 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근본적인 디자인 해결책이 필요로 하게 되는데 훌륭한 대중교통 체계, 주민들을 위한 커뮤너티 시설, 에너지 절약 체계, 지역사회와 연계된 주거시설 등을 배려하여 생활수준을 향상하고 현재 지구의 상황에 부합하는 수준의 지속가능한 친환경 주거 단지 환경을 필요로 한다. 진정한 지속가능



한 친환경 커뮤너티는 시공비용, 분양가격, 분양성, 유지관리비와 같은 경제적인 관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고 이러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향후 보다 진화된 형태로 발전할 수 있게 된다.

그린이 대세이다 : BEDZED는 일반인이 1.8헥타의 대지에서 높은 수준의 라이프스타일을 주어진 제한된 자원을 활용하여 살 수 있도록 계획하였는데, 신재생에너지 전문가, 건축사, 개발사업 전문가의 협업에 의한 결과물이다.

시설의 50%는 분양 및 임대이며 25% 공유시설로 구성되고 25%는 임대 목적의 사회기반시설로 구성되어 있다. 주거시설은 4개의 방으로 구성된 세대별 2층의 연립 주거형태이며 220명이 주거할 수 있고 100명이 단지 내 업부시설에서 일할 수 있게 되어있다.

분양가 및 관리비용 : 주변 지역 비슷한 규모의 주거보다 5~20%비싸다. 하지만 유지 관리 비용은 주변보다 50% 이상 저렴하다.

에너지효율 : BEDZED 주거내부공간은 태양열 이용, 300mm 고단열재 적용, 공기흐름 차단 등의 순수한 패시브 건축디자인을 적용하였다. 온수 및 난방은 주변지역 평균 대비 77%, 전기사용은 34% 이상 절약 된다.

저탄소 에너지 : 에너지 사용은 이 지역에서 100% 자급되는데, 태양열 및 이 지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사용하는 바이오 기술을 이용한 전기 및 난방을 위한 시설을 이용한다.

지속가능한 건축자재 활용 : 일반 자재 대비 탄소 25% 줄이는 결과를 보였다. 재활용 자재, 지역 자재 등을 사용하고 100년 건축 수명 달성(예 인근 역에서 발생한 철골을 재활용하여 구조 자재비용 대폭절감)

지속 가능한 교통수단 : 공용 자동차(car club) 사용으로 주차장 면적을 대폭 축소, 대중교통 적극 활용방안으로 자동차 사용주행거리가 일반 차량대비 64% 축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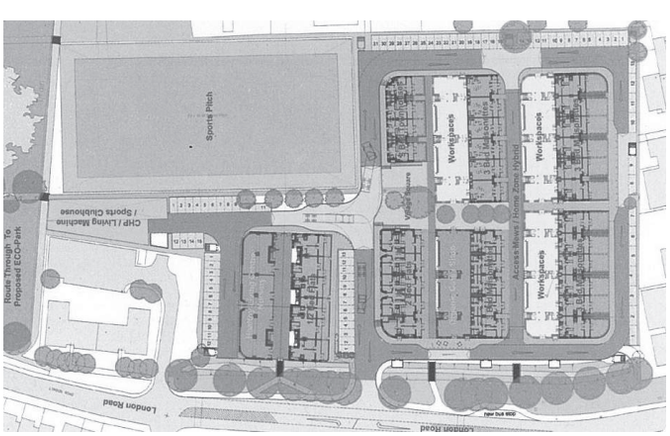
물의 재활용 : 런던의 인구대비 물의 사용량은 수단 보다 부족한 상황, 이를 고려할 때 물의 재활용은 필수적 상황으로 화장실, 화단, 세척 등을 위한 물은 재활용하거나 빗물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일반 런던 가구 물 사용량의 58% 수준으로 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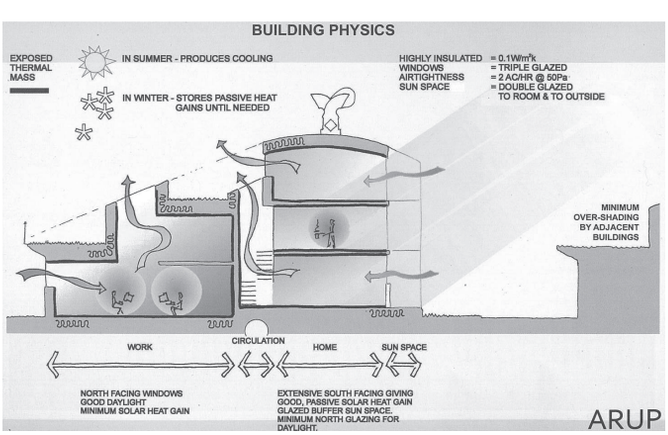
폐기물 재활용 : 이 지역에서 운영하는 자원 재활용 방식을 적극적으로,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단지 내 발생하는 폐기물의 60%는 재활용 되고 13% 정도만 매립 되고 있음. 주방 서랍에 폐기물의 성격에 따라 분리수거가 체계적으로 이루어 질수 있도록 분류되어 있음.

주거 생활의 편의성 : 자연을 최대한 활용한 주거공간 특성으로 인하여 천식과 같은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풍부한 햇빛, 자연에서 발생한 온도 등으로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 2층에서 즐길 수 있는 야외 정원 등 쾌적한 주거 환경으로 평가 받고 있음.

지금까지 BEDZED에 관련된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 보았다. 실제로 방문할 기회가 있어 느낌을 정리해보면 우리나라 주거단지에 비하여 상당히 소박한 외장 자재를 사용하여 검소한 느낌을 받았다.

상대적으로 화려한 우리나라의 주거 단지와 비교해볼 때 과연 앞으로의 주거공간에 대한 고민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을까하는 의구심이 들고 과연 향후 사회, 경제적인 문제를 반영한 주거 부분에 대한 해결책에 있어서 본질적 접근을 하여야 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본다. 아직도 실험중인 BEDZED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건축사사무소 등록현황

(사 : 사무소수, 회 : 회원수) 2012년 9월말

구분 / 건축사회	개인사무소								법인사무소												합계	
	1인		2인		3인이상		소계		1인		2인		3인		4인		5인이상		소계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합계	5,792	5,792	92	184	8	24	5,892	6,000	1,700	1,700	229	458	57	171	26	104	19	125	2,031	2,558	7,923	8,558
서울	915	915	22	44	1	3	938	962	886	886	125	250	43	129	8	32	13	76	1,055	1,353	1,993	2,315
부산	495	495	11	22	2	6	508	523	112	112	23	46	1	3	3	12	2	15	141	188	649	711
대구	484	484	21	42	4	12	509	538	68	68	18	36	2	6	3	12	0	0	91	122	600	660
인천	284	284	3	6	0	0	287	290	65	65	6	12	1	3	0	0	0	0	72	80	359	370
광주	216	216	0	0	0	0	216	216	43	43	6	12	1	3	3	12	0	0	53	70	269	286
대전	264	264	6	12	0	0	270	276	32	32	7	14	4	12	1	4	1	13	45	75	315	351
울산	185	185	5	10	0	0	190	195	21	21	3	6	0	0	0	0	0	0	24	27	214	222
경기	812	812	2	4	0	0	814	816	245	245	19	38	3	9	2	8	1	5	270	305	1,080	1,121
강원	193	193	2	4	0	0	195	197	25	25	2	4	0	0	1	4	0	0	28	33	222	230
충북	221	221	2	4	0	0	223	225	39	39	3	6	1	3	2	8	1	9	46	65	269	290
충남	269	269	1	2	0	0	270	271	52	52	4	8	1	3	2	8	0	0	59	71	329	342
전북	261	261	5	10	0	0	266	271	24	24	4	8	0	0	1	4	0	0	29	36	295	307
전남	213	213	0	0	0	0	213	213	19	19	3	6	0	0	0	0	1	7	23	32	236	245
경북	390	390	4	8	1	3	395	401	39	39	3	6	0	0	0	0	0	0	42	45	437	446
경남	455	455	8	16	0	0	463	471	35	35	2	4	0	0	0	0	0	0	37	39	500	510
제주	135	135	0	0	0	0	135	135	15	15	1	2	0	0	0	0	0	0	16	17	151	152

건축사회별 회원현황

구분 / 건축사회	회원		준회원
	건축사	비율	
합계	8,558	100%	13
서울	2,315	33.9%	2
부산	711	7.9%	8
대구	660	7.7%	0
인천	370	3.8%	0
광주	286	3.7%	0
대전	351	3.7%	0
울산	222	2.6%	0
경기	1,121	12.2%	3
강원	230	2.6%	0
충북	290	3.0%	0
충남	342	3.1%	0
전북	307	3.0%	0
전남	245	1.9%	0
경북	446	4.6%	0
경남	510	5.0%	0
제주	152	1.3%	0

건축사등록원 통계현황

구분	자격등록	실무수련
계	1,756	643
서울	368	452
부산	315	18
대구	372	8
인천	224	3
광주	34	14
대전	13	13
울산	17	1
경기	88	18
강원	15	3
충북	76	24
충남	33	21
전북	62	6
전남	35	20
경북	36	3
경남	13	9
제주	2	4
기타	51	26
비고	회원 : 1,562 / 비회원 : 194	대학 : 566 / 대학원 : 77

사무소형태별 회원현황

구분	개인사무소	법인사무소	합계	비고
회원수	6,000	2,558	8,558	
비율	70.11%	29.89%	100%	
사무소수	5,892	2,031	7,923	
비율	74.37%	25.63%	100%	